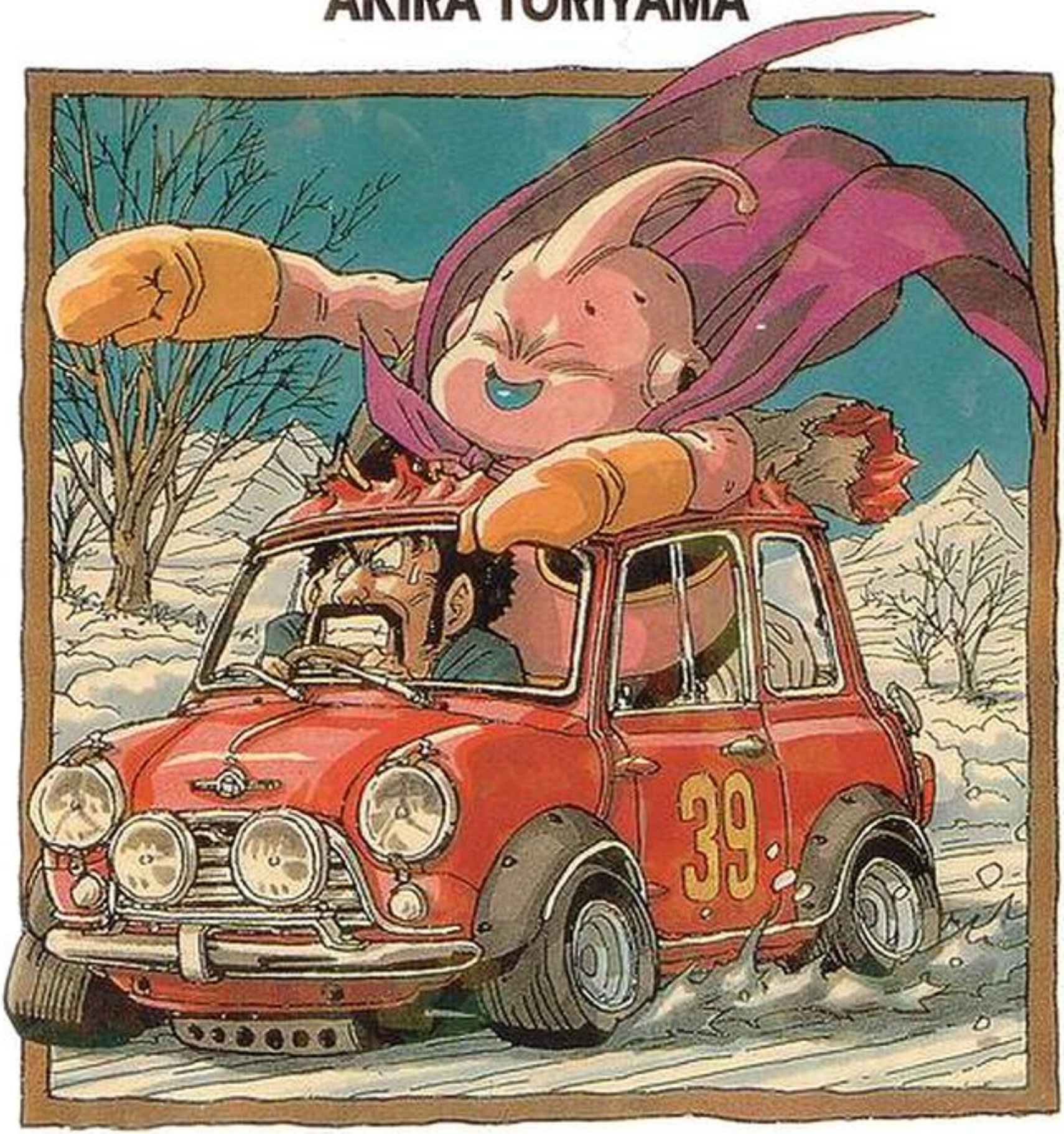
IQ JUMP COMICS
무수정 오리지널 한국어판

DRAGON BALL
드래곤볼

AKIRA TORIYAMA



39 안녕, 자랑스런 전사여

DRAGON BALL 39



Scanned by 블루

제460화 마인 부우 출현!? ····· 7
제461화 이게 바로 마인 부우!? ····· 20
제462화 마인 부우의 위협 ····· 33
제463화 압도적인 이상한 파워 ····· 47
제464화 베지터, 최후의 결사전 ····· 61
제465화 마인 부우의 분노 ····· 75
제466화 바비디의 최후!! ····· 89
제467화 안녕, 자랑스런 전사여 ····· 102
제468화 두번째 악몽 ····· 115
제469화 작은 희망 ····· 129
제470화 바비디의 복수작전 개시!! ····· 142
제471화 고통의 시간 ····· 155
제472화 제트 스워드 ····· 169
표지 페이지 대특집 XXXVI ····· 183

DRAGON BALL

드래곤볼

제460화

마인 부우 출현!?






나…
나온다!!
마인 부우가
나온다구…!!



이… 이젠 틀렸어요! 도망칩시다, 오반…!

엑!?

그, 그런 허약한 소릴 하면 어떡해요!!

이대로 그냥 둘 수는…!

알아요!? 당신들도 마인 부우에겐 도저히 이길 수 없다구요…! 이 세상에 누구도 마인 부우를 쓰러뜨릴 수 있는 자는 존재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여기 있다간 틀림없이 죽을 거예요!

드, 드디어 부활했구나! 자, 어서 나와라! 아빠가 만든 마인 부우란 건 대체 얼마나 대단한 놈일까…!!

하… 하지만 계왕신님…!

빨리!!

큭…!!

그렇다면 나도….

어… 어차피 풀파워가 되고 말았으니…!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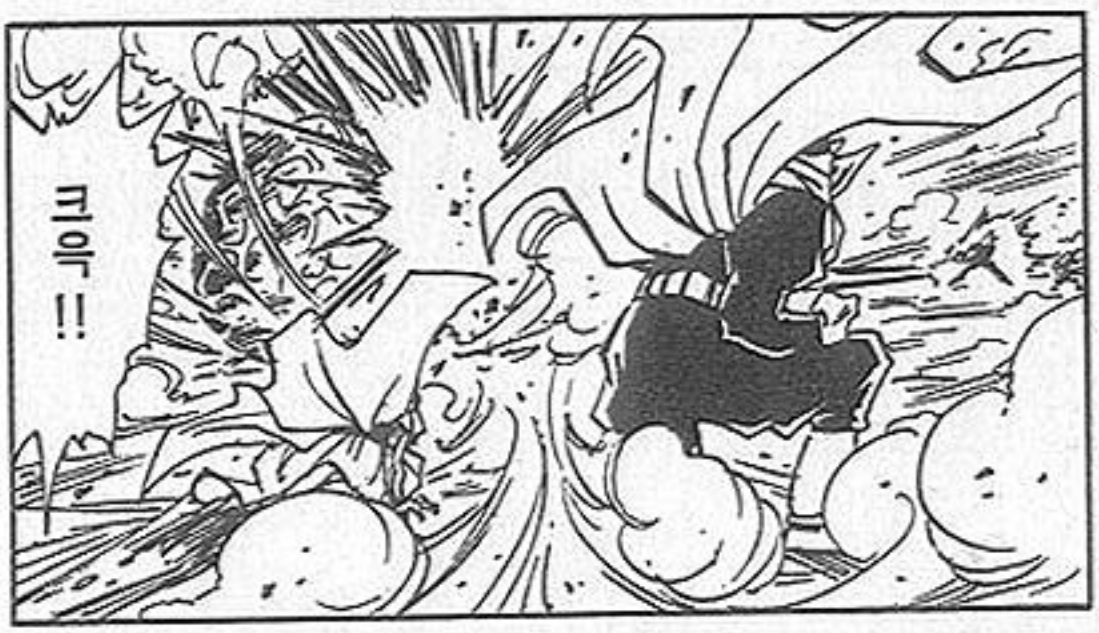
이야야아아~!!

무, 무슨 짓을…!!

나도 이 정도 저항할 힘은 있다-!!


쳇!!




크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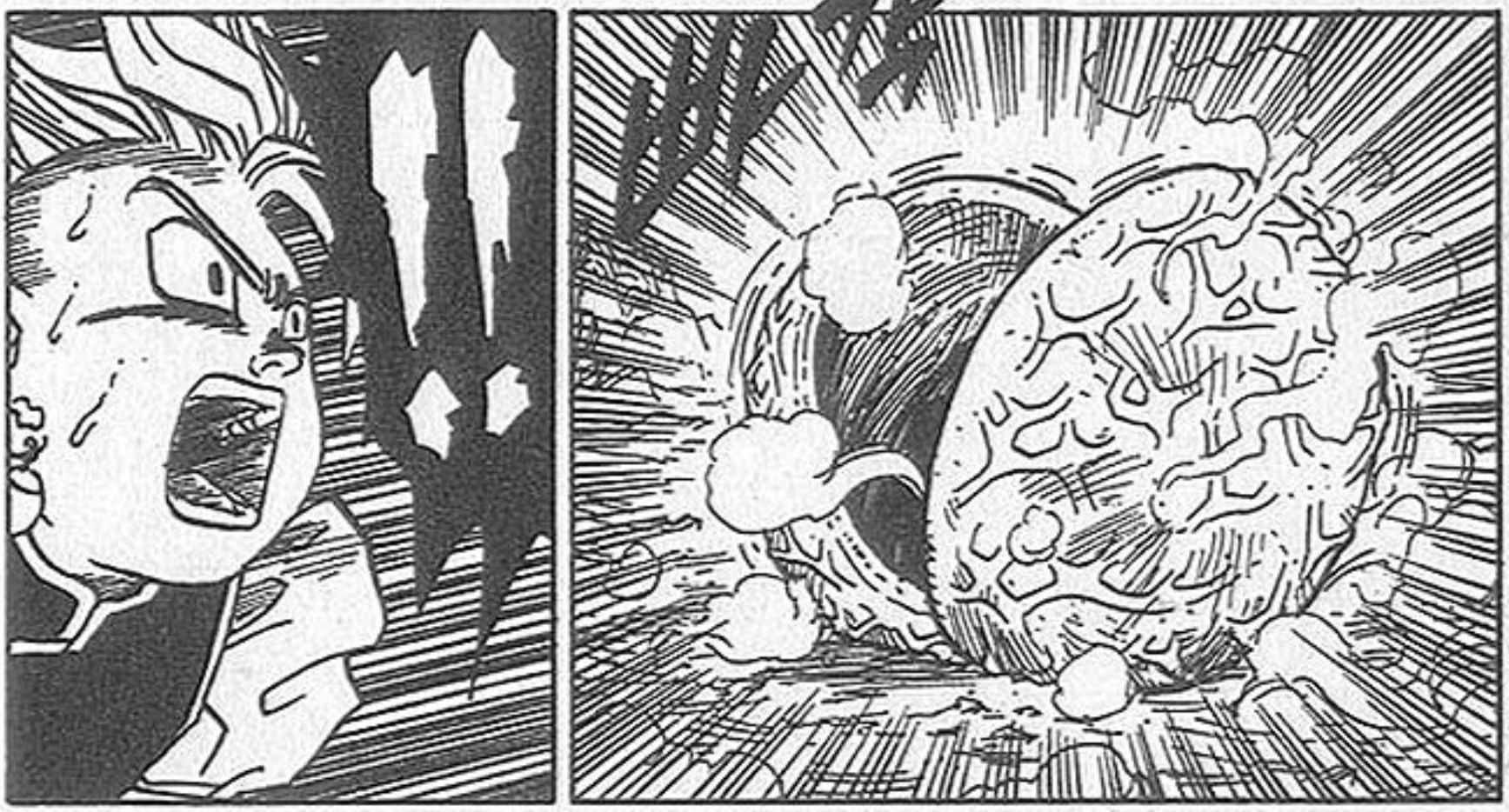

머, 멍청한 놈! 이젠 아무리 발버둥쳐도 소용없어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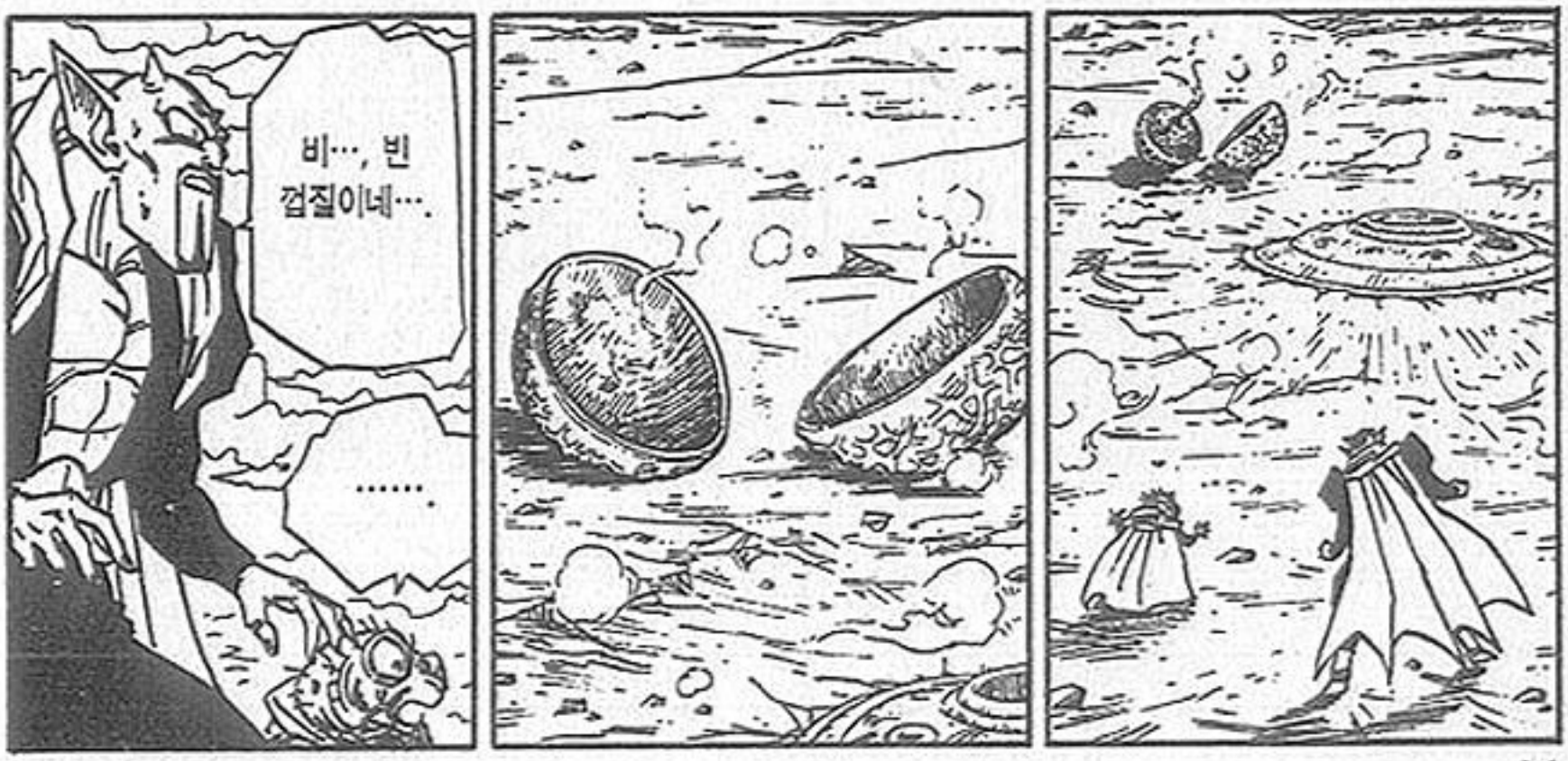

하앗 !!

데굴데굴 ....

.....!!

덜...엉


마인
부우— !!
드디어
나온다— !!


비…, 빈
껍질이네….
……

도대체 어떻게 이런…!?

아… 아니…. 그… 그럴 리가 없어…. 이럴 수가….

마인 부우-!!

어서 나와…! 빨리 나오란 말야-!!

……

아마 오랜 잠을 자는 동안 퇴화해버려서, 아무리 에너지를 쏟아부어봤자 옛날 같은 파워는 사라진 거라구!

바비디! 안 됐지만, 마인 부우는 지금의 공격으로 소멸해버렸다!

허… 하하….

뜻밖의 형운이다…!

바비디 님, 안 된 일이지만 마인 부우 정도는 없어도 제가 있지 않습니까. 게다가 완전하진 않지만 베지터란 녀석이 우리의 지배 아래 있습니다….

끄으…

윽….

내가 바비디를 혜치우겠습니다. 다음에 당신이 데브라를 없애면 바비디의 야망은 완전히 깨져버리는 겁니다!

분명 오공과 베지터는 서로 거의 막상막하의 승부를 겨루고 있을 겁니다….



오공! 평화는 이제 바로 눈앞에 와 있습니다!

자! 오공이 얘기한 것처럼 지금이야말로 분노할 때입니다! 분노하여 당신의 진정한 힘을 보여주십시오!!

어…, 엄청난 기가….

도저히 상상 못할 기가…, 증가하고 있어….

이… 이런….

엑?

아….

아니야….

연기가…!
방금 전 구슬에서
나온 연기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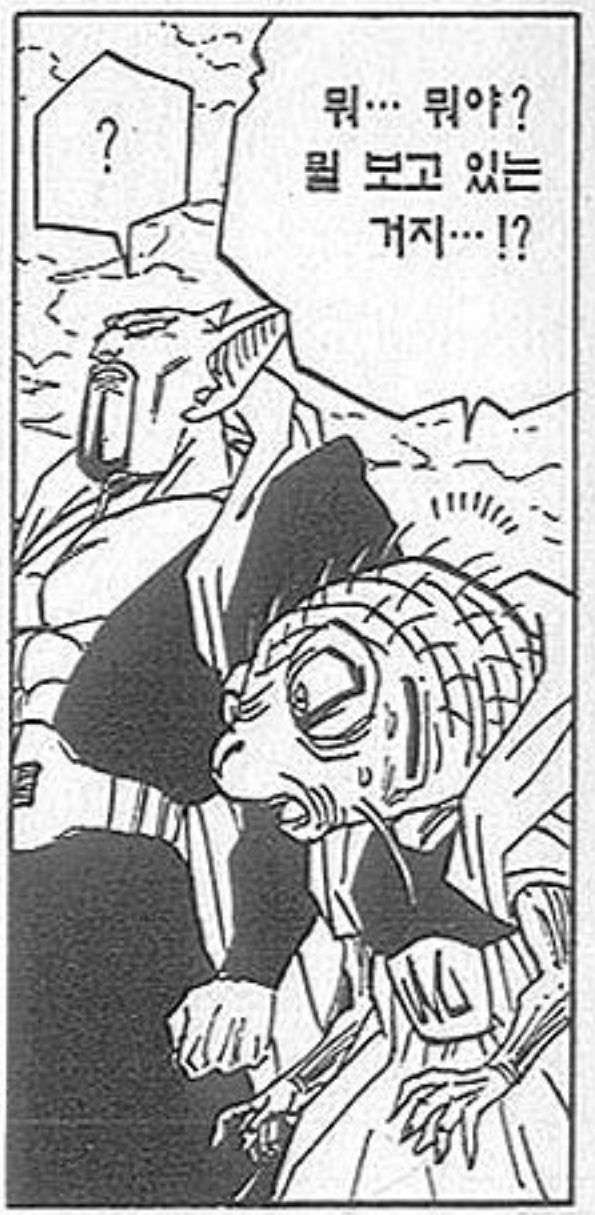
대…
대체 무슨
얘깁니까!?











흐, 흑시 저거….

그래….

맛아…. 이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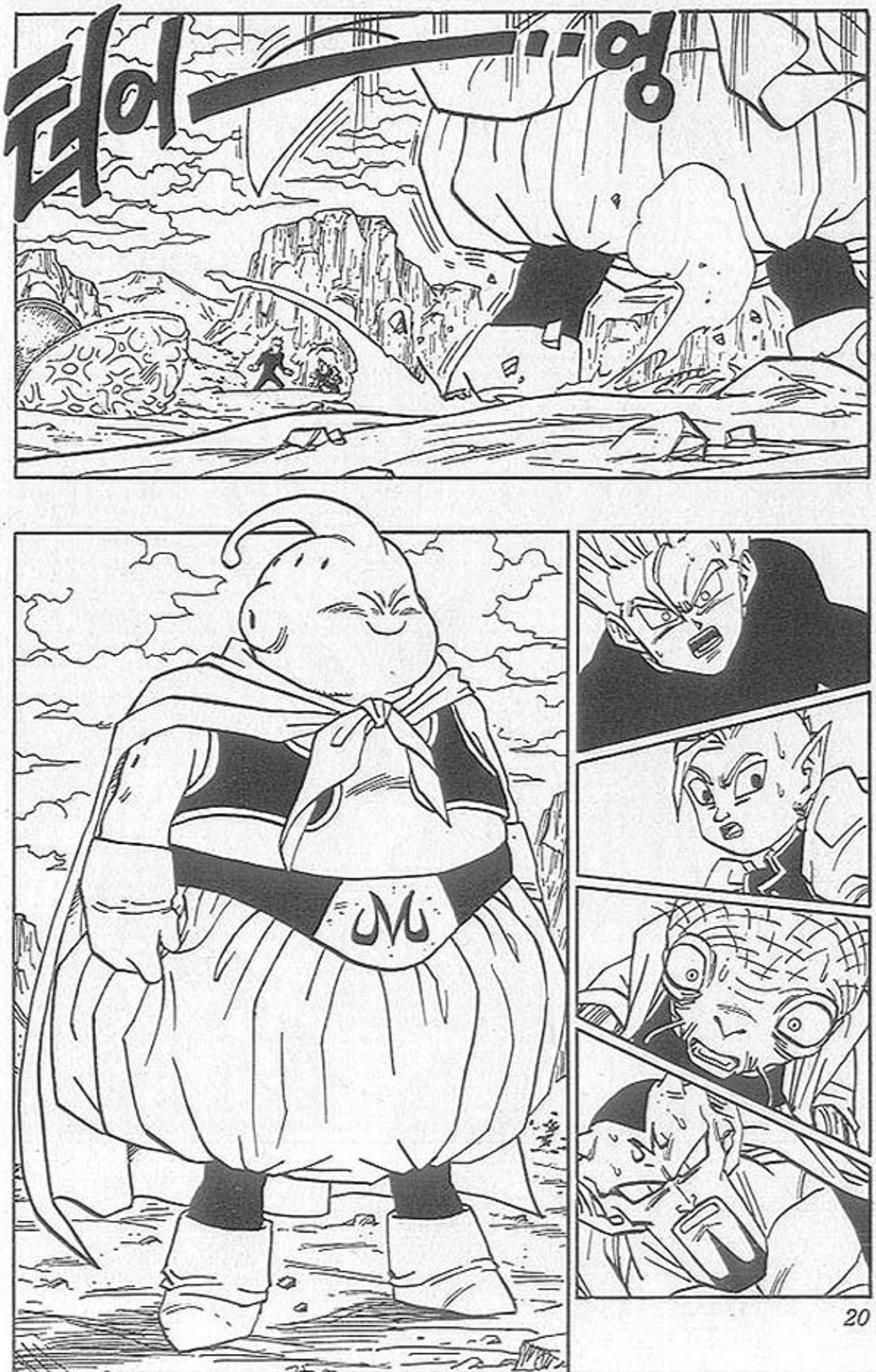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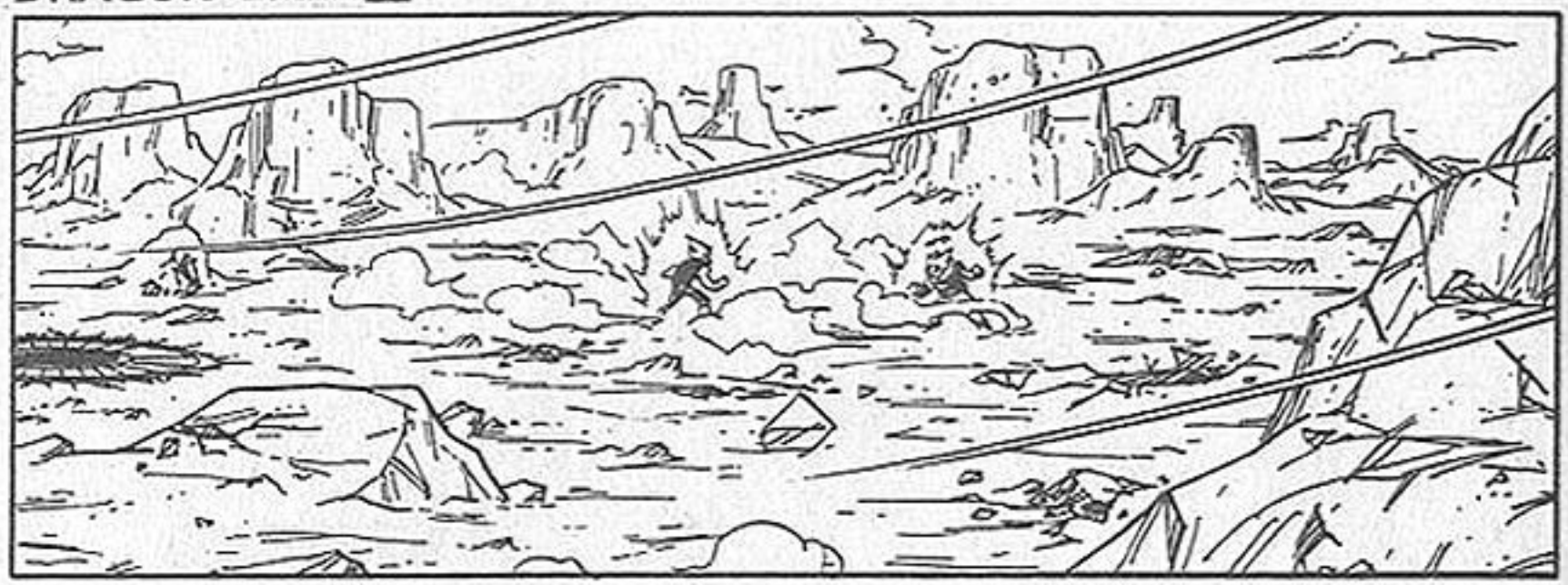
다음은, 제461화 이게 바로 마인 부우!?


퍼어ㅡㅡ..엉


쥬하암
슬쩍
슬쩍
으… 으윽….
부들 부들…
마인 부우를 본 적이 있는 건 계왕신놈 뿐인데….
바비디 님…! 저… 저놈이 마인 부우 맞나요…?
그…, 글쎄….
도… 도저히 잊을 수 없어요…. 그… 그 무서운 얼굴은….
마…, 맞아요….
저… 저기…. 저놈이 마인 부우 인가요…?



으쓱
으쓱
저, 저봐!
역시 저게 마인 부우 맞아!
.....
저… 저런 놈이….
마인 부우라면…, 훨씬 더 크고….
야, 마인 부우!
.....
이… 이제 도망치긴 틀렸어요….
그렇군요….
확실히 상상 못할 기를 가지고 있긴 하지만….
어떻게든 상대는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그게 정말입니까, 오반!?
내 실력만 모두 발휘하면….




하악!
하악!
하악!


허억!
허억!
허억!


엄청난 기가 나타났다…!
'기'야 …!!
드디어 나타난 거야…! 마인 부우가…!!


제길…!!


기다려!!
자, 잠깐!! 베지터!

우하하 하하…!!

후…!

허억….

허억….

후후후….
마인 부우라고…?
얼마나 강한 녀석인가 생각했더니, 역시 이 정도 전투력 수치였군….

내가 그럴 줄 알았다니깐.
알겠냐, 카카로트?
우린 지금 너무 강해져 버린 거야….
상상도 안 될 정도로…!

계왕신이 당황하는 모습을 보면 아무리 대단하다는 마인 부우란 놈도 우리가 상대하면 별게 아니란 얘기야….

본래 굉장한 파워를 지니고 있을 계왕신을 한 번이라도 대단하다고 생각한 적이 있었니?
오히려 계왕신이 우릴 보고 놀랐잖아….

……

아…
아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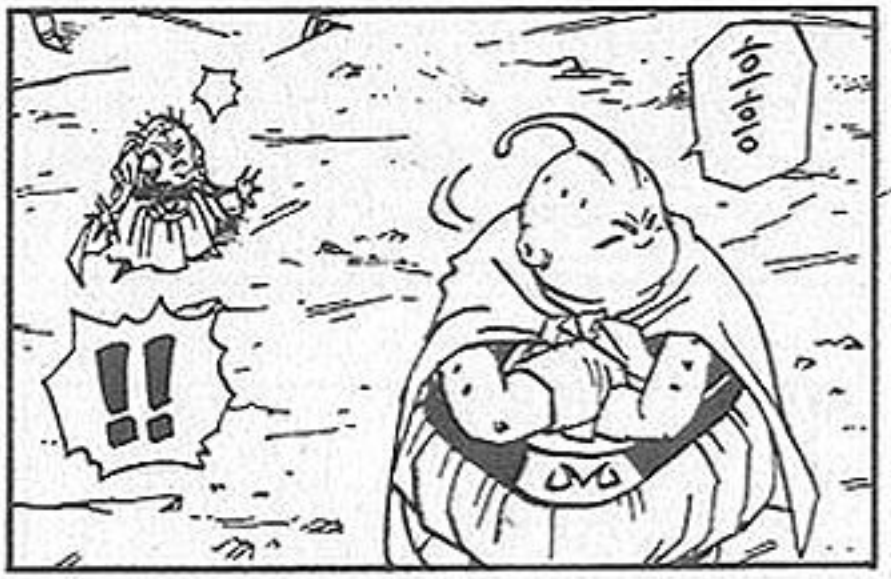
달라….
이건 어딘가 보통 기와는 틀려….

헛소리 그만 해!!

아무리 대결을 피하려 해도 그건 안 돼!!


하암...


내가 네
주인이야!
오늘부터!


하하하
!!


이게 무슨
태도야!
인사를 해라,
인사를!!
야,
임마!


이, 이 봐,
마인 부우!
난 널 만든
비비디의 아들
바비디라고 한다!
구슬에 봉인되어
있던 널 진짜 오랜만에
내가 부활시켜준
거란 말야!


머리


짜샤!
내가 주인이야,
네 주인
이라고!!
마인
부우!!


어…어억!
어억!!
크하하하!!


이유가 뭔진 모르겠지만,
아무래도 실패한 것
같습니다…. 겨우
부활시켰다고 생각했더니,
정신도 파워도 없는
멍청한 얼굴의
쓰레기 같은 놈이라니….


그냥
맛이 간
놈이잖아….
쳇…!


……


야호—오
호호호호호
호호호호…
하긴, 맛이 간 놈이니까….
하룻강아지 범 무서운 줄 모르는 놈…!
왜 그래? 나 데브라 님과 한 번 붙어보자는 거냐?
처억


뭐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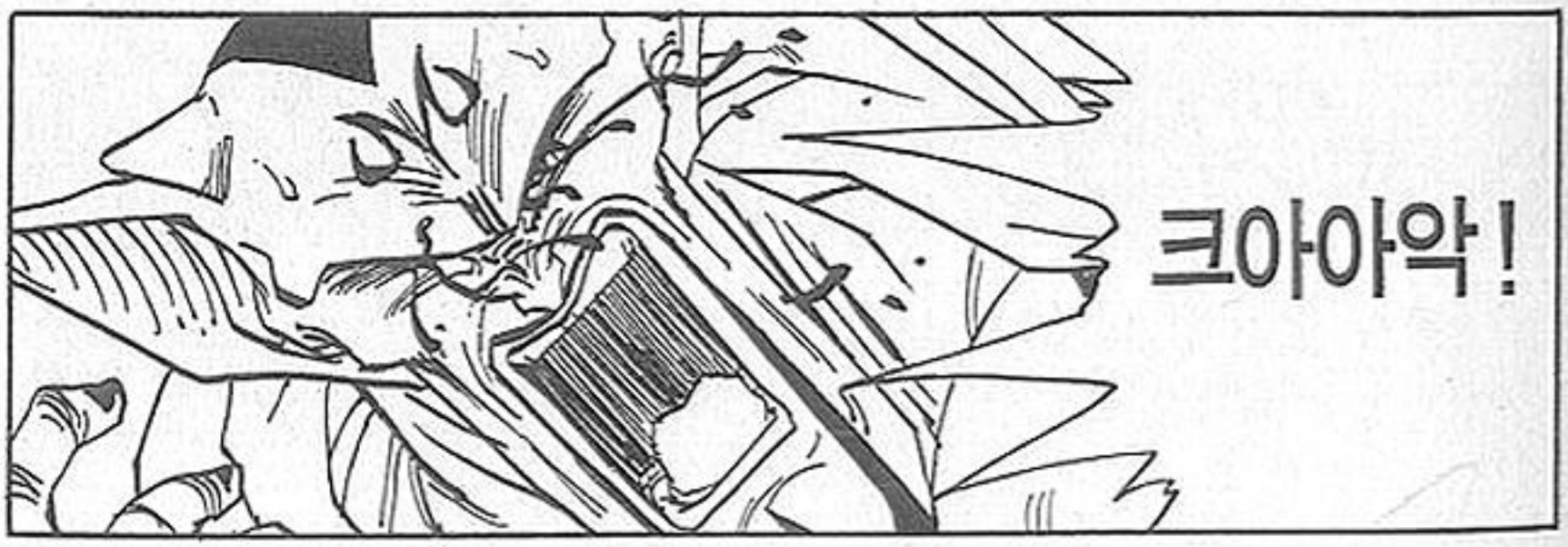

바로 저게
마인 부우의
모습입니다….
실패라니,
말도
안 돼요….


계왕신님!
아무래도
마인 부우의
부활은 실패한 것
같은데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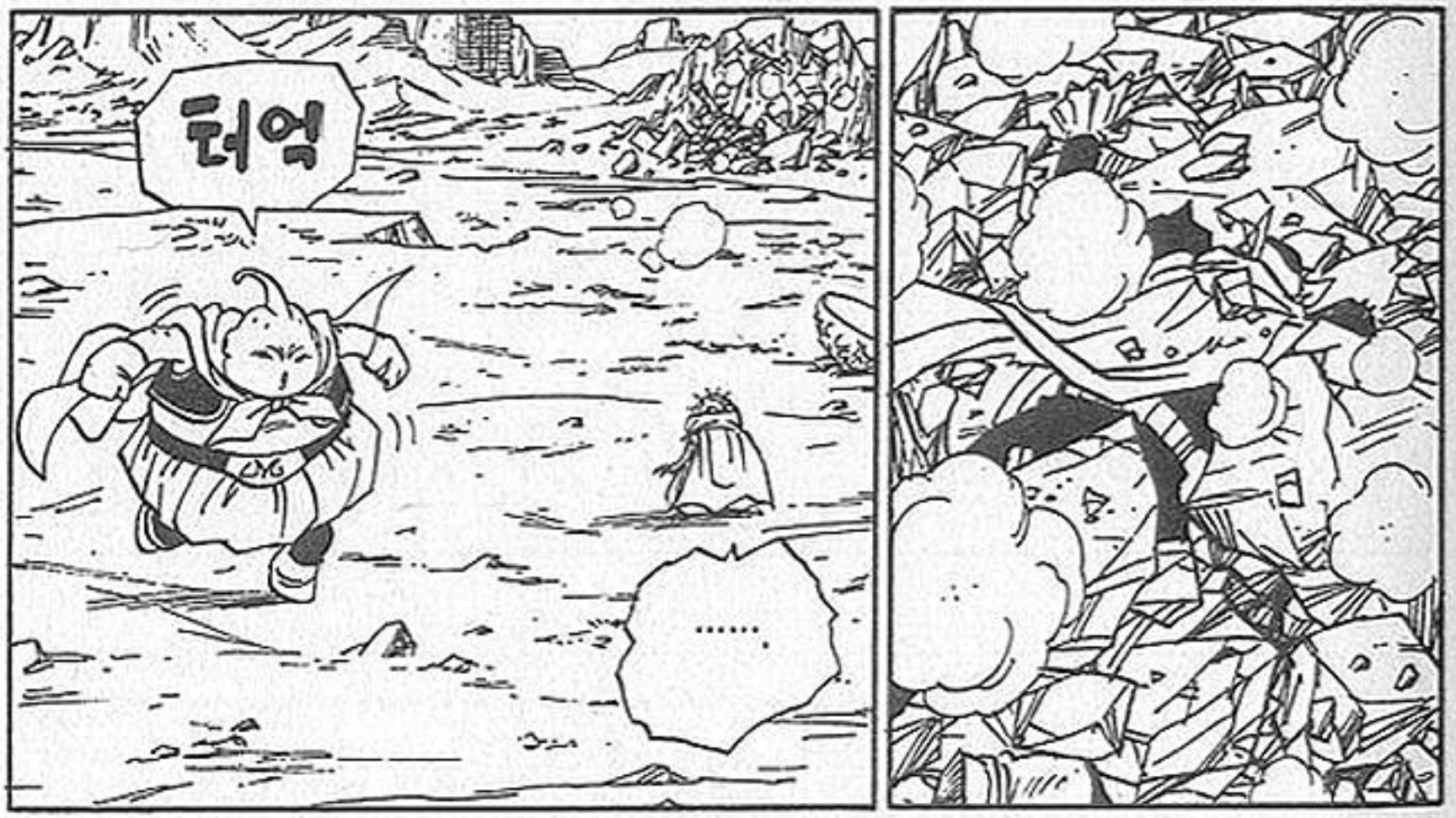





크아아악!






덜엉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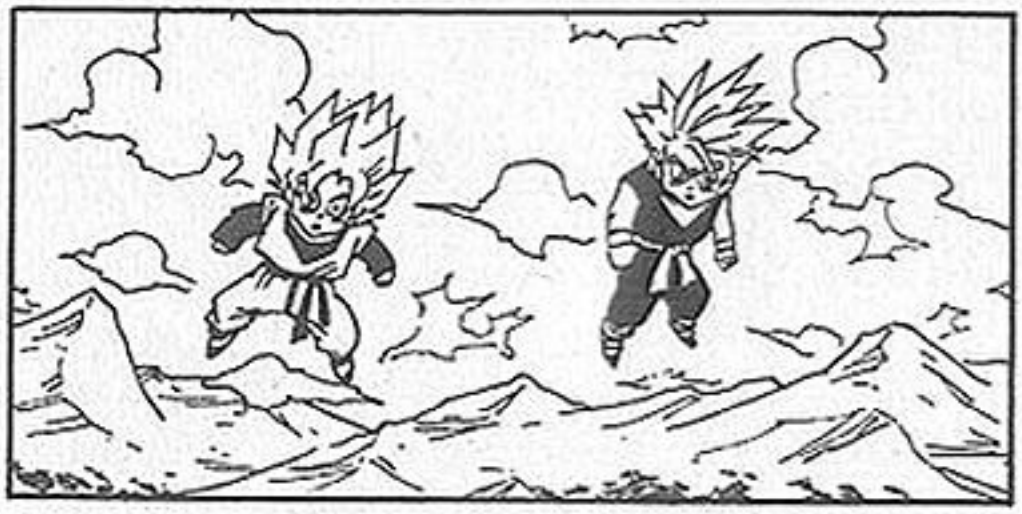

광장하다,
마인
부우…!!
저…, 정말
대단해…!!
짝 짝 짝
짝…
짝 짝 짝
짝…

야호—오

제462화

마인 부우의 위협









그래!

마인 부우가 있는 쪽이 더 재미 있을 거야!

이쪽의 기는 좀 불길한 느낌인데….

으~음. 글쎄….

어느 쪽으로 갈래, 트랭크스…?

이게 혹시 마인 부우 아닐까?

퍼유웅

퍼유웅

가자!!

지금 이러고 있을 때가 아냐…! 저 괴물을 부활시킨 건 바로 우리들이라구….

엄청난 기로 변화했다…. 역시 마인 부우란 놈은 보통 놈이 아니었어…!

……

……

모두가 위험해!
부르마도,
트랭크스도!!

난
우리 둘의
승부밖에
관심
없다구….

내… 내가
알 바
아니지….

누, 누가
어떻게 되든
상관없어!!

나…, 난 그런
나약함을 없애기
위해 바비디에게
내 영혼을 팔았단
말야!!

시…
시끄러!

제발
입 닥치
라구!

……

……

넌 완전히
혼을
팔아버린 게
아냐….

거짓말….

승부는 뒤로 미루지….
넌 아무래도 마인
부우가 맘에 걸려서
집중을 못하는 것
같구나….

알았다….

그래!

선두란 걸 내게도 줘! 우리 둘 다 체력이 상당히 떨어졌으니까.

베지터…!

모두가 힘을 합하면 분명 마인 부우도 이길 수 있을 거야!


아무!!




역시 너도
방심을 하면
어쩔 수 없는
놈이군….


하압!!


내가
청소한다!!
내가 부활시킨
마인
부우는….


너와의 승부는
그 다음이다….


그때까지
내가
살아
있다면….

내가 너의 새 주인이란 말야!

자, 자! 마인 부우, - 내 말을 잘 들어봐! 알았지!

네… 네가 날 거역하는 거야? 그건 불가능해. 난 아버지의 노트를 보아서 알고 있다고….

너를 구슬에 봉인하는 주문을…!

에이

!

또 다시 저 속에 들어가고 싶지는 않겠지? 응?

헤에

꾸벅 꾸벅…

후하하하! 좋았어! 진작 그랬어야지!

혹시 저 바비디를 해치우면 그렇게 함부로 날뛰진 못할 것 같은데…!

계왕신님…, 마인 부우는 아직 어린애 같은 성격인데요….

마인 부우는 모습이 저래도 정말 무서운 괴물입니다! 이제 곧 바비디도 녀석을 조종하기 어려워서 구슬에 봉인시켜야 할 때가 분명 곧 올 겁니다. 그때까지 꾹 참고 있을 수밖에 없어요….

아니…, 안 돼요! 바비디가 없어지면 마인 부우를 다시 구슬에 봉인할 수 없게 됩니다…!

이러고 싶지는 않았는데…. 바비디를 해치우고 마인 부우의 부활을 저지할 자신이 있었는데….

계… 계왕신인 내가 아무 것도 할 수 없다니, 정말 치욕스럽군요….

……

여…!?

그… 그 방법이란…!?

그 방법…, 그 방법이 있었는데….

이… 이럴 줄 알았다면…. 인간인 당신들이 이 정도까지 나의 힘을 훨신 초월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면….

무슨 소립니까? 도망치는 것 쯤은…!

우리 둘 다 살아 돌아갈 수 없겠죠….

아니…, 벌써 늦었어요…. 우린 이미 마인 부우로부터 도망칠 수 없어요….

자, 마인 부우! 최초의 명령이다! 저 두 놈을 해치워라!!

꾸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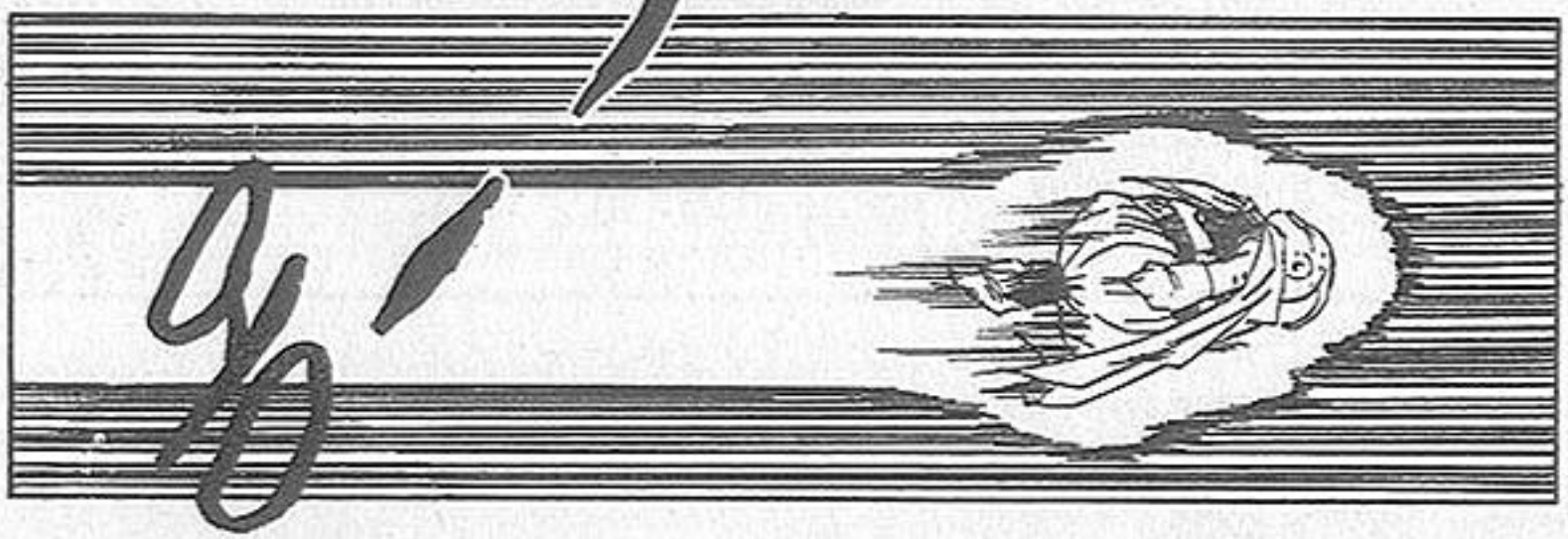
으!!

계왕신님!!

40


쾌유용
걱정 마요!!
스피드엔 자신이 있으니까!
부우! 뭐, 뭐 하는 거야?
녀석들이 도망 치잡아!
터억








야호
!!
……!!
이…
이런…!!
죽어뿌려!


쾅
컥!!
쾅
얏—!!
히죽..


크헉…!!
퍼팍
퍼팡
터영
우하하!
잘한다, 잘해!!
마인 부우, 멋쟁이!!
으… 으윽!!


1
1467

제463화

압도적인 이상한 파워











쿠라 쿨라 ♪
쟈쟈쟈 ― 쟈 ♫


ピキ


11—%


!!

빙글

커헉!!

하하!
꼴좋구나!
맛이
어떠냐,
계왕신?

아으…
으어억…!

이런 데서
낮잠자는 거니?
세계 제일이라던
그 허풍은 다 어디
간 거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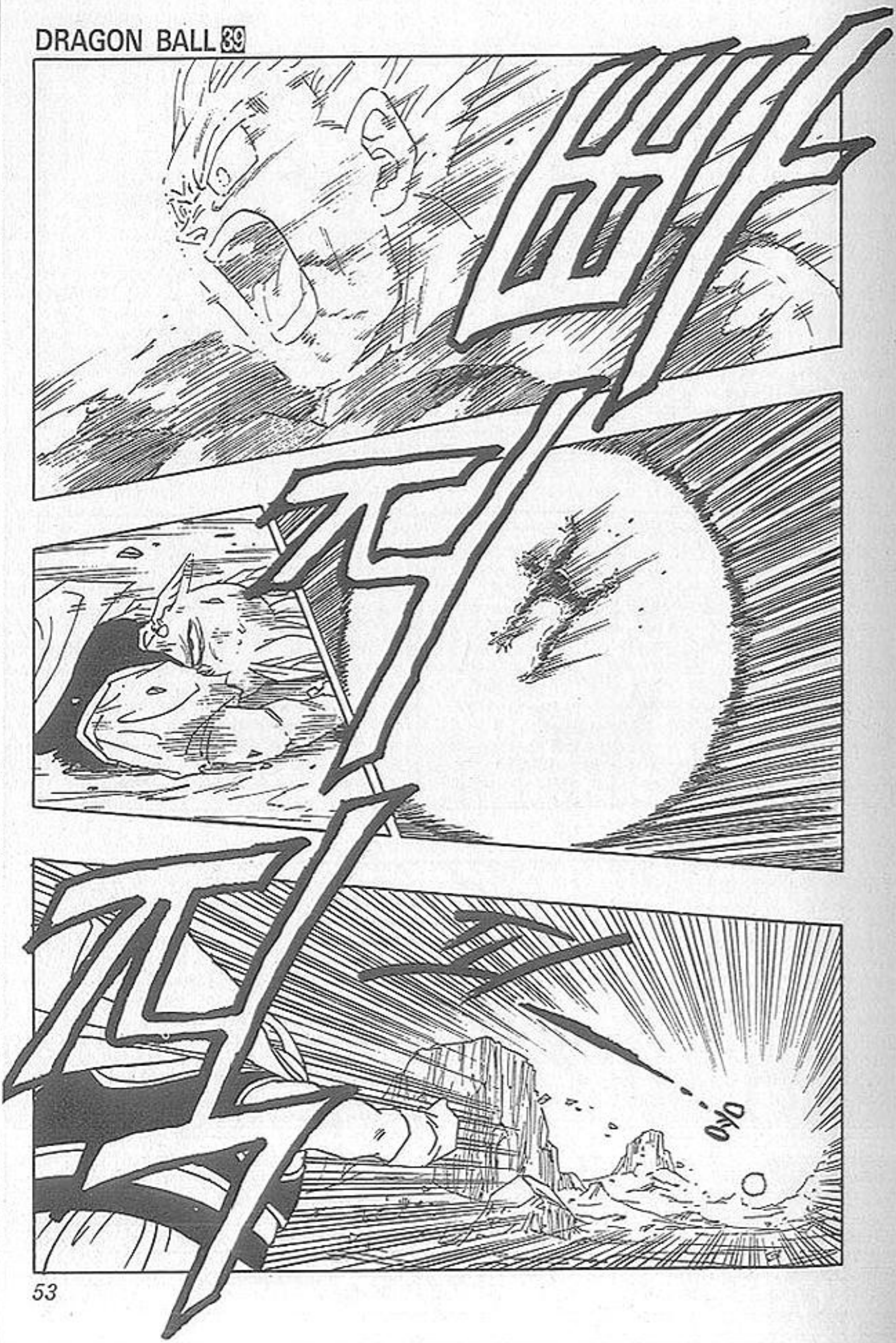
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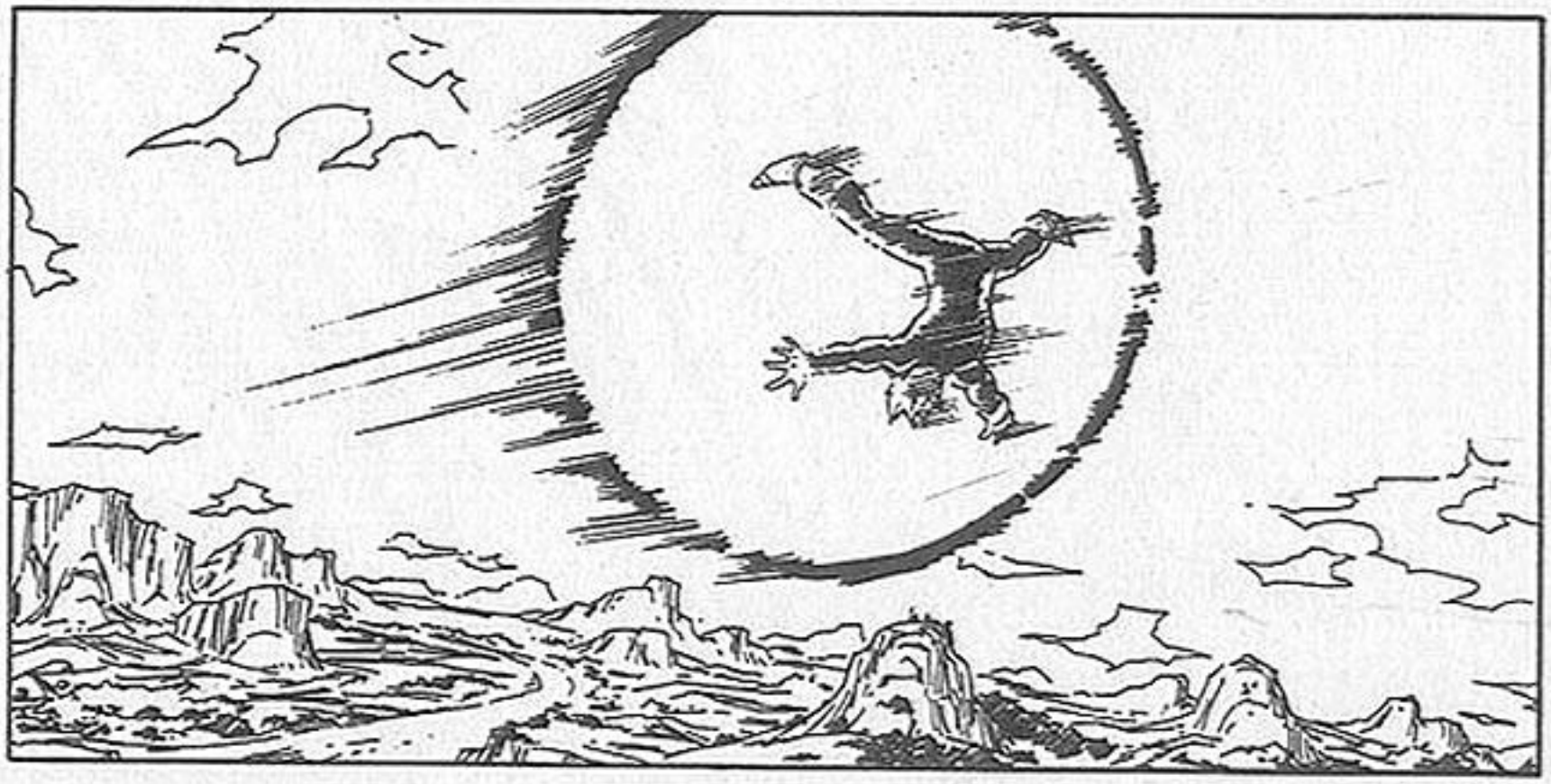
크흐흐…!
잘 했다.

좋아!
마지막은
내가
끝내
주마~!


!!
후다다닥
제, 제길! 좋은 기회였는데…!
정말 엄청난 놈이네…! 전혀 반응이 없잖아….


훼방꾼!
꺼져 버려!!
…!!
에잇!!
꽈


0%0




우하하!!
멀리멀리
사라져라!!
우주
저 곳으로
꺼져버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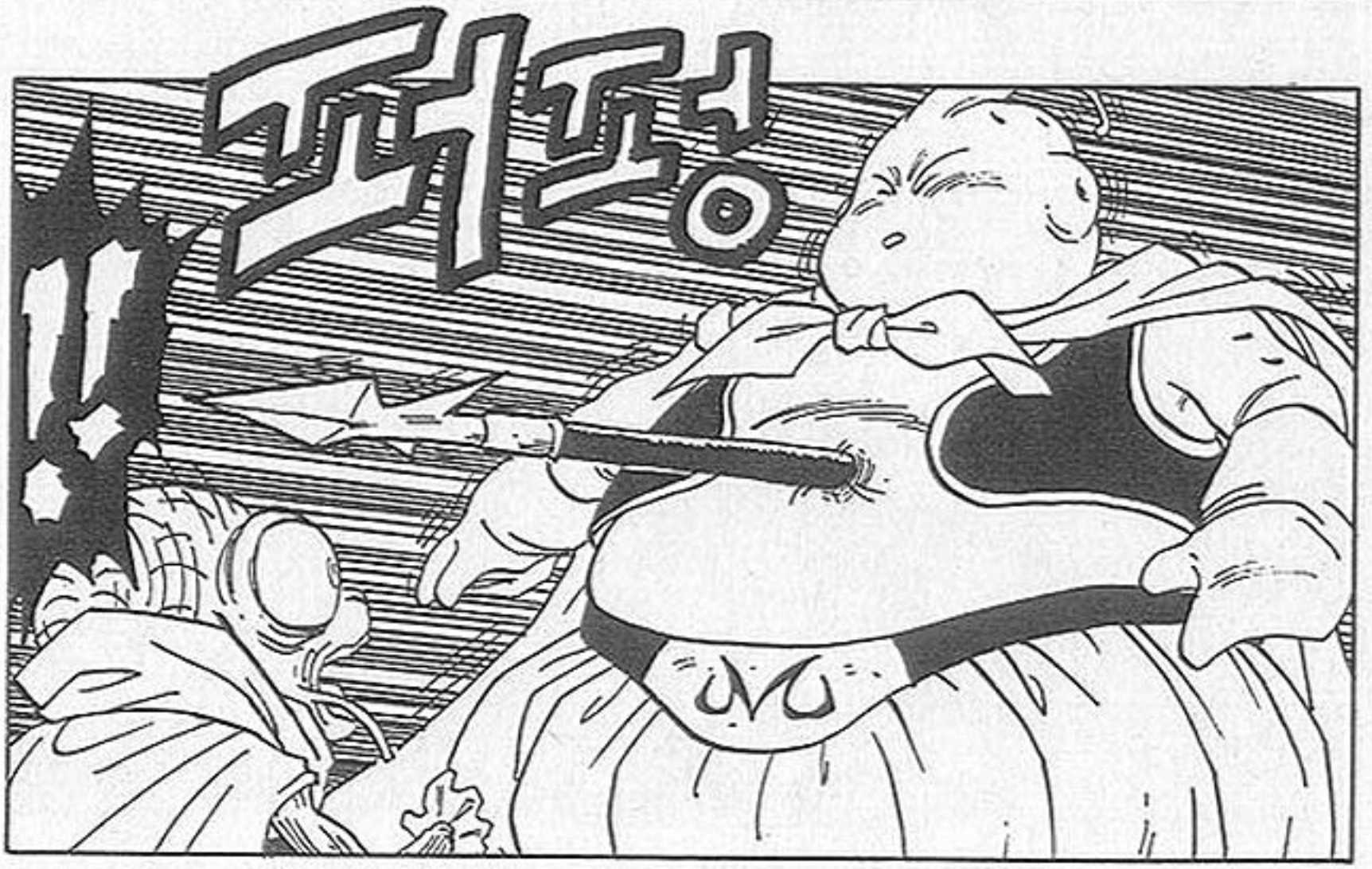

크윽…!




제… 제발 부탁이다….
사… 살아 있어다오….
얌마! 너, 지금 무슨 짓을 한 거야?
이제 됐다. 야, 마인 부우!
네가 계왕신의 숨통을 끊어버려라!


응?


이 녀석 먹을래!
배고파.


퍽퍽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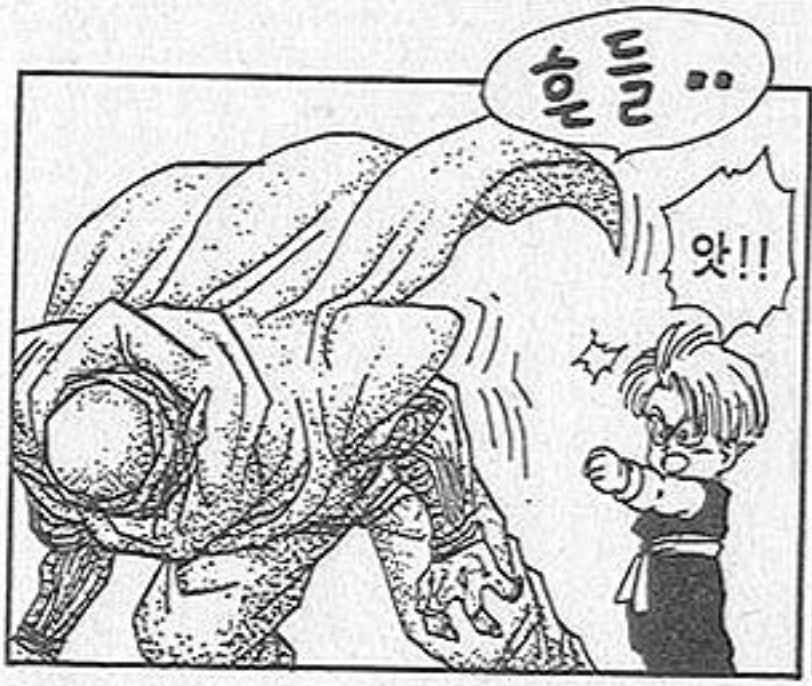

헉
헉!


뭐야!?


피——웅
오천아! 저거 아니야?
맞다!
데, 데브라? 너 아직 살아 있었냐!
그, 그런데 이게 무슨 짓이야!!
오천! 초사이어인의 모습을 감춰. 기 때문에 들키면 안 되니까.
터억
탁
응!
어라? 모르는 사람들만 있네.
아! 그렇지도 않아. 저걸 봐. 저기 쓰러져있는 사람은 무술대회에서 본 이상한 사람이야….
그렇구나…! 저 사람 심하게 당한 것 같은데….
저기, 트랭크스! 누가 마인일까? 가볼래…?
아니!?
트랭크스! 저걸 봐, 저거!
뭐?




살금살금 살금


흐들..
앗!!


이상해.
인형인데~! 왜 피를로 아저씨의 등인형이 이런 데 있는 걸까…?
저건 크리링 아저씨 인형이다!


사삭


이런!
콰과광
큰일났다!!


이런~!
들키진 않은 것 같네….
휴우~!

어…, 언젠가 반드시 당신에게 큰 재앙을 가져올 날이 올 겁니다….

바비디 님! 그 녀석…, 마인 부우는 결코 당신의 충실한 부하가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스윽

지… 지금 처치해버려야 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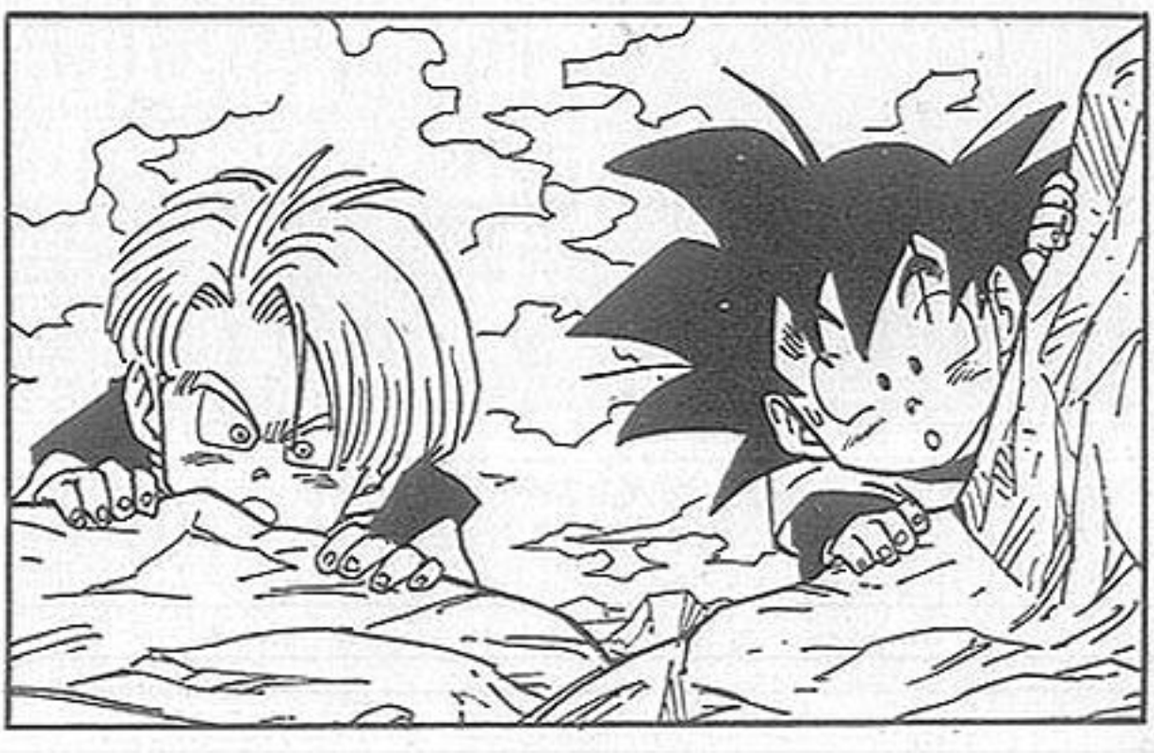
시… 시끄러! 감히 내 사랑 부우를 모함하다니…!

스---

달그락..

먹어 버린다!

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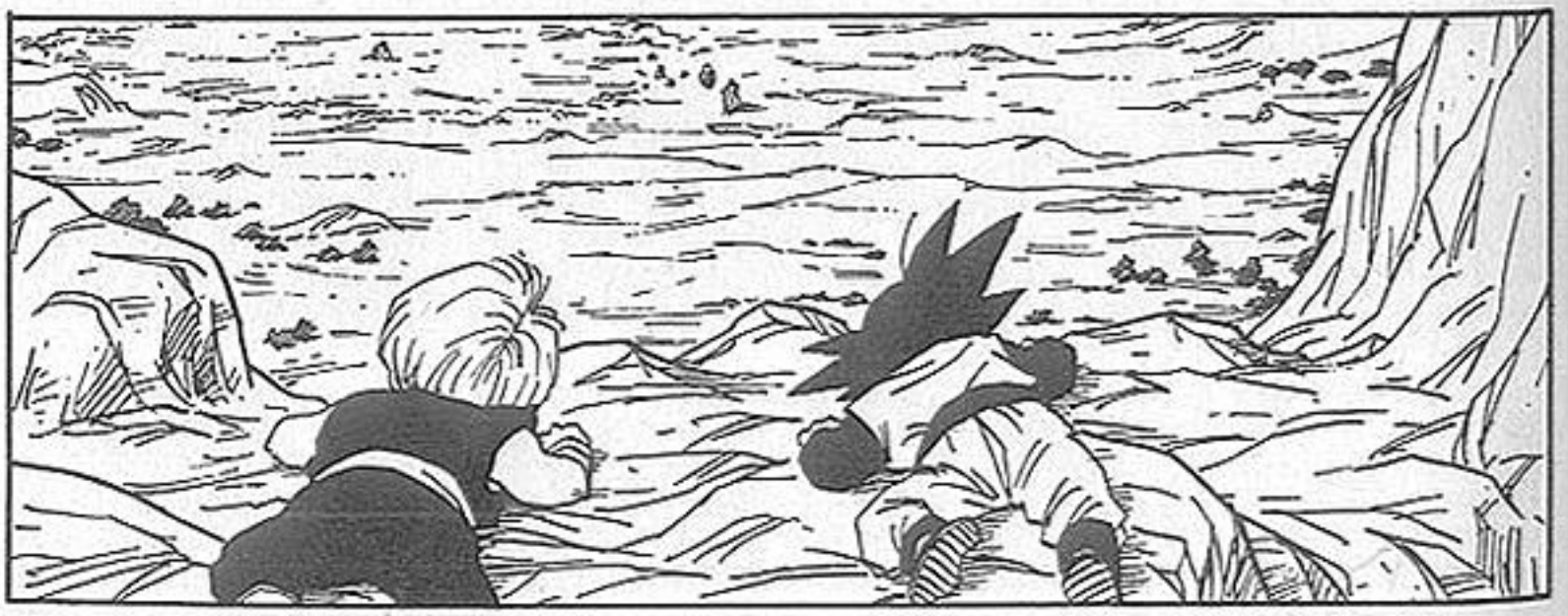
제464화

베지터, 최후의 결사전










먹는다!
먹을 거야!
맛있겠다!!
이 자식 ~!!
휘익
과자가 돼라!
크아 아악…!!


퍼엉
터억
아——..앙
꿀꺽
우물 우물 우적 우적 우물 우물
꿀꺽
우물 우물
앗!!
……
대… 대단하구나, 마인 부우…. 하하…!
꿀꺽
윽…!
앗…!



아니, 크리링 아저씨!
어!?
너… 너희들, 어떻게 된 거니?
어떻게 여길….
어라!?
방금 전까진 돌인형 이었는데!
맞아…! 뿔이 난…, 그러니까 데브라란 녀석의 침을 맞고서 몸이 돌로….
혹시 좀 전에 먹혀버린 녀석 인가…?
그래, 맞아! 녀석이 죽었기 때문에 크리링 아저씨가 원래대로 돌아온 거라구!
아!!
휘앙…
왜… 왜 그래…?
트… 트랭크스가 피콜로 아저씨의 돌인형을 넘어뜨려서 깨버렸어….
뭐!?
으… 으윽…!
트… 트랭크스….
아…, 안 보는 게 좋을 거야….
제… 제발 부탁이다. 다른 사람에겐 비밀로….


윽!!


뭐가 비밀이야?
앗!!


사삭


이… 이 엄청난 기는…!
그럼 저… 저 녀석이…!?
크윽…! 이… 이게 뭐지…?


저…, 피콜로 아저씨! 어떻게 원래대로 돌아온 거야…?
……
난 두뇌만 무사하면 재생할 수 있어….


마… 마인 부우가!!
서…, 설마!

그럴 거야….

마인 부우란 놈인가!?

마….

몰라. 우리도 방금 전에 도착했어.

말해봐. 대체 뭐가 어떻게 된 거지? 오공들은 어디에….

이… 이 봐…. 저 이상하게 생긴 놈은 뭐니…!?

이 계왕신도 먹어버려!!

그렇지. 마인 부우, 이 녀석도…!

이… 이 무서운 기는 저 녀석의 기란 말이야…?

이… 이거 큰일났네….

흥분하지 말라구!

아, 안 돼! 참아, 피콜로!

제길…!

계왕신님 인가…!?

저… 저건…!!

응!

응!

큭…!!

상대를 과자로 만들어 먹어버렸어!

저 녀석은 창에 맞아도 끄떡 없고….

솔직히 말해 아무리 네가 덤벼봤자 상대할 수 있는 놈이 아냐…, 절대로….

참고 있어…. 네 기분은 알겠지만 지금은 참아야 해…!

우…!

으윽…!

넌 뭘로 만들어 먹어줄까…? 초콜릿이 좋을까, 아이스크림이 좋을까…? 아님 젤리인가…?

에헤! 에헤!

휙

휙

휙

뭐, 뭐야!?
대체!?

!!

나의
우주선이… !!

나…
나의!

이게 어찌된 일이야…!?

이… 이런 제길…!

안녕!

퍽

!!

우주선을 파괴하란 명령은 안 맸잖아!!

베, 베지터? 너, 이게 무슨 짓이야!!

아빠다!!

너, 이 자식! 잘도 오반을 죽였겠다!

저 못생기고 멍청하게 생긴 찐빵이 마인 부우냐…?

오… 오반….

뭐, 뭐라고!? 무슨 얘기야, 아빠 말은?

!!

네가 보기 흉칼 정도로 이상하게 생긴 추남이래.

무슨 얘길 하는 거지…?

으읍!!

저… 저 괴물 녀석이 기를 더욱 상승 시켰어.

저… 저 박…!

저…, 정말 대단한 놈인데….

잘한다! 해치워버려! 저놈은 내 말도 잘 안 듣고, 이미 쓸모도 없어!

나 열 받았다! 죽여버릴 테야!!

네놈들과 함께 길동무를 해야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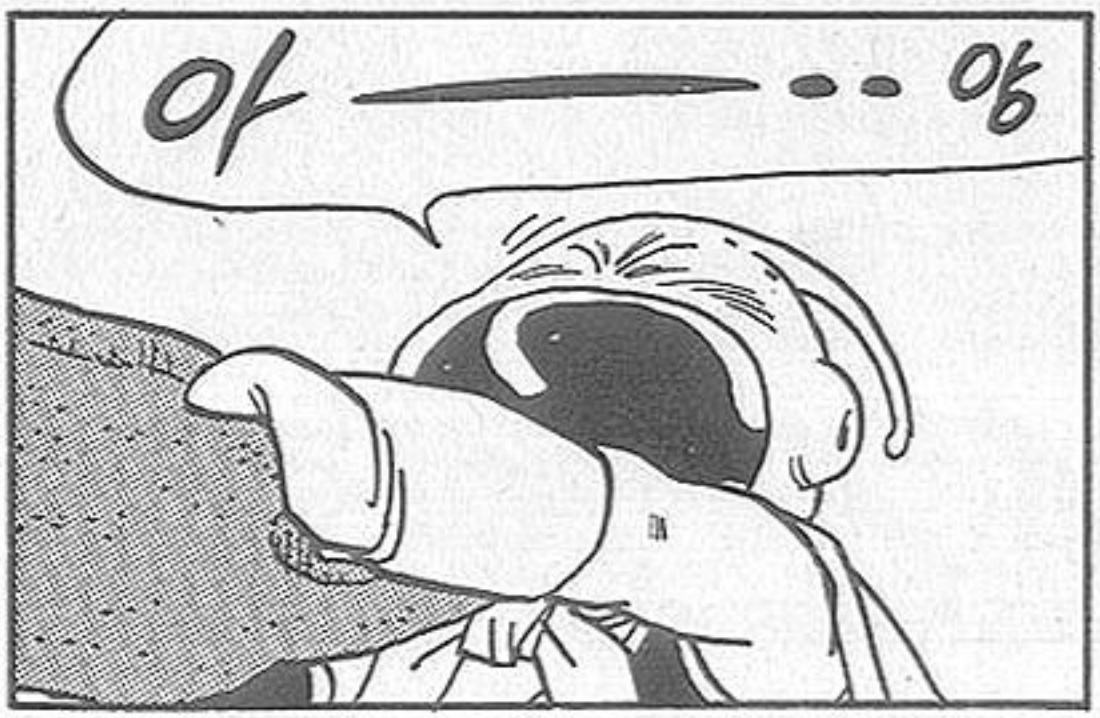
나 혼자만 지옥에 갈 순 없지….

베… 베지터는 죽음을 각오했어…!

……!

이야앗…!!




아——..아

제465화 마인 부우의 분노



뭐 하고 있는 거니, 마인 무우…!?

왜… 왜 그래?

따아아앗

엄청난 파워야…. 셀과 싸울 때의 오반보다 더 강한 것 같아….

베지터도 이미 초사이어인의 단계를 초월하고 있다….

아빠, 파이팅!

하하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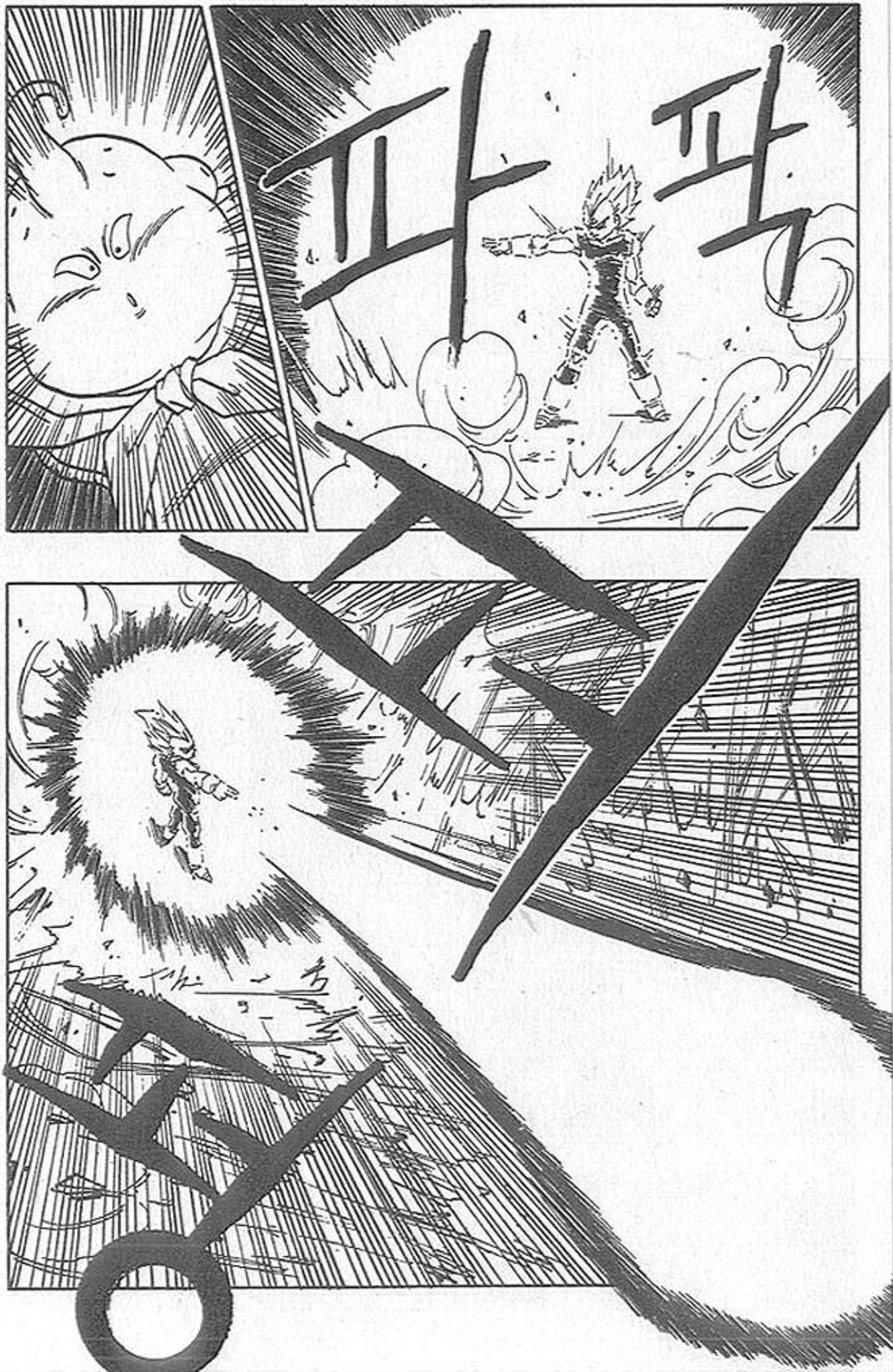
대… 대단한데! 베지터가 굉장히 강해졌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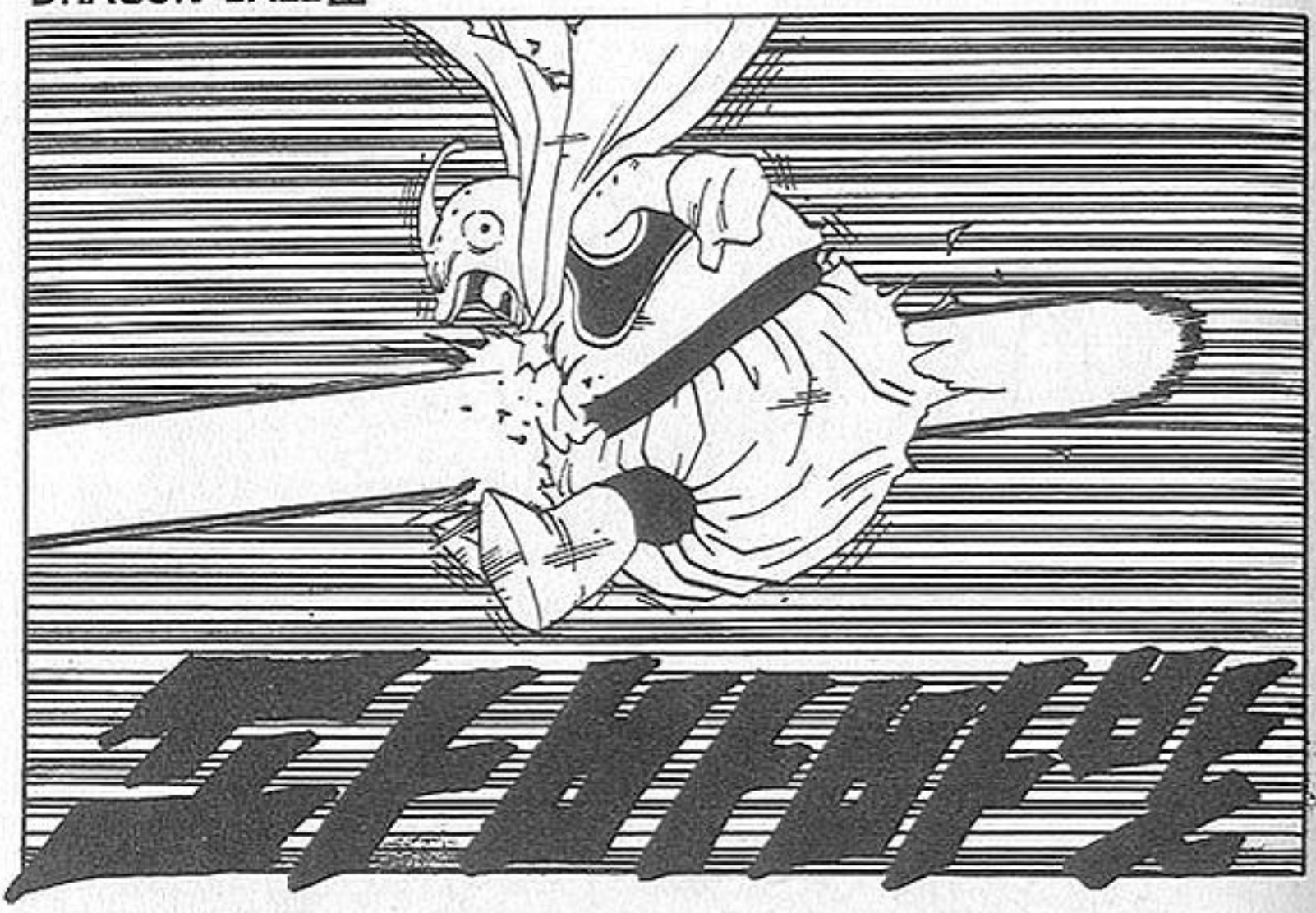
그… 그러나 그 오반조차 마인 부우에게 살해당했다…. 어떻게 저런 대단한 놈이…!

퍼엉

과장탕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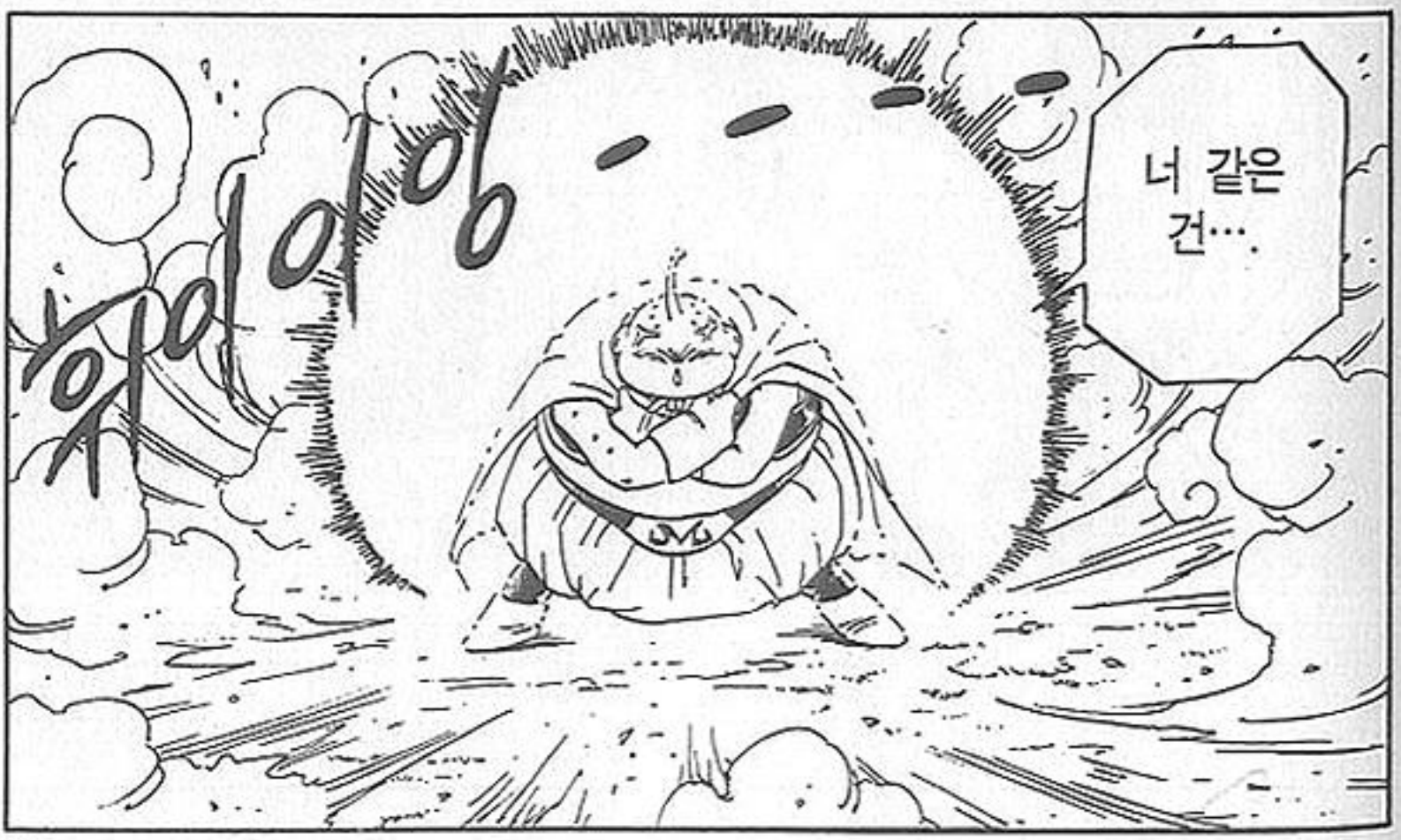

헉!!
털썩


해냈다!!
써익…
!!
벌떡
……


아픈데.
약간….
헤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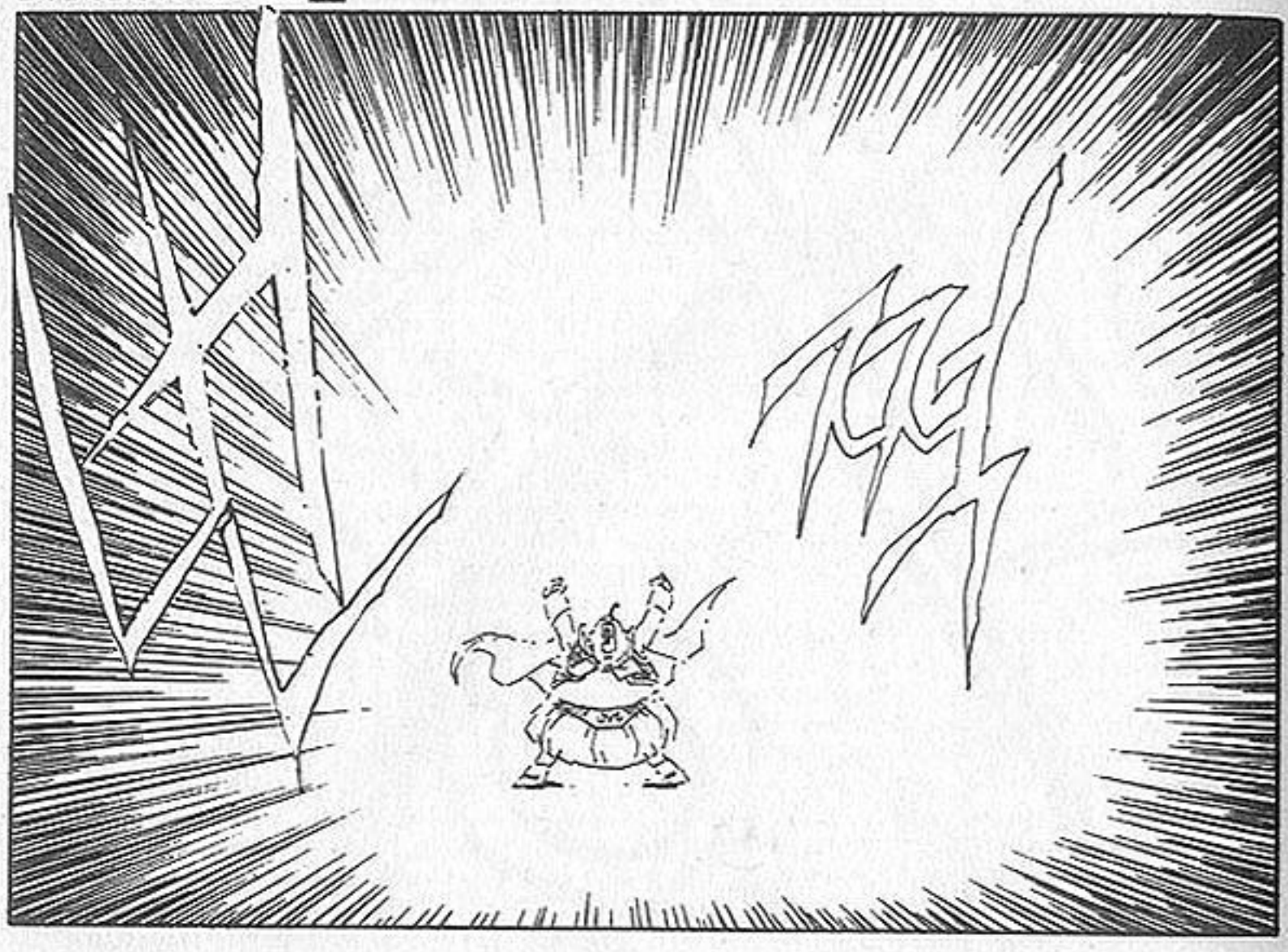

좋았어,
마인 부우!
박살을
내버려라!!
우히히히!


귀신 같은
놈이군…!!


너 같은
건….



이런…!
큰일 났다…!
야….
이 봐…! 무, 무슨 짓을….
너무 싫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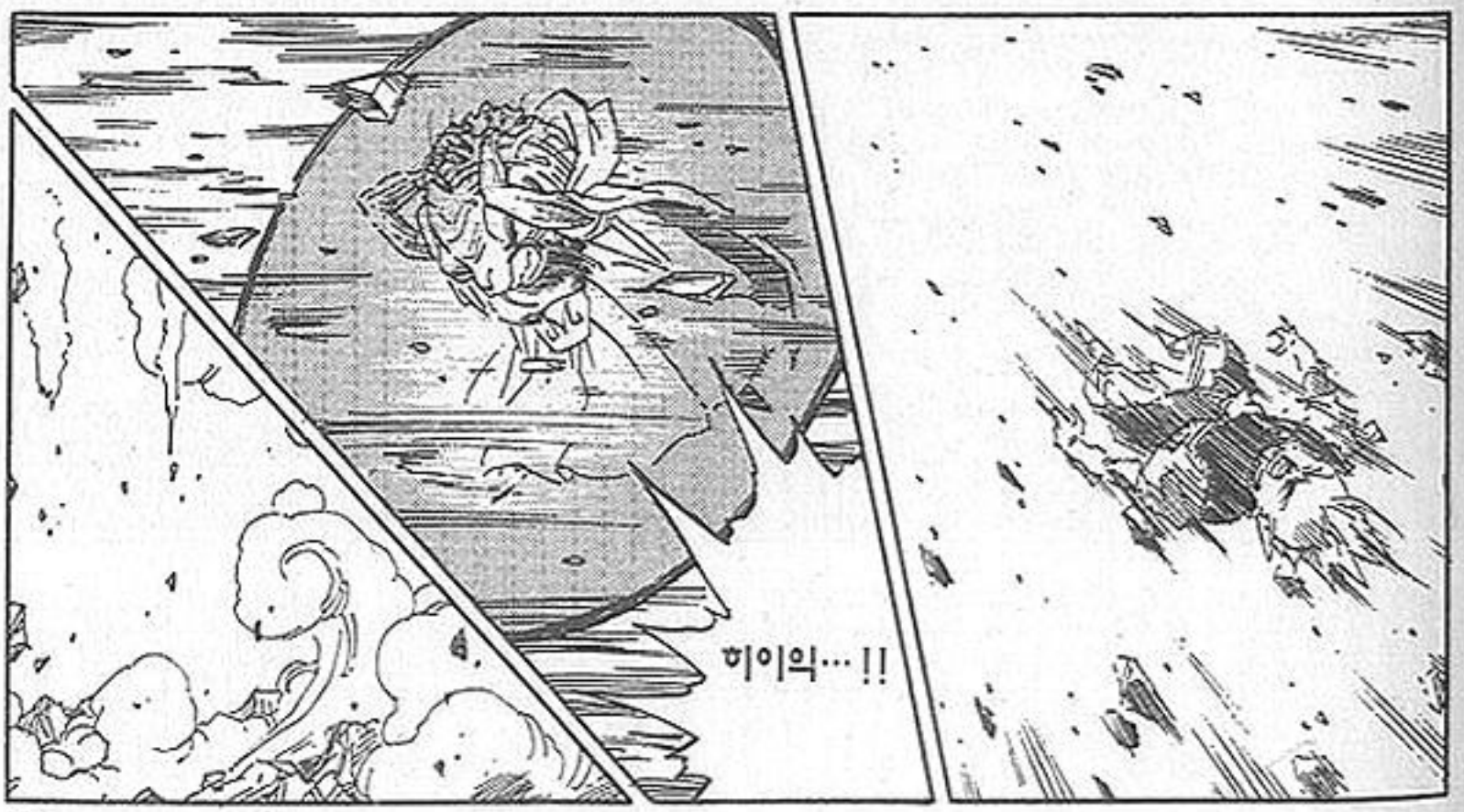

안 돼!
도망쳐!!
크
!!
보호막!!
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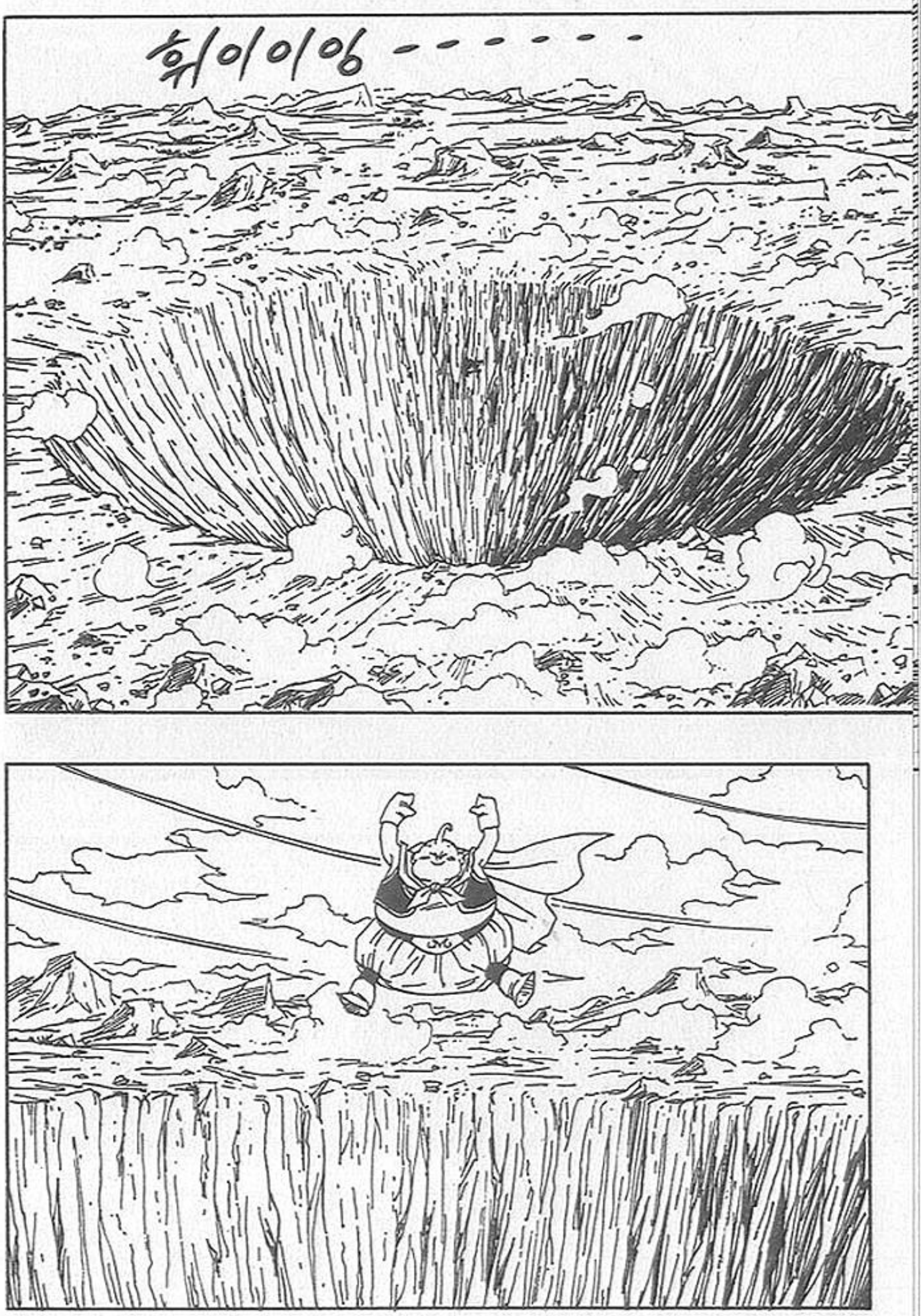
으악!!

으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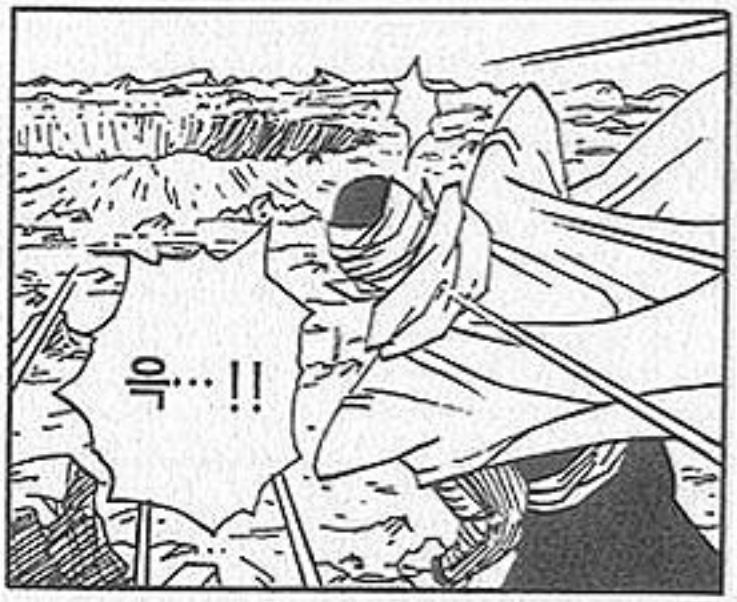
컥…!!




!! …뉘이야




크…, 큰일날 뻔 했네….
휴우….


으… !!


모두 괜찮아?


으… 으아… !
끼아… !!


계… 계왕신님 !
아빠… !


씨 이 ...

제466화 바비디의 최후!!



에에에…. 끈질긴 놈이군. 아직 살아있다니.

내 말을 잘 따랐으면 중온 부하가 됐을 텐데…. 아깝다~!

베지터의 공격도 전혀 먹히지 않아…!

오반은 죽고…. 진정한 전 세계의 왕인 계왕신님도 사라져버렸다…. 아… 이 세상의 운명은 과연 어떻게 될 것인지….

아빠는…, 아빠는 지지 않아! 마, 마인 부우 따위한테….

…….


그럼 안녕!
넌 이제 끝이야!
처억
어떡하면 이 괴물을 이길 수 있을까…?
어… 어떡하지…?
!?
쭈욱~~…
뚜욱
불끈

휘이~~익

아니…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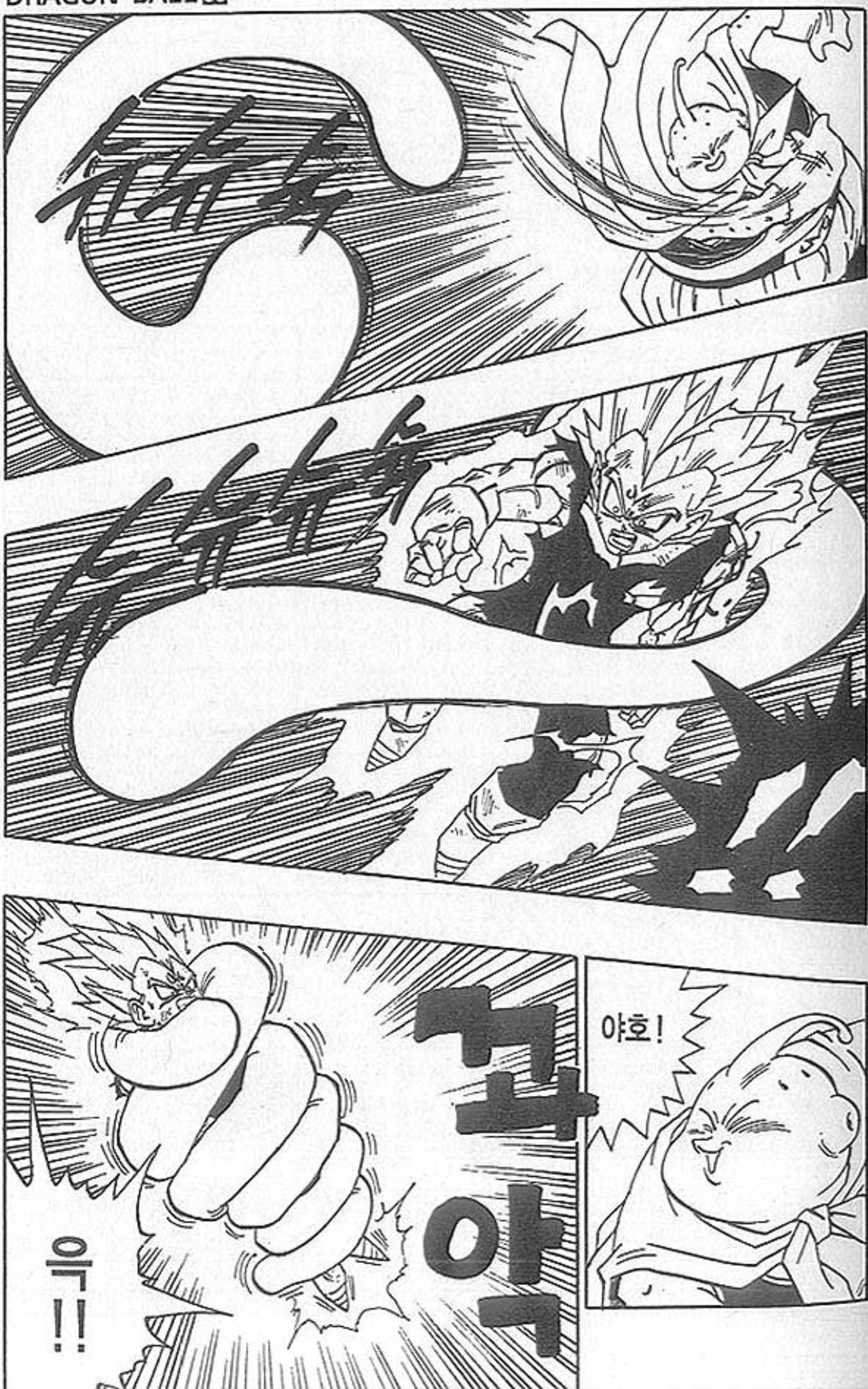
뭘 할 작정이지… ?

기분 나쁜 놈이야….

허허 허….

팟

!!


야호!
꽈악
윽!!

꽈다당

후후후~!♬

앗!!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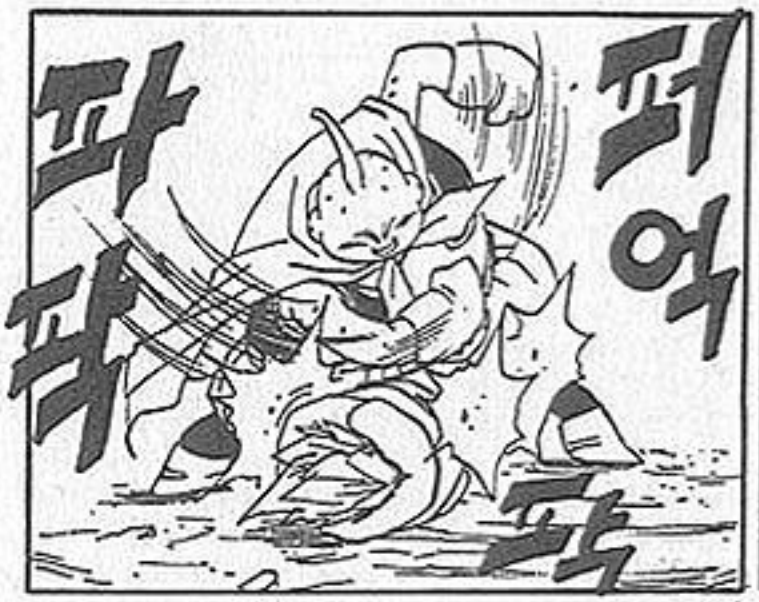
이…
이런
제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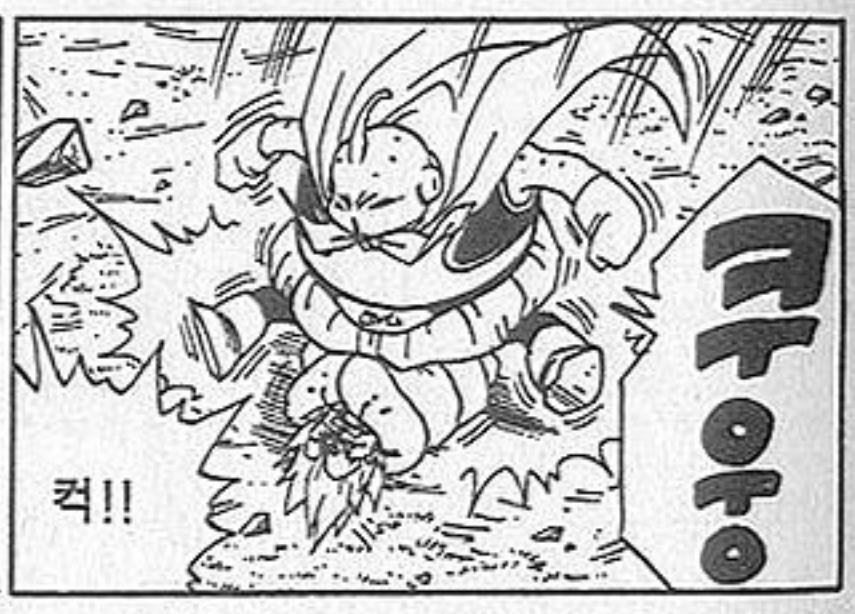
꽈앙

에잇!!


크헉!!


이히히
이히히
이히히


파
파
퍼
어
퍽


쿠
아
아
컥!!


으윽!!


아니야
….
형은 절대
죽지
않아…!


위…
위험해!!
오… 오공과
오반은 대체
어떻게
된 거지…!?
버…, 벌써
죽었나!?


트랭크스! 차…, 참아!
네가 덤벼봤자
아무 소용없어!
헛된 죽음을 당할
뿐이야! 오히려
베지터를 괴롭히는
일이 된다구!!

실어—!!

안 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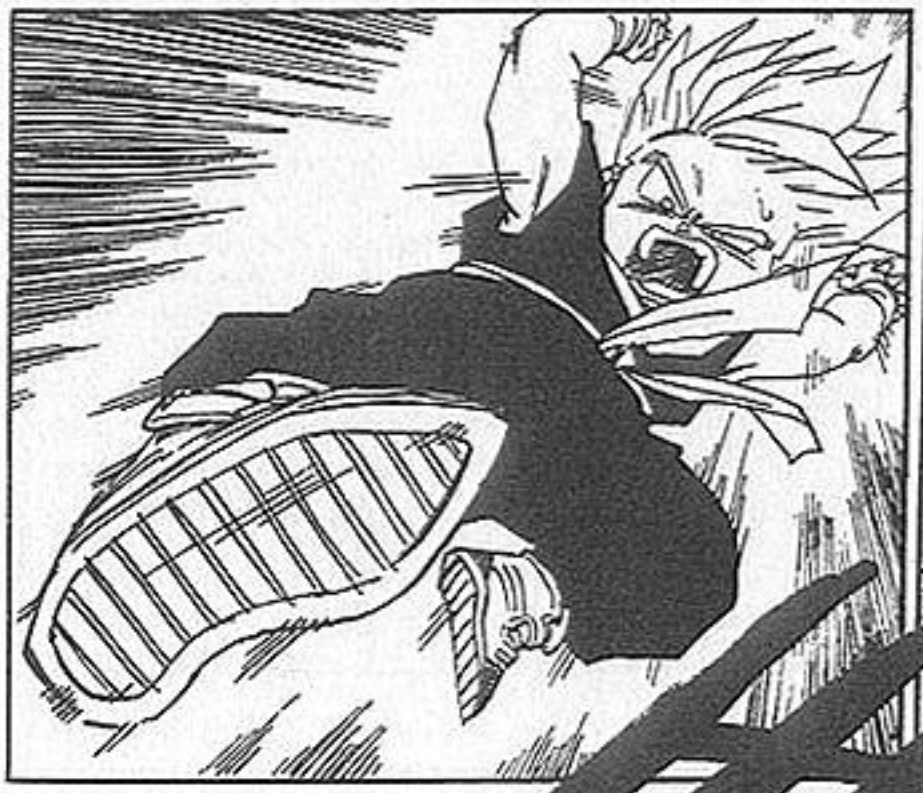
트랭크스!!

나도 간다!!

오천!!

이… 이런 제길…!!


앗!?
뭐…
뭐야!?




저건… ?
대체
뭐지… !?




쿠콰콰콰쾅
에잇!!
데굴
데굴…
아빠!!
허억…!!
아저씨 괜찮아?
아빠, 정신 차려!
저 꼬마놈들은 뭐야…?
아직 남아있는 놈들이 있었나…?
흥! 저런 놈들이야 아무리 많아 봤자 소용없어.
내 부하 마인 부우는 무적이다! 모두 죽여 버려라!
크하하하!

너…
너는…!?

마인 부우라면
몰라도,
너 정도
쯤이야
한주먹거리도
안 되지…!

어…!?

마인 부우도
용서할 수 없지만
제일 나쁜 놈은
바로 너다,
바비디…!

그… 그렇게 되면
마인 부우는 전 세계를
철저하게 파괴할
것이다! 그래도
좋으냐…?

후…후후후…!
멍청한 놈…!
날 죽이면 마인 부우는
두 번 다시 봉인할 수
없게 된다…!

부… 부우!
마인 부우-!
뭐 하고 있어!
빨리 이놈을…,
이놈을 죽여-!

……

그건 네가 죽지
않아도 마찬가지
아냐…?
내 말이 맞지…?

죽어라!!


이…
이럴 수가….
세… 세상의
왕이 될…
내… 내가….
이…
이 따위
녀석
에게….
……
털썩











다음은, 제467화 안녕, 자랑스런 전사여

마인 부우는 나 혼자서 상대한다….

너희들은 빨리 여기서 멀리 떨어져 있어….

무… 무슨 얘기야, 아빠…?

엄마를 잘 보살피라니…?

우리 셋이서 힘을 합치면 이길 수 있어!!

시, 싫어! 우리도 싸울 거야! 아빠 혼자선 무리라구!

맞아!

그렇지 않아! 우린 강하다구!

예?

저놈에겐 옛명이 덤벼도 소용없다….

평범한 전투 방법으론 말이지….

트랭크스…, 난 아기 때부터 널 한 번도 안아준 적이 없었구나….

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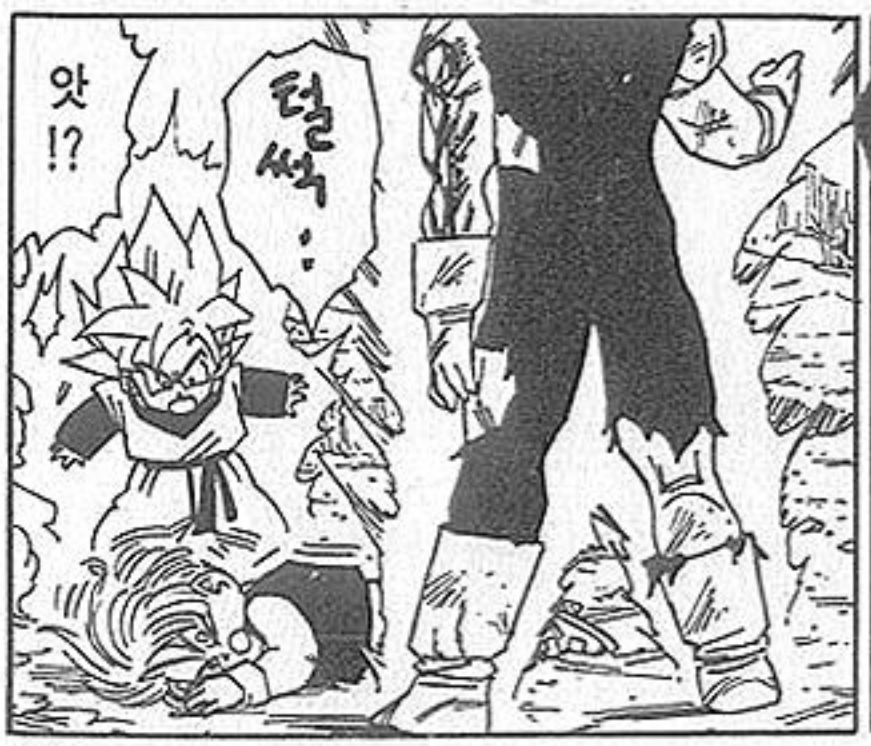

……
이러지 마!
항피
하잖아!


왜…
왜 이래,
아빠!?


내 품에
안겨라….
…!?


응?


트랭크스!
잘 지내….


앗
!?
텔레
포트!





빠억
아, 아저씨!
왜 이런…!?
터억
……!!
쿵…
흥흥흥! 흥-!♬
흥흥흥! 흥-!♬


저놈인가?
좀 전에 날 친 놈 누구야~?


그래…, 알았어….
부탁이다, 피콜로….
둘을 데리고 가능한 한 멀리 도망쳐라. 서둘러….


넌…, 죽기를 각오했구나….



내가 죽으면 저세상이란 곳에서 카카로트와 만날 수 있을까?

한 가지만 가르쳐 다오….

……

……

이럴 땐 거짓말로 위로해 봤자 소용이 없으니까 솔직히 말해주마….

그건 무리야…. 넌 죄없는 사람들을 너무 많이 죽였거든…. 죽으면 육체는 사라지고, 혼은 오공과는 다른 세계로 가게 된다….

그곳에서 혼은 깨끗이 씻겨지고, 기억은 모두 사라지며, 새로운 생명체로 변화될 거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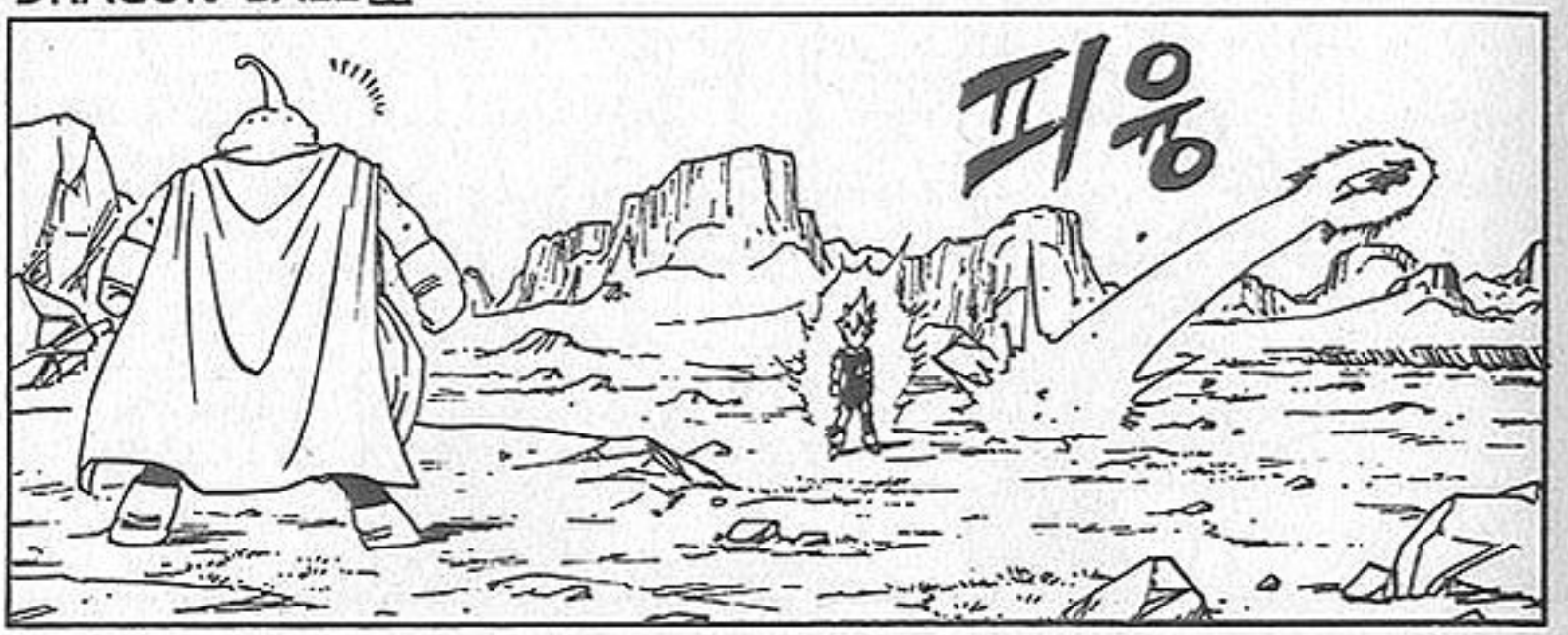
그렇군….

아쉬운데….

이제 됐다, 떠나라….

빨리 가….

그래….


피융


마인
부우!!
잠깐!!


이봐!!
어딜
도망쳐!!


신경쓰지 말고
우선 나랑
상대하자!
덤벼라,
이 추잡하게 생긴
찐빵 같은 놈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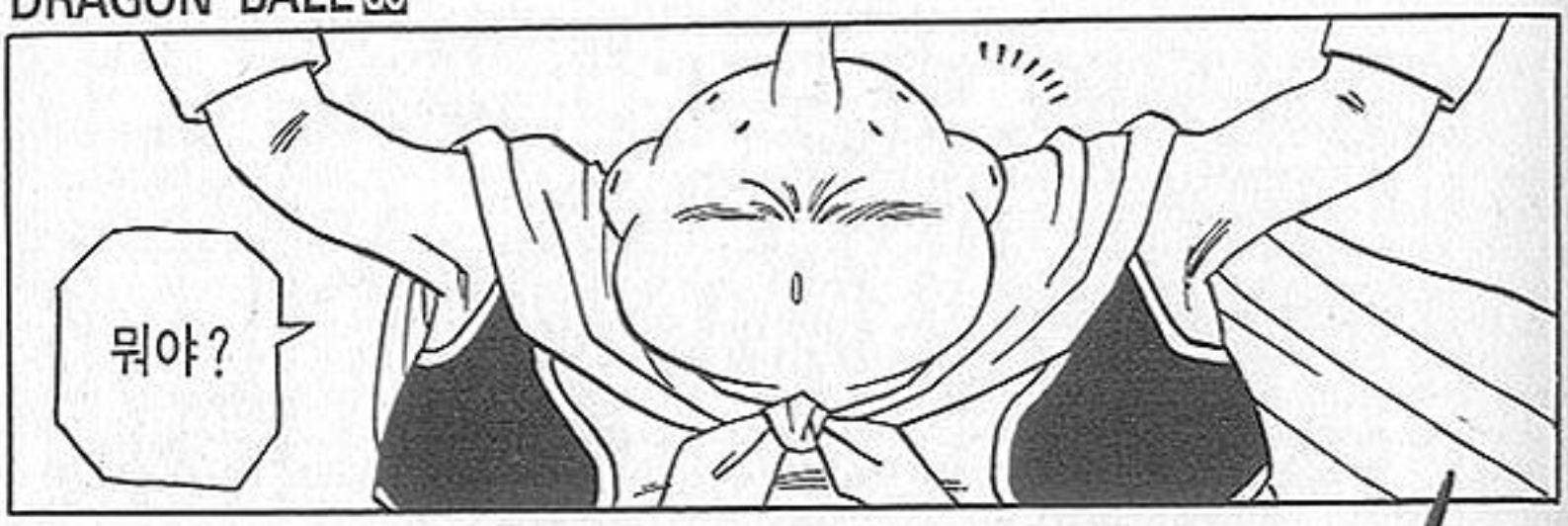

겁정이 주제에…!!
슈우우우
또 내 욕을 하다니….


피융 피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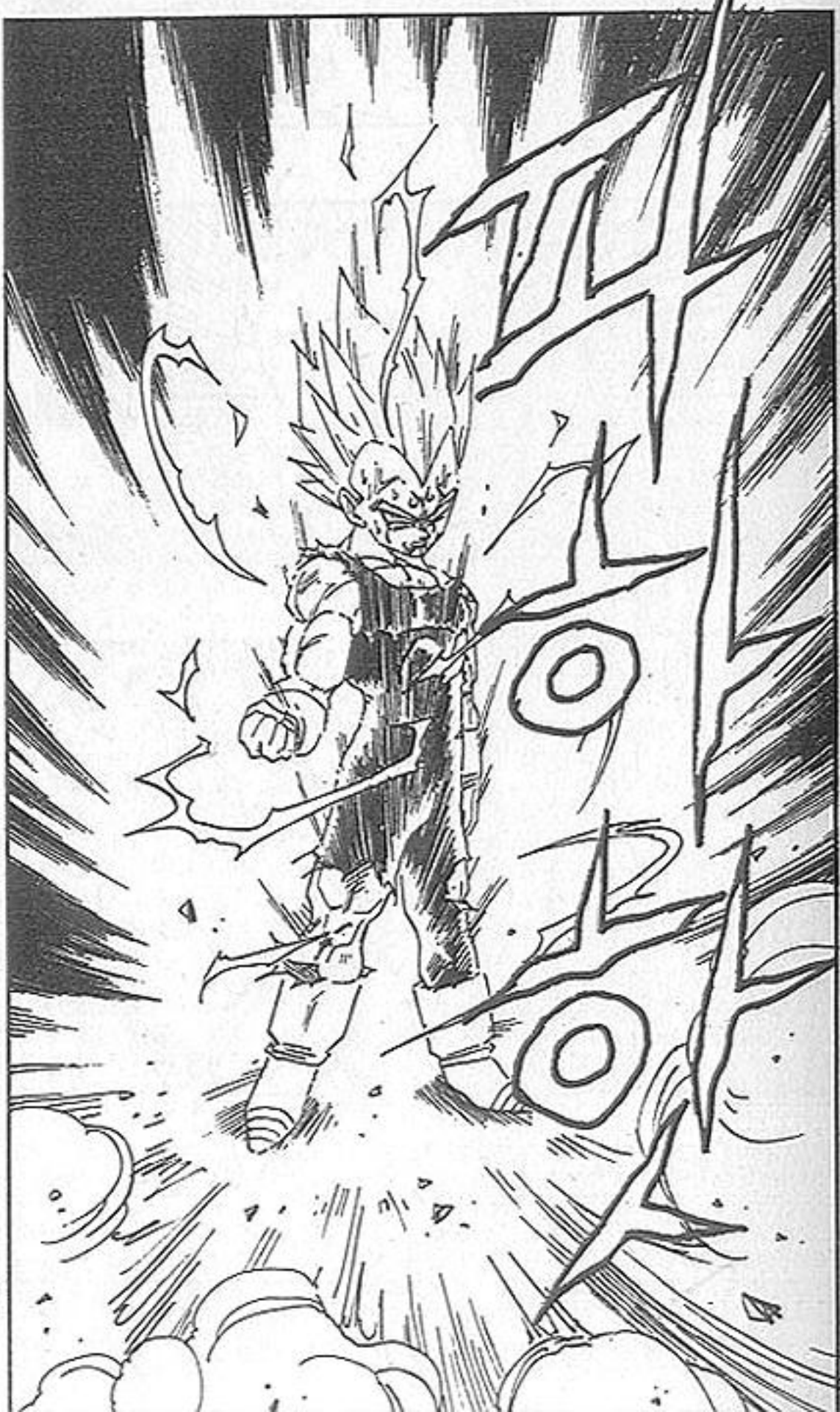

빨리 여길 떠나라구!!
서둘러, 크리링!
그, 그래…!!


널 해치울 방법을 알아냈지….
이제야 겨우….


빨리 죽여주마~!


뭐야?


이, 이런!
베지터의 속셈은
뭐지!?
죽으면 어쩌려고
저러는 거야?




저 녀석은…, 처음으로
자기 자신 이외의 것을
위해 싸우려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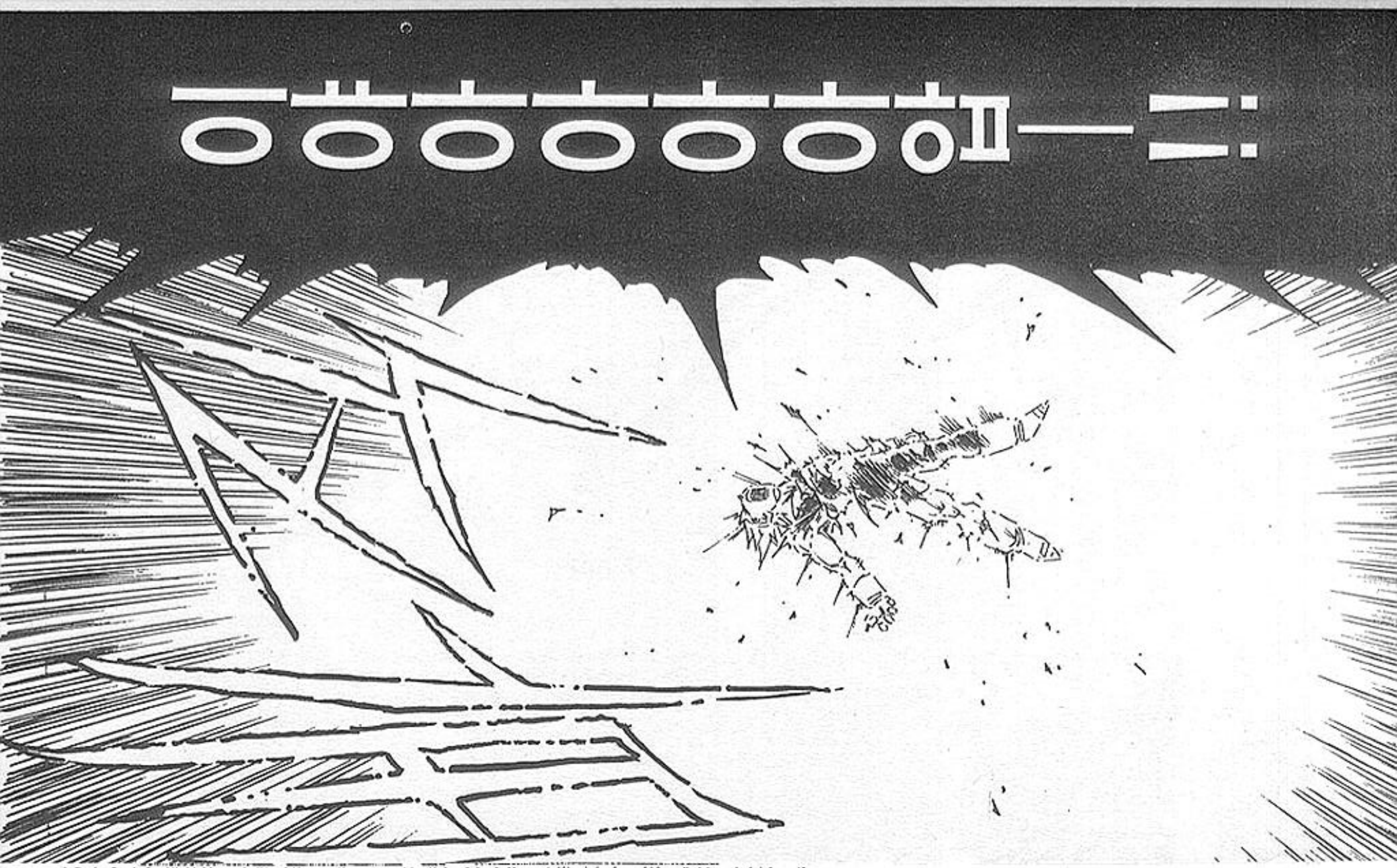

자신의
목숨까지
버리면서….

그오오오오오

!!

널 없애려면 두 번
다시 회복할 수
없도록 가루로
만들어버리는
방법밖엔
없다…!!

안녕…!
부르마…,
트랭크스…,
그리고
카카로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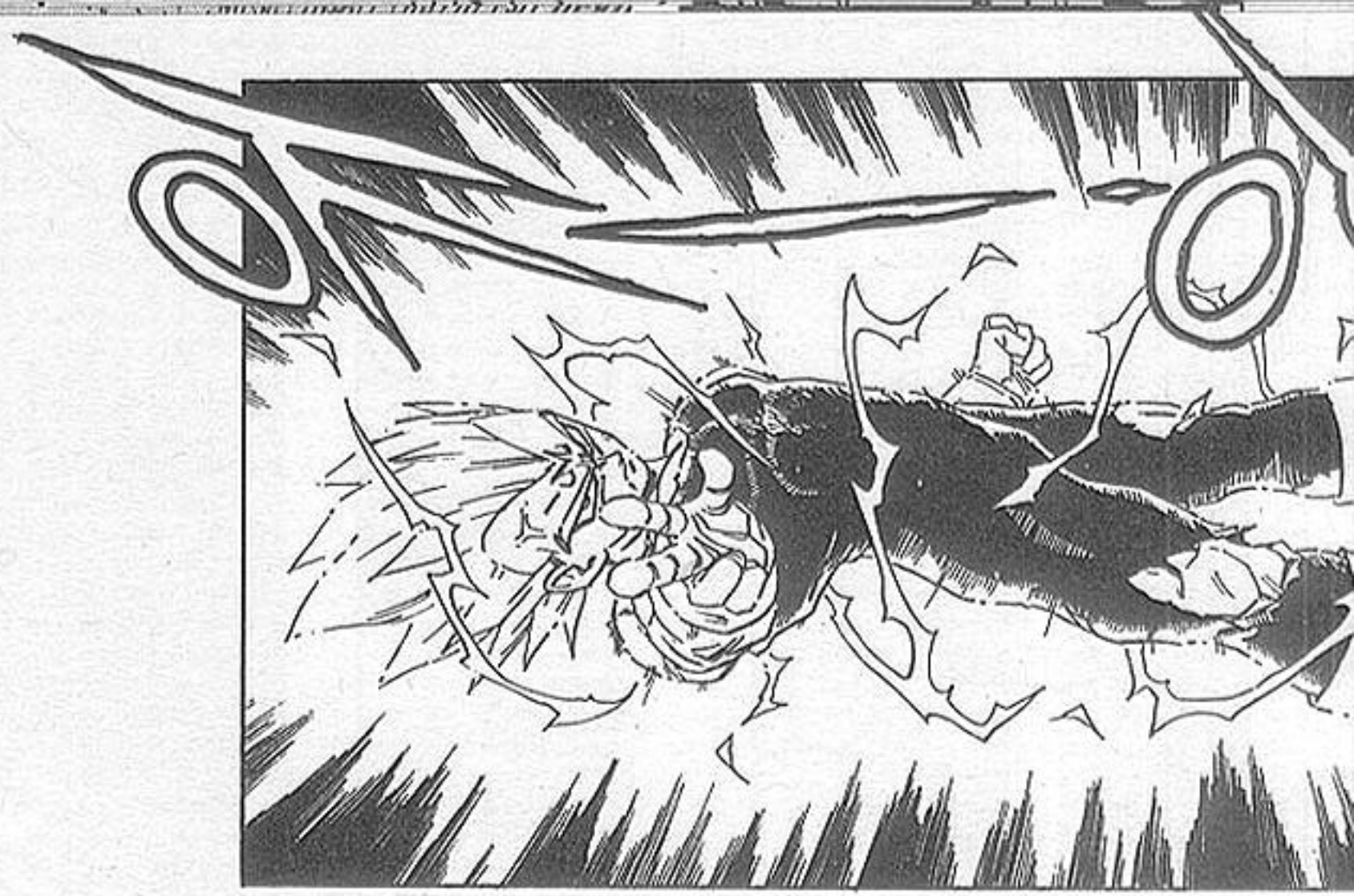

크어억
…!!




안 돼,
베지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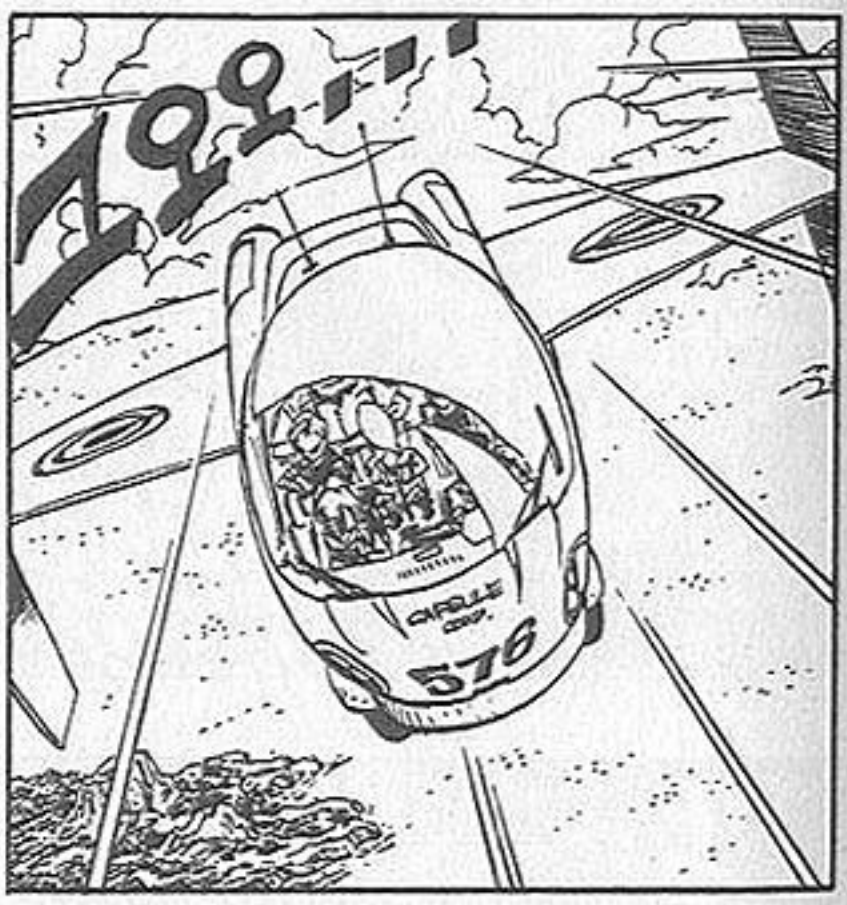

베…
베지터…!


큭…!!



제468화 두번째 악몽


대체 왜 베지터가 그런 짓을…?
왜….


구오오!!
CAPSULE CORP.
57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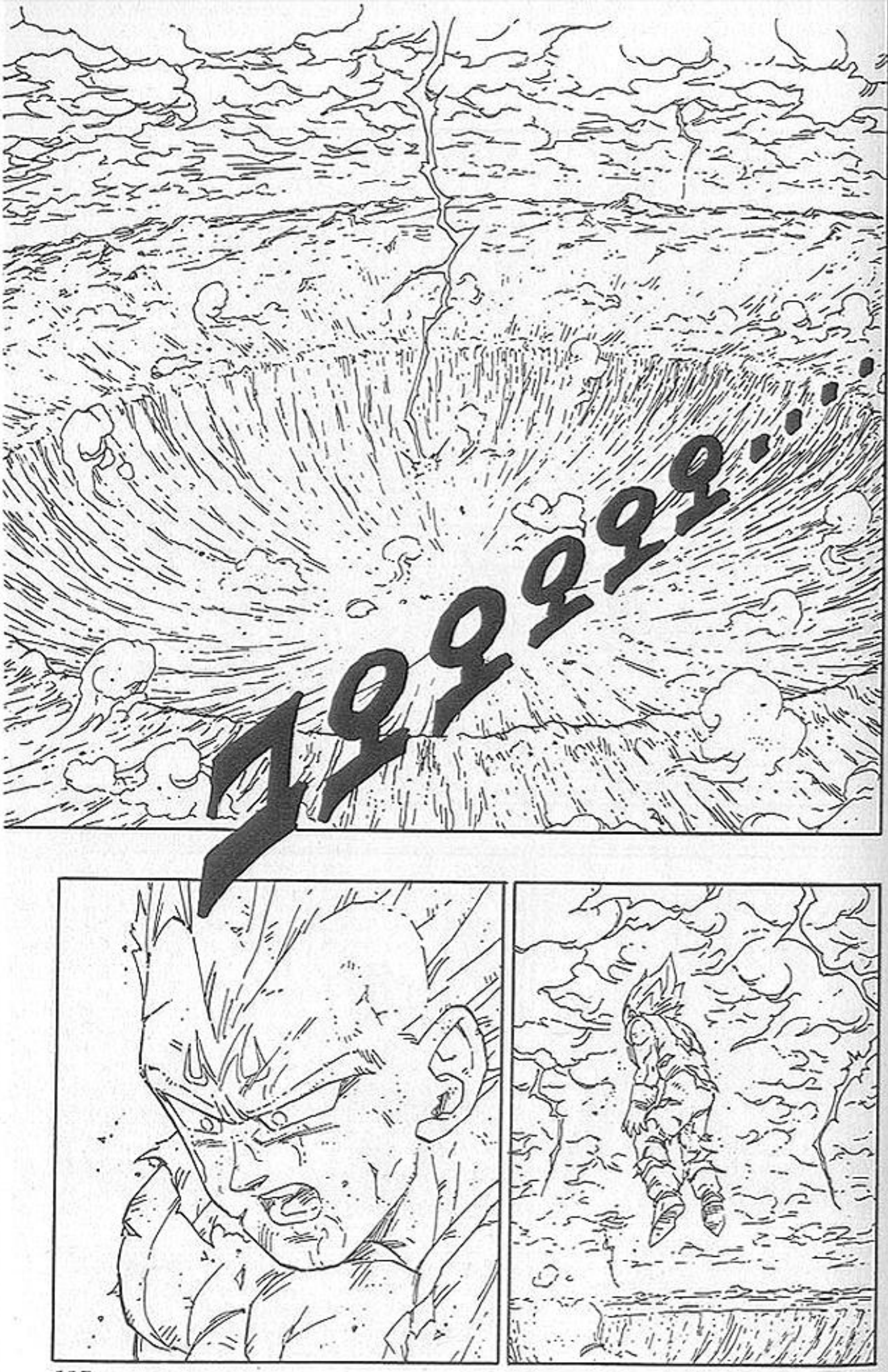

이럴 때를 위해 드래곤 볼이 있잖아. 죽은 관중들도 모두 살려낼 수 있어!
전찬아, 너무 걱정 안 해도 된다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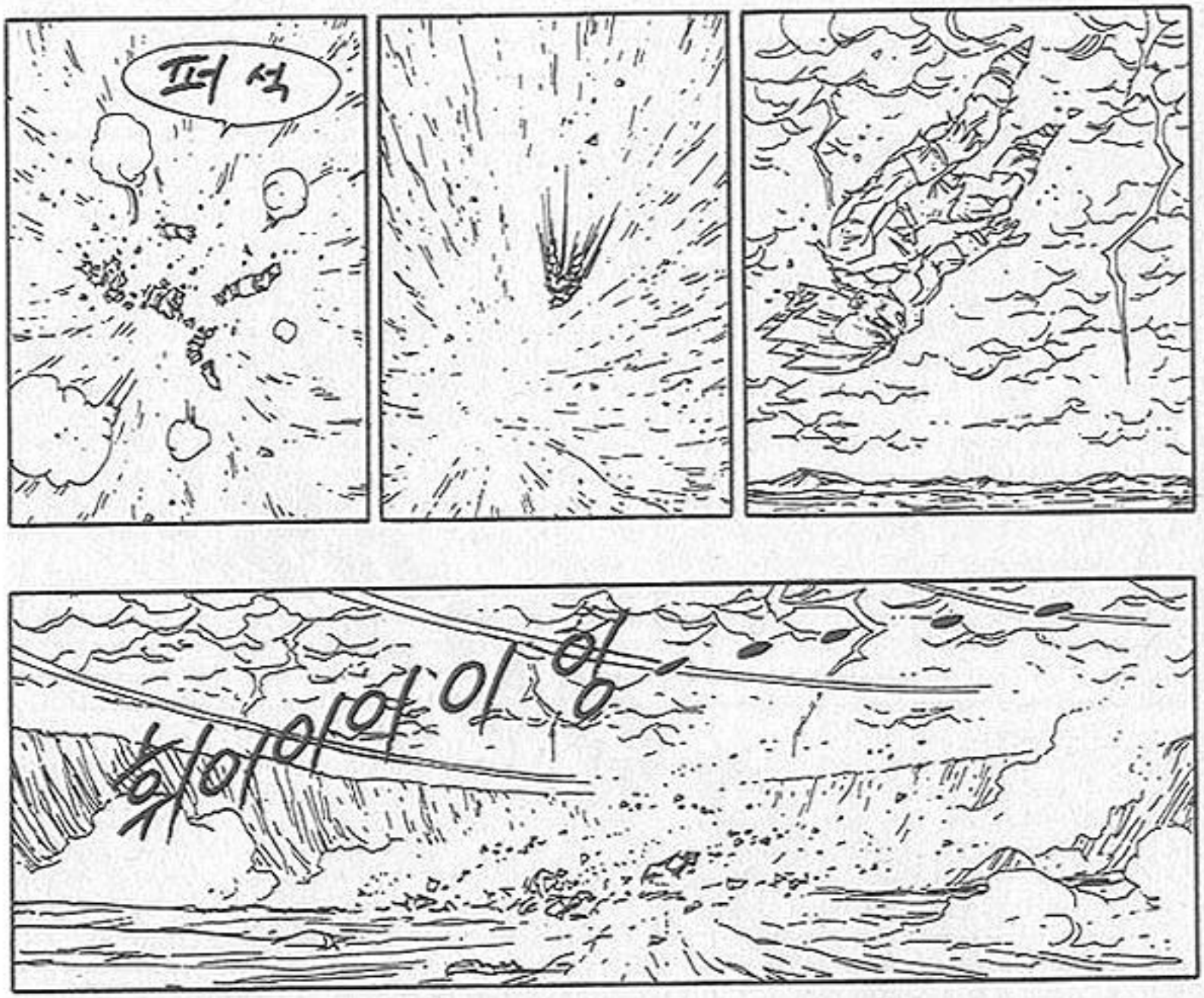

FIGHT
앗!!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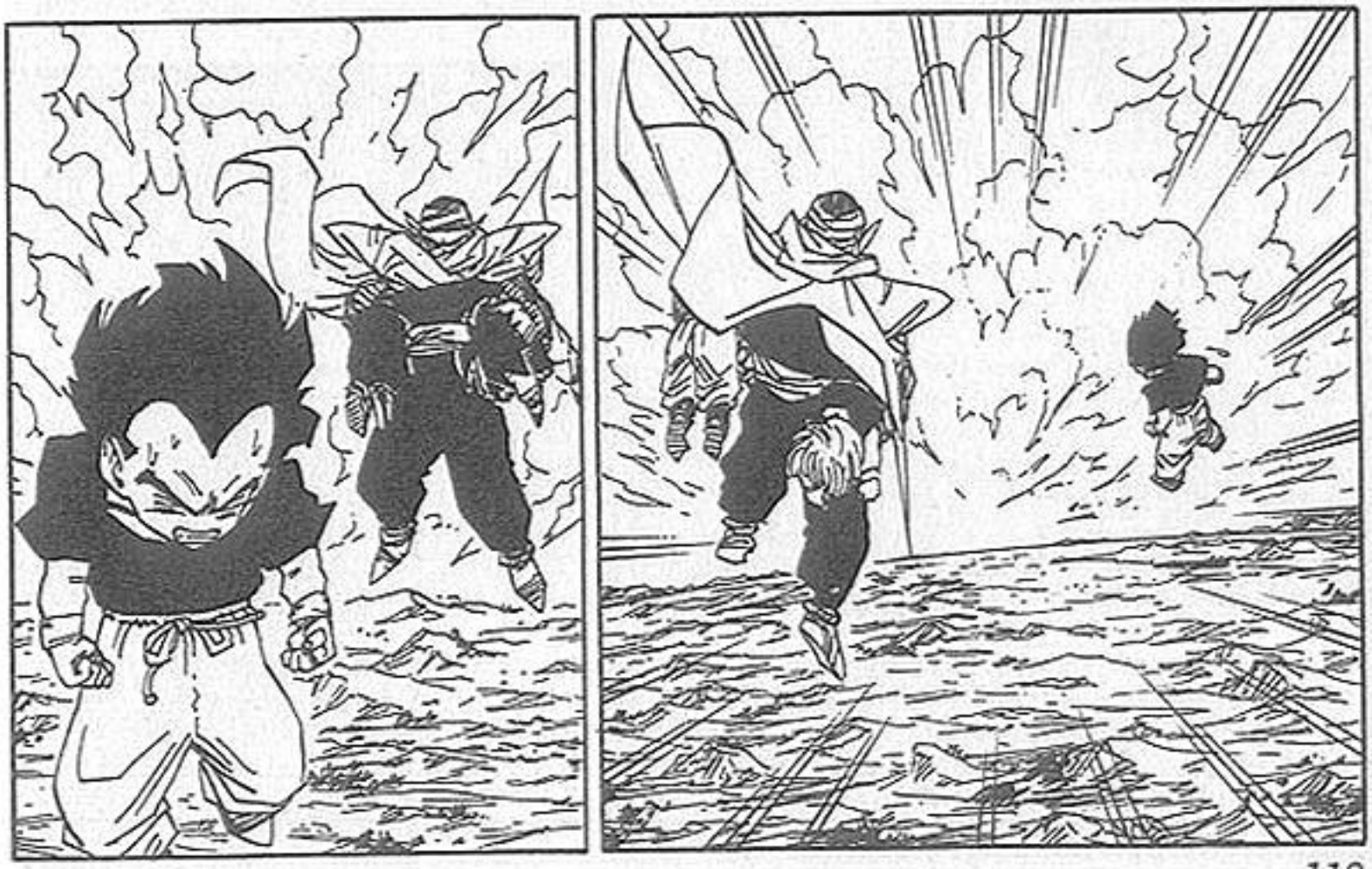

옛날…, 그 무서울 때의 베지터처럼 사악함에 가득차 있었어.
그렇지만 베지터가 좀 이상하던걸….



으아앗…!!
부우우웅
뭐, 뭐야!?
지… 지금 이게 뭐지…!?
대… 대기가 격렬하게 흔들리는 느낌이다…!
멀리서 어떤 대폭발이 일어난 것처럼….
깜짝
뭐… 뭐지…!? 이 불길한 예감은….
베… 베지터…!?


ぎぎぎぎぎ……


퍼석



모르는 척 하는 것은 오히려 안 좋을 거야….

가서 가족들에게 전해줘….

뭐?

크리링, 저 두 아이를 집으로 데려가라…. 난 결과를 보고 울게.

그… 그래.

베지터가 그렇게 말한 걸 내가 들었어….

오공은 어떻게 됐는지 모르지만…, 오반은…. 오반은 이미 마인 부우에게 살해당한 것 같다….

어… 어쩌면 좋지…!?

이… 이런…! 오반까지…!

휘이이이잉~

베지터가 우릴 구한 건가…?

……

그렇군….
악간의 충격만 받아서는
마인 부우는 재생되어 버린다.
그렇게 되지 않을 정도로
산산조각을 내버렸구나….

자신의 몸을 희생하여….

흥…. 아직도 놈이 살아있네.

허약한 놈이 상당히 끈질긴데.

바비디 …!

제, 제길….

으윽….

!?

마… 마인 부우의 파편이…!!

뭐… 뭐지!?

보호막으로 위기를 넘겼군….

바둥대는 골이라니…! 아주 끔장을 내주마.


이…
이런…!?
!!
와 아!!


우와아아아…아
처덕
철썩철썩
철썩철썩
처덕
스스스…
아니…!!
이럴…!!
크….
큰일 났어!!
마인 부우가 살아있다…!


부ㅏㅏㅏ!!
부우우우우
부우우우우
부우우
케케케
케케케!!
카카카
카카카!!
터턱

너라면 가능할 거야…. 빠…, 팔리애…. 나 죽으면 어떡해…!

원래 대로 살려놔…!

이 봐…, 나… 나를…!

마인 부우….

부… 부우….

……

다시 구슬에 갇히고 싶니?

뭐 하고 있는 거야…! 팔리 까라니까…!

에으으…

빠직

씨익

후아~! 잘 했다, 마인 부우!


그… 그놈들이 날 이렇게 만들었어…!
에잇…! 빌어먹을 자식들!!
……
이 별과 함께 끝장을 내면 너무 싱겁지…. 철저하게 고통을 맛보게 해주마…! 나 바비디 님과 마인 부우의 무서움을 확실히 보여줄 테다….
그 녹색 피부의 이상한 자식과 두 꼬마놈…, 절대 용서 못한다…!!
그… 그럴 수가…. 그럼 베지터는 헛된 죽음을 …!?
마… 마인 부우가 안 죽었다고 …!?
아… 아주 조그만 희망이지만 …!
마지막 남은 희망은 얘네들 뿐이야…!
얘들을 신의 성으로 데려가자!
지상은 위험해!

그놈들이
나타날 때까지
모든 게 철저한
살인과 파괴만이
있을 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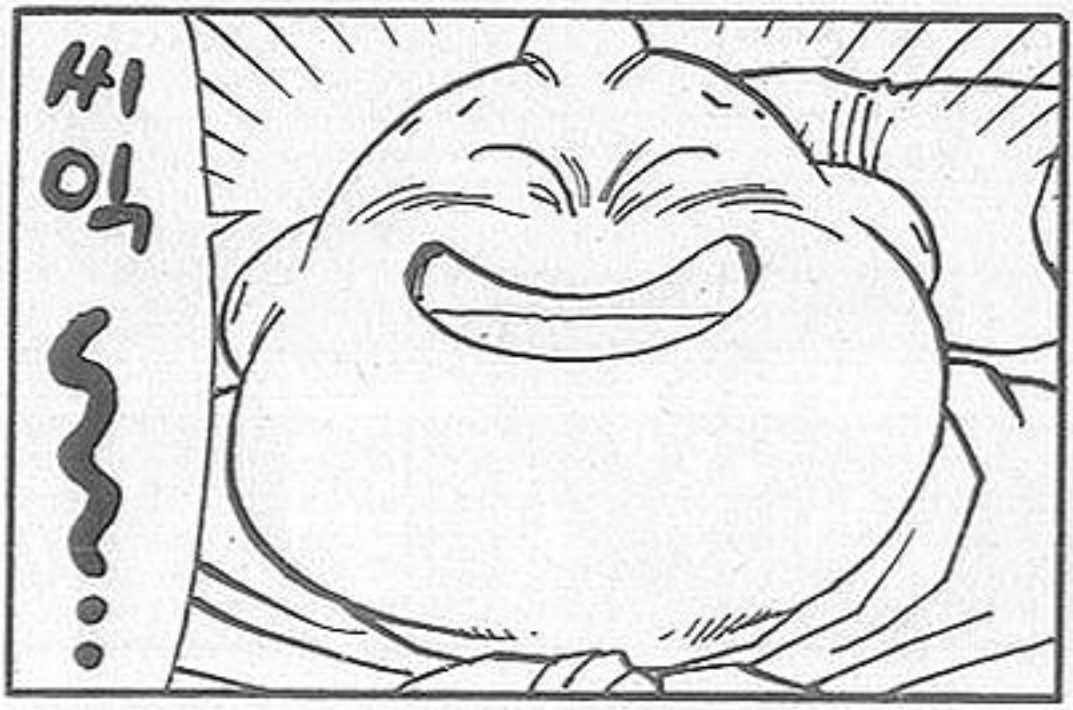
마인 부우,
이 별을 지옥으로
만들어 버리자!

꼬…
꼭 살아
있어야 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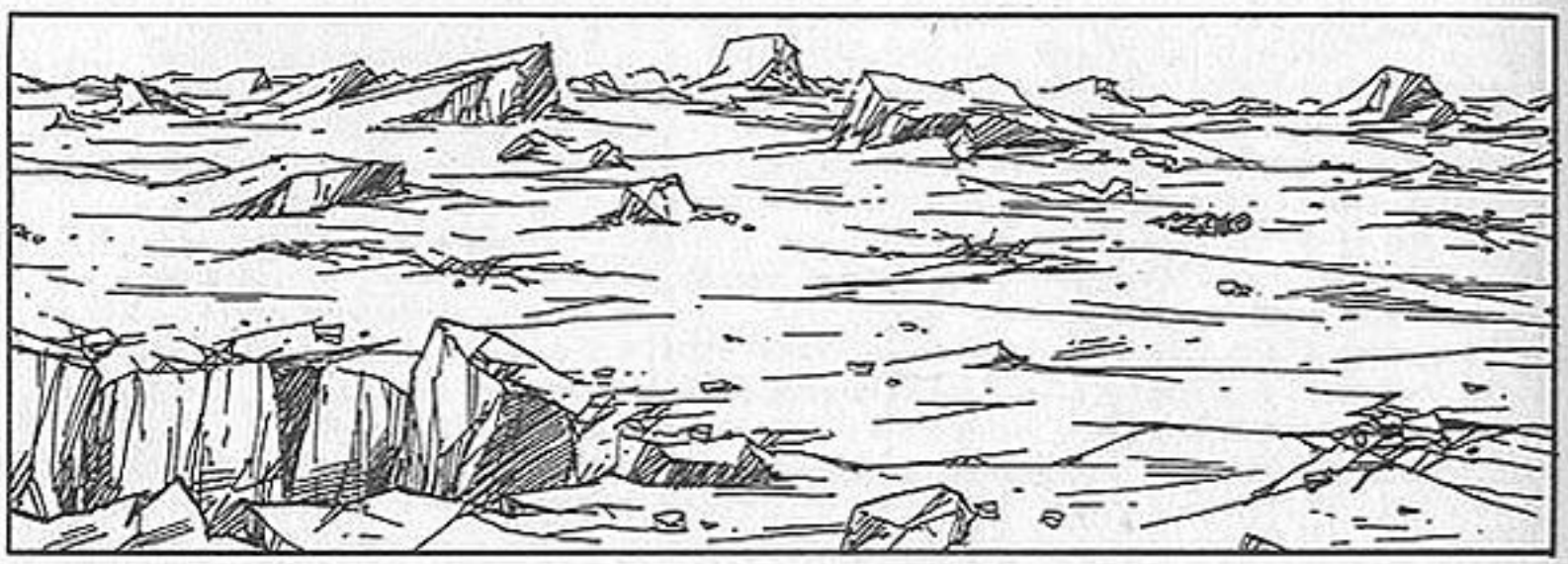
오…
오반…

헉…

허억…


씨익~~~...

제469화 작은 희망




아아아…
끄으응…
끄응…


날 기절시키고 저 혼자 마인 부우가 있는 곳으로 가버렸구만…
빌어먹을 베지터 자식…! 남은 선두 1개를 가져가다니…

서…, 설마 베지터 녀석이 당한 것일까…? 그… 그 녀석이….

마인 부우의 기는 느껴지는데…, 베지터의 기가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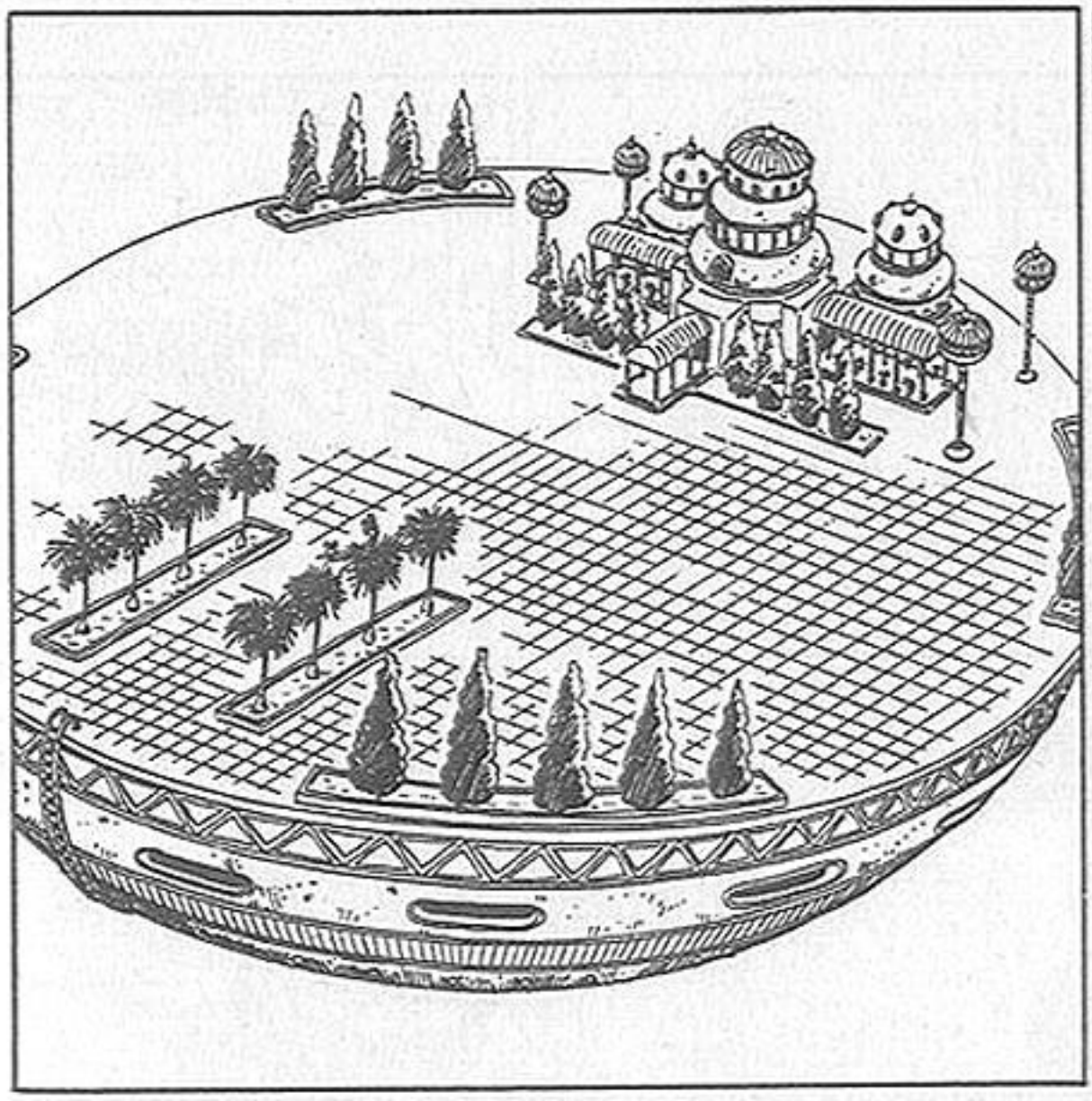
둘한테 물어보면 상황이 어떻게 된 건지 알 수 있겠지!

!!

피콜로와 크리링은 살아있네! 둘이 되는 마법에서 풀려났구나!

이게 어찌 된 일이지…?

오반의 기도 느껴지지 않아….






재들이 깨어나면
등골할걸….
최악이로군.
오공도 어떻게
됐는지 모르고….
이거
큰일났네….
베지터와
오반이 죽어
버리다니….


재네 들은
언제쯤
정신을
차릴까…?
글쎄….
아마 앞으로
1시간
정도는….


너무 염치없는
짓인가…?
가족만
구하려는
건….
저…. 덴데….
…가 아니고
신님….
우리 가족을 여기
데려와도 괜찮을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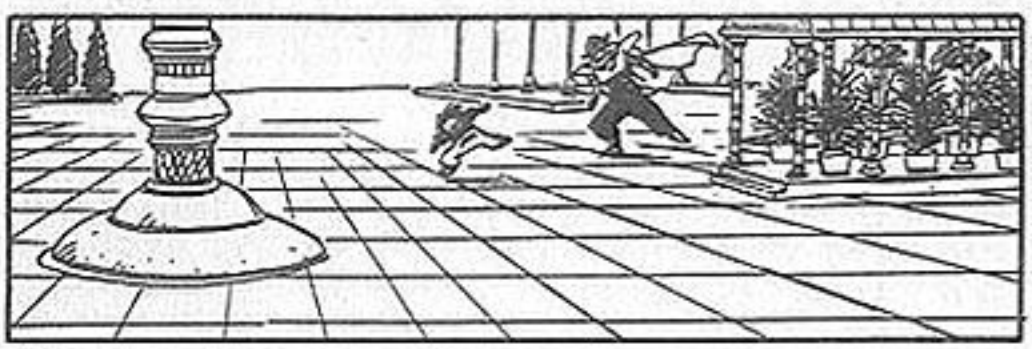

곧 돌려
줍게!
고마워!


지금 이 지구가
무사한 것도
여러분들
덕분이기 때문에
이 정도야….
전 상관
없습니다….


신은 너야.
자신의
생각으로
판단해라….
글쎄….


이
기는…!
아….







살아 있었구나!

오공! 오공 이잖아!!

안녕….

제가 치료해 드리죠, 오공!

너야말로 무슨 일이 있었니? 상처가 굉장히 많은데!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물어보러 왔어.

베지터까지도 당했다니….

큰일났군…. 오반도 계왕신님도….

이대로 그냥 두면 틀림없이 지구인은 물론, 우주 전체의 생물이 모두 사라져버리게 될 거야….

마인 부우의 파워는 계왕신님이 걱정하던 대로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다….

그건 무리야! 나도 상대가 안 돼….

솔직히 말하지….

네가 이 세상에 있을 수 있는 것은 하루지? 아직 약간은 시간이 남아있어….

하지만 오공, 네가 살아있는 것은 불행 중 다행이야…. 마인 부우를 쓰러뜨릴 수 있는 사람은 너뿐이니까!

미안하지만, 아무래도 이길 수 없어.

베지터와 난 실력차가 거의 없었다…. 그런 베지터가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싸웠지만 마인 부우는 눈 하나 깜짝 안 했잖아….

뭐…!?

수준에서 차이가 있다고….

아니야…! 아무리 많이 덤벼봤자 분명 소용없었을 거야….

제길! 베지터나 오반, 둘 중에 누구 하나라도 살아있었다면 아직 희망이 있었을지도 모르는데….

그… 그랬니…?

그렇구나….

메타몰 성인의 특기!

퓨전…! 융합이군요!

뭐? 그게 뭐지…?

아니, 그게 아니고 퓨전을 사용하는 거야….

즉, 두 사람이 하나로 융합하는 기술에 의해 혼자서는 아무리 해도 불가능한 엄청난 힘을 가진 새로운 한 명의 인간이 될 수 있는 거야.

덴데는 알고 있구나…! 그래, 저세상에서 만난 메타몰 성인으로부터 가르침을 받은 기술인데…. 어느 두 사람의 힘과 체격이 매우 비슷한 경우에만 가능한 합체 기술이란다.

굉장한 전사로 변신해서 마인 부우와 싸울 수 있었을 텐데!

그… 그랬구나…. 오반이나 베지터…, 누구 하나라도 살아있다면 너와 그 퓨전을 하여….

정말 대단했어! 그 메타몰 성인들은 아주 연약하고 약전한 두 사람이었는데….

퓨전을 사용하더니 굉장한 전사로 변신했지!

사실 기술은 배웠지만 아직 시험해본 적이 없어…. 저세상에는 나와 비슷한 실력을 가진 자가 없었기 때문에….

하지만 그곳에는 죽은 오반과 베지터가 있다구! 그럼 거기서 퓨전이란 것을 할 수 있잖아!

아, 아니야! 방법이 있어! 오공은 이제 곧 저세상으로 돌아가잖아!

아무리 생각해도 이젠 방법이 없어. 허허….

게다가 기술을 배우는 데 1주일 정도 걸리거든….

정말 최악의 상황이군….

서…, 설마….

…….

게다가 베지터는 이미 저세상에도 없고….

아니, 안 돼…. 오공은 이제 다신 이세상에 올 수 없어…. 합체를 한다 해도….

그 퓨전이란 게 가능하지 않을까?

안에 누워있는 둘…, 오천과 트랭크스는 힘도 체격도 거의 비슷하니까….

바로 그거야! 그 방법이 있었어!!

그래, 맞아! 미스터 포포!

저 애들 이라면 가능할 지도 몰라!

이거 잘 됐다! 이제 희망이 보이네!

하지만….

그 후엔 네가 계속해서 수행을 시켜줘!

피콜로, 내가 할 수 있는 데까지 꼬마 애들에게 퓨전을 가르치겠지만, 그걸론 아무래도 시간이 모자랄 거야.

그래, 알았다!

혹시 전멸할지도…. 아니, 지구 자체가 소멸될지도 모른다…. 이건 도박이나 마찬가진걸…. 감당할 수 있어야 해….

트랭크스와 오천이 퓨전이란 것을 완성시킬 때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 같다…. 그때까지 많은 인간들이 마인 부우에게 희생될 거야….

!!

그래, 좋아! 아무튼 난 모두를 데려올게!

그래!

혹시 전멸이 된다 해도 너희들과 드래곤 볼만 있으면 원래대로 돌아올 수 있잖아!

어…
어떻게…!?

용신이
나타나는
건가!?

이…
이건…!

갑자기
어두워지다니…,
뭘까?

그것을
살려내려고
하는 거야!

그렇군! 베지터는
무술대회장에서
많은 사람들을
죽였다…!

아직 사정을
모를 텐데…,
무엇 때문에
용신을….

드래곤 볼을
모아서 가지고
있는 사람은
부르마였지!?

음~,
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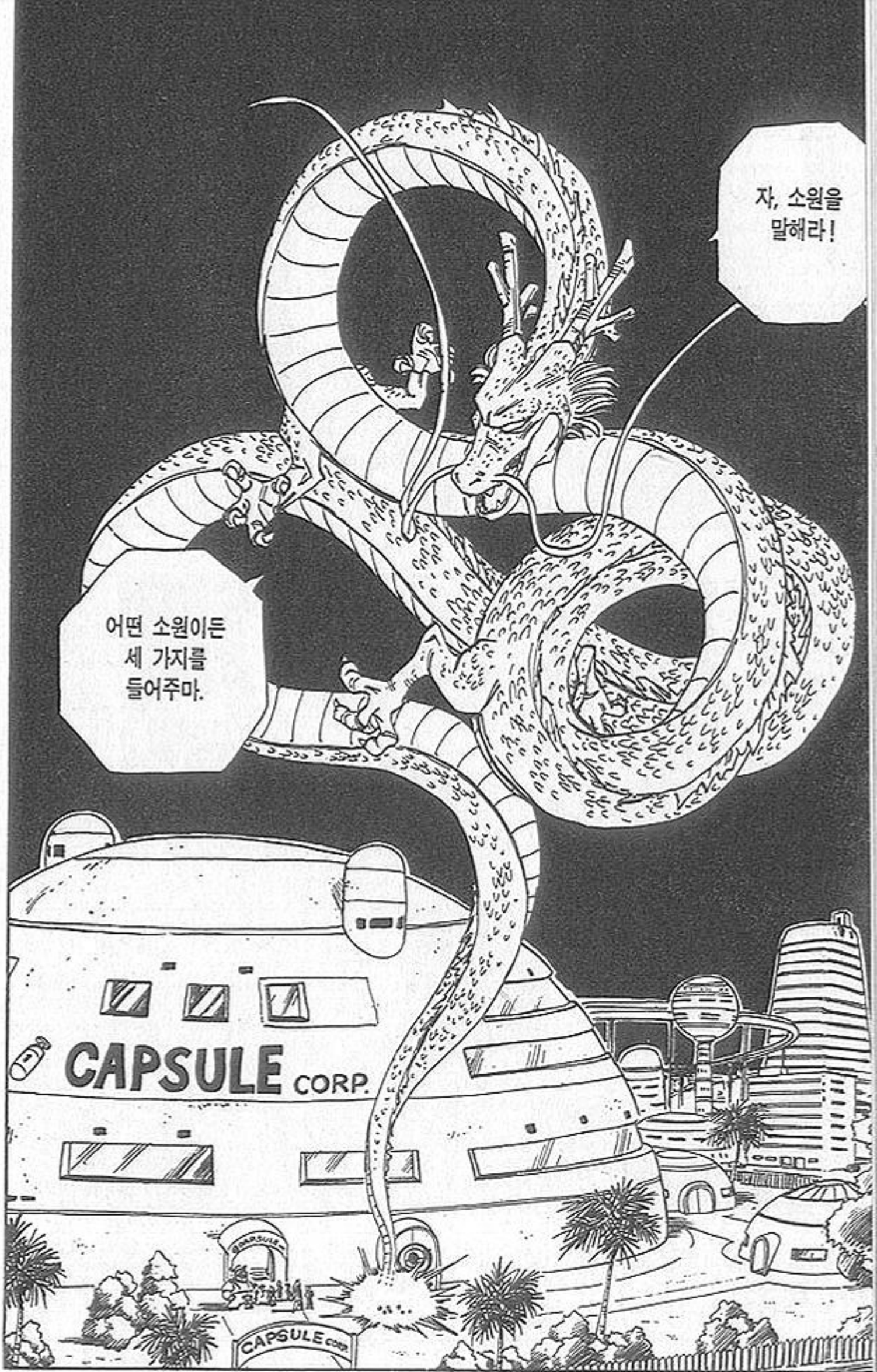
제길…!
부르마의 기는
찾기가
어렵군….

내가
얼른 가서
말리고
올게!

지금 세 가지
소원을
말해버리면
앞으로 1년
후에나….

크…,
큰일이네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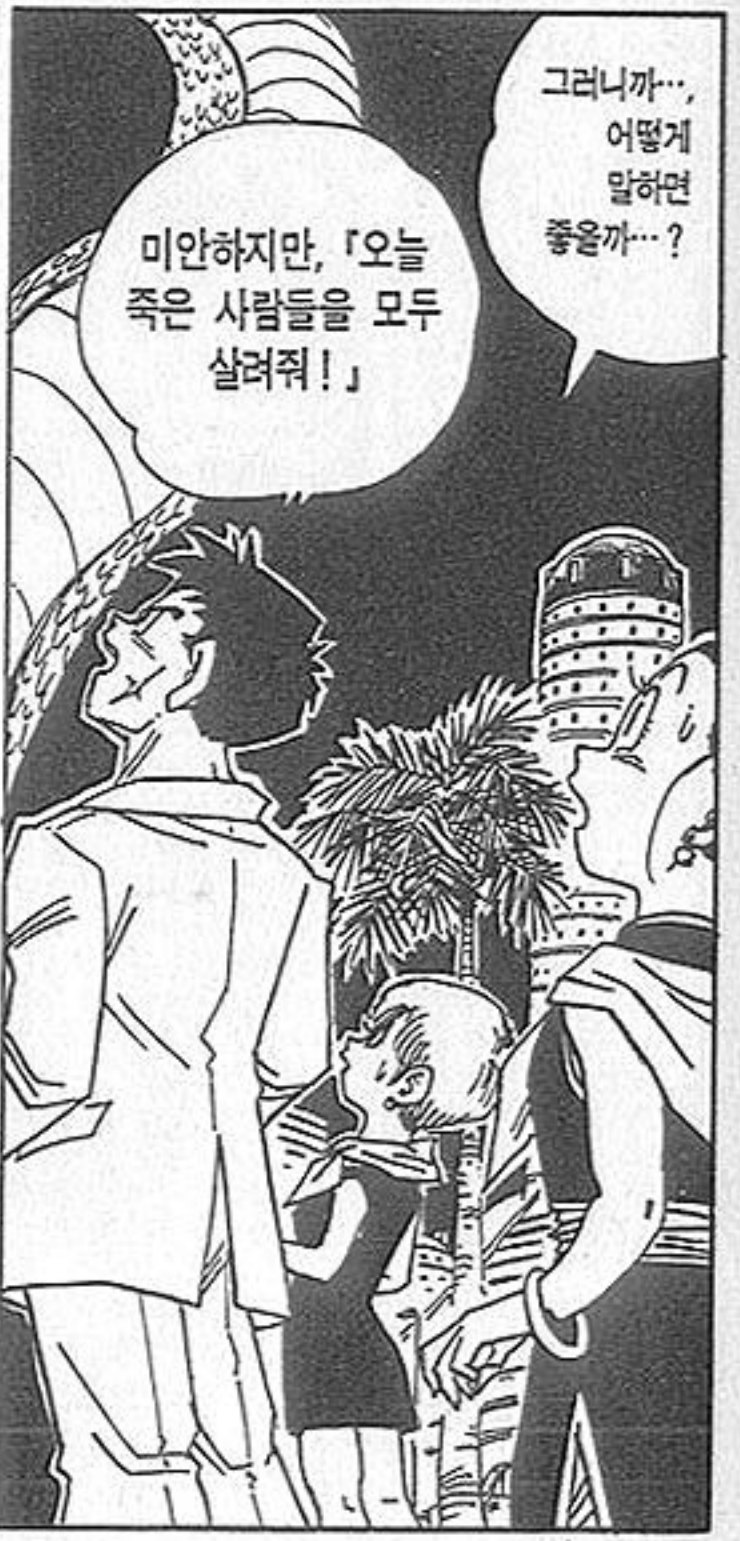
이거다!!


자, 소원을 말해라!
어떤 소원이든 세 가지를 들어주마.
CAPSULE CORP.
CAPSULE CORP.


이…
이럴 수가…!


저… 저건
뭐지…!?
으앗~!!


고마워!
이거
소원이야.
잠깐!
악인은
빼고!


그러니까…,
어떻게
말하면
좋을까…?
미안하지만,「오늘
죽은 사람들을 모두
살려줘!」


두 번째
소원을
말해라.
좋아!
첫 번째
소원은
들어줬다.

손오공!!

오공!!

늦어 버렸어~!

크…, 큰일 났네!!

한 가지 뿐이라면 4개월만 기다리면 사용할 수 있으니까.

그… 그렇군요! 그럼 남은 두 가지 소원은 이제 됐다고 말해주세요.

그, 그러니? 알았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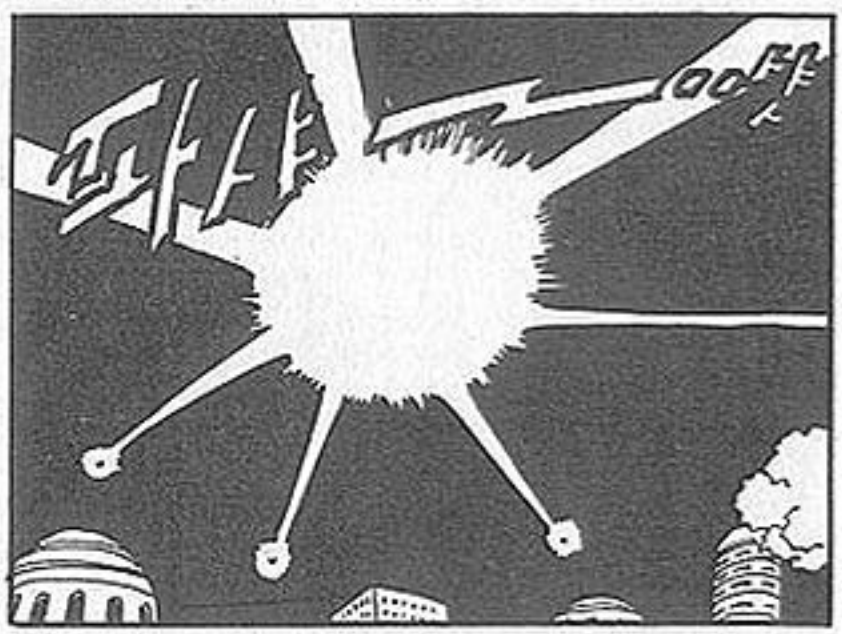
덴데…, 들리니? 하나뿐이지만 이미 소원을 말해버렸어…!

다음에 또 부탁해!

이번 소원은 그만 됐어, 용신! 고마워!

창! 그리고 이곳에 모두들 모여있으니까 내가 가족들 모두를 데리고 간다고 크리링한테 말해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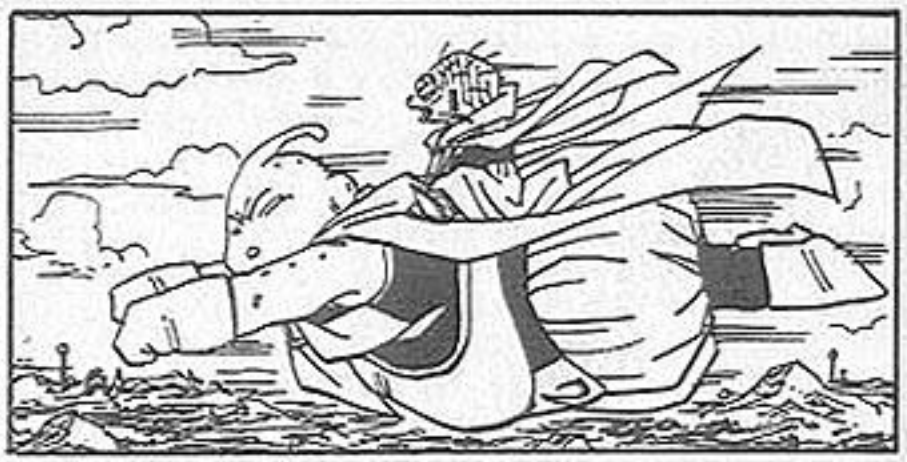
여, 알았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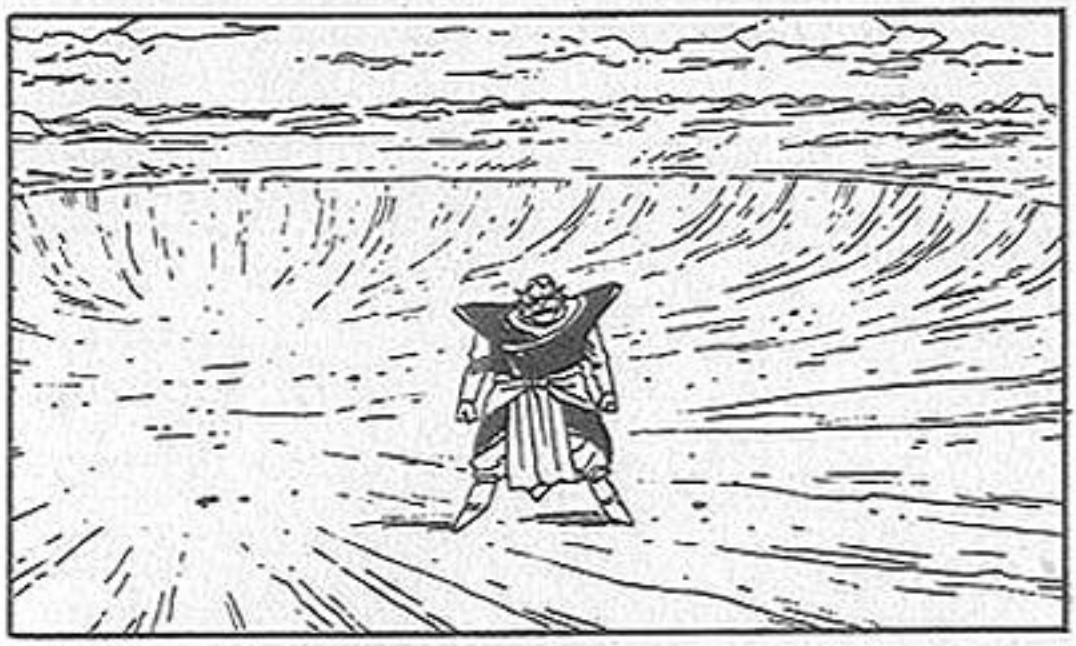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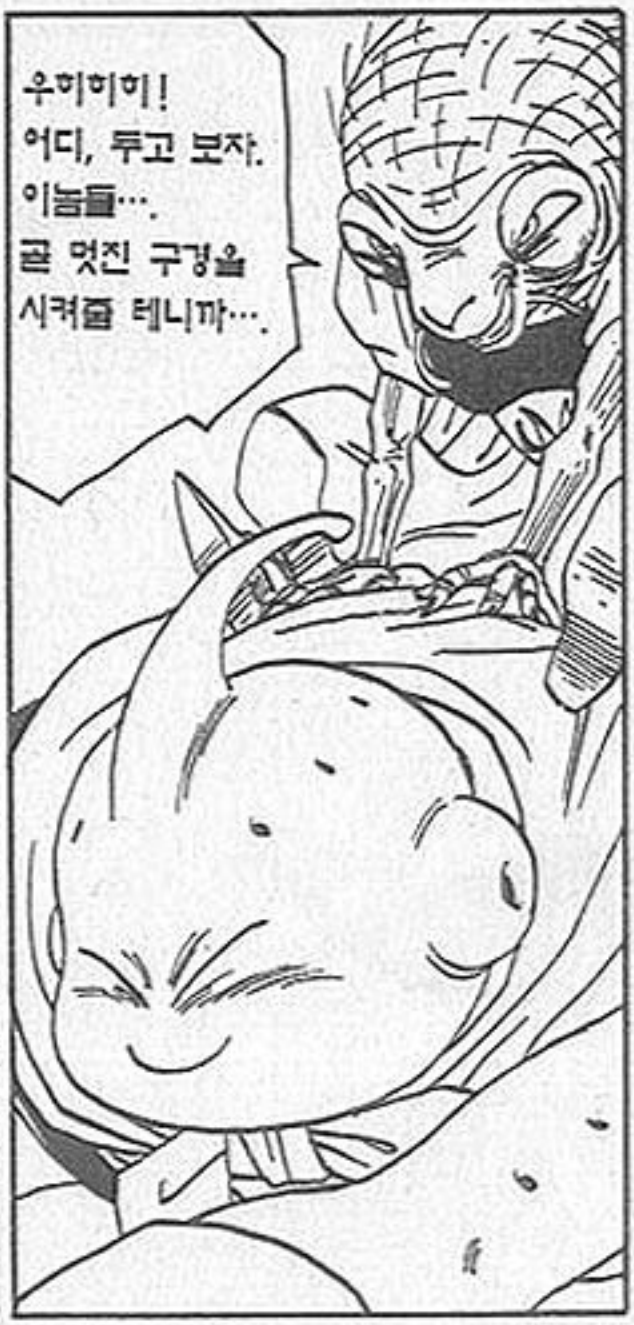




다음은, 제470화 바비디의 복수작전 개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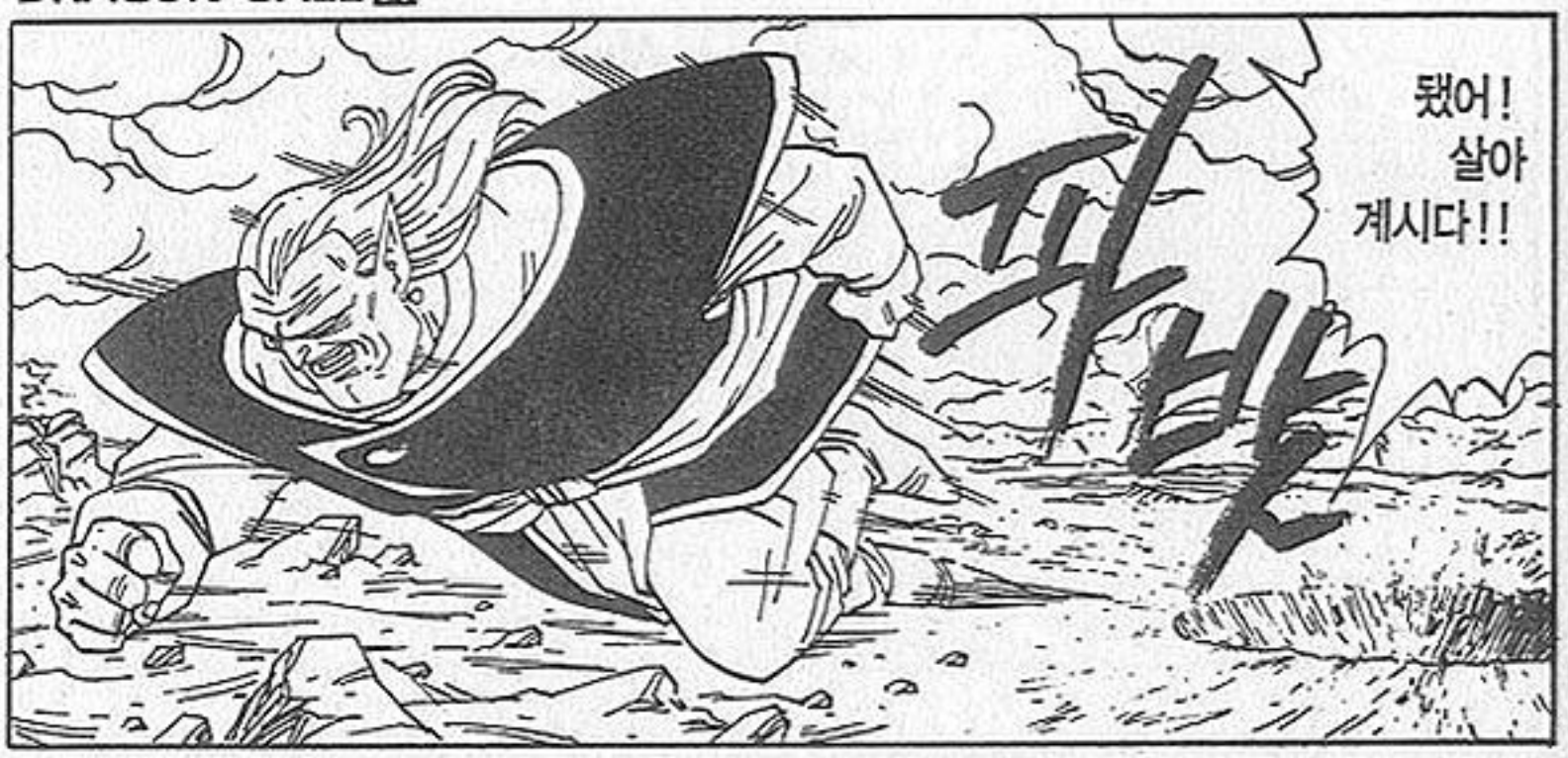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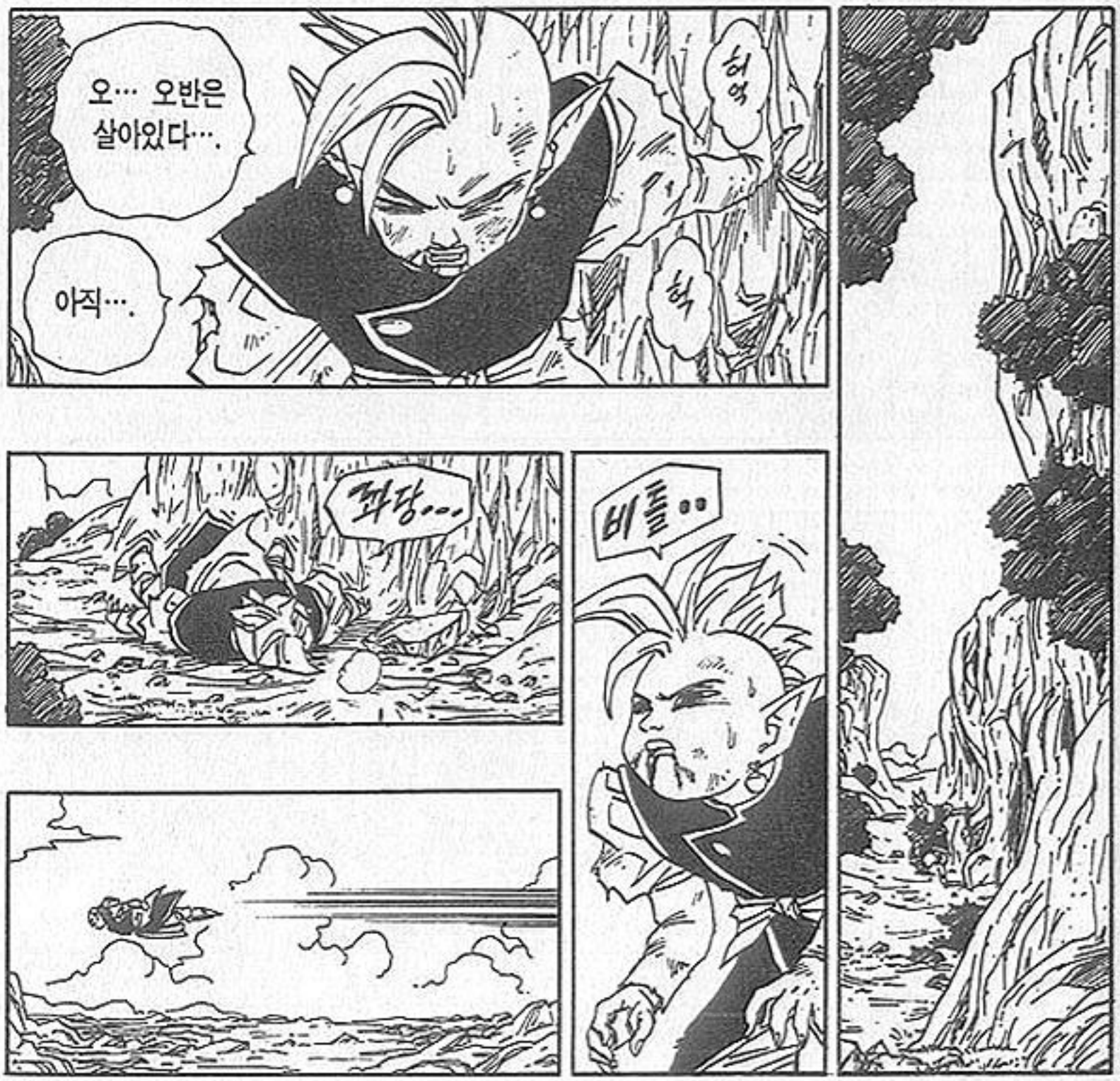



우히히히!
어디, 두고 보자.
이놈들….
곧 멋진 구경을
시켜줄 테니까….


앗!!


대…
대체
무슨
일이…?
계…
계왕신님….


됐어!
살아
계시다!!
퍼버버


오… 오반은
살아있다….
아직….
헉
헉
꽈당…
비틀…

앗!!

…

계…

계왕신님…!!

계왕신님!

다행이야!

아직 숨이 붙어 있어!

끄응

컥…!

크헉…!!

키、키비토…!!

어, 어떻게 된 거지? 자… 자넨…!

부…, 분명 죽었을 텐데…, 그것도 산산조각이 나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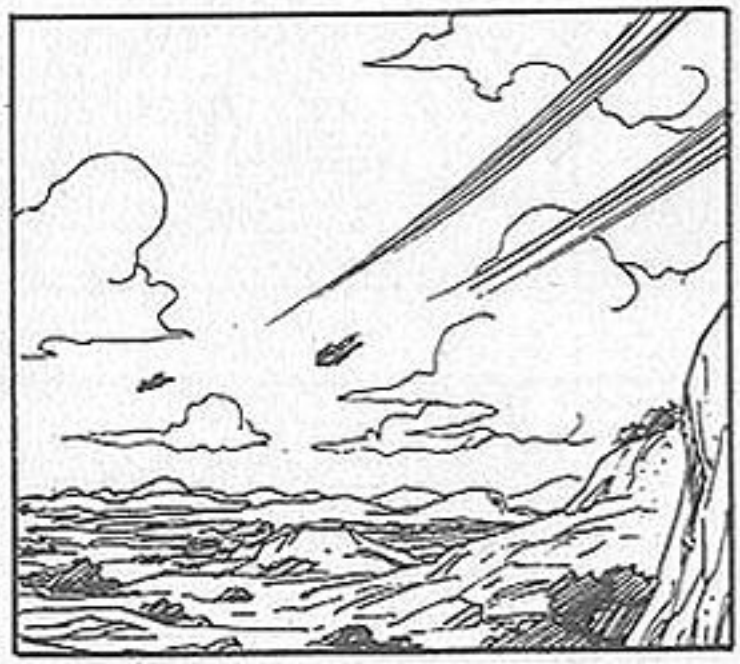
여…, 저도 대체 뭐가 어떻게 돼서 살아난 건지 이상해서…,

잠깐…,

그렇지…!!




키비토,
서둘러요!
오반도
위험해요!!
예!?
절대로 오반을
죽게 해서는
안 됩니다!!




예, 물론….
솔직히 말해서
절망감만
가득합니다….
이 거대한 마인
부우의 파워 에너지가
느껴집니까…?


두려워하던
최악의 사태가
현실로
나타나
버렸어요….
이제 전 우주의
모든 생명체는 두 번 다시
평화로운 날을 지낼 수
없을 겁니다….

나에겐 약간의 희망의 빛이 보이기 시작했는걸요….

절망적이라고만 할 수는 없어요….

상상을 훨씬 초월한 힘이 다시 비현실적인 것으로 변화하여 마인 부우를 뛰어넘을 지도….

맞아요….

설마…! 혹시 그건 손오반과 관계가…?

예…!?

뭐, 뭐라고요!? 설마 그런 일이…!

당신은 그 3명의 사이어인들이 가진 엄청난 파워를 보지 못했기 때문에 상상이 안 가겠죠….

이 근처인 것 같은데….

있습니다!

저기요!

키비트, 오반의 파워 회복은 계왕신계에 도착한 다음 합시다.

이거 계왕신님과 마찬가지로 위험한 상태였군요….

음….

다행이야 …!

대계왕조차도 발을 들여놓을 수 없는 그 성역에…!

서, 설마…! 이…, 인간을 계왕신계에 들여보낼 생각인가요…!?

예!?

자, 서두릅시다! 죽을 지도 모르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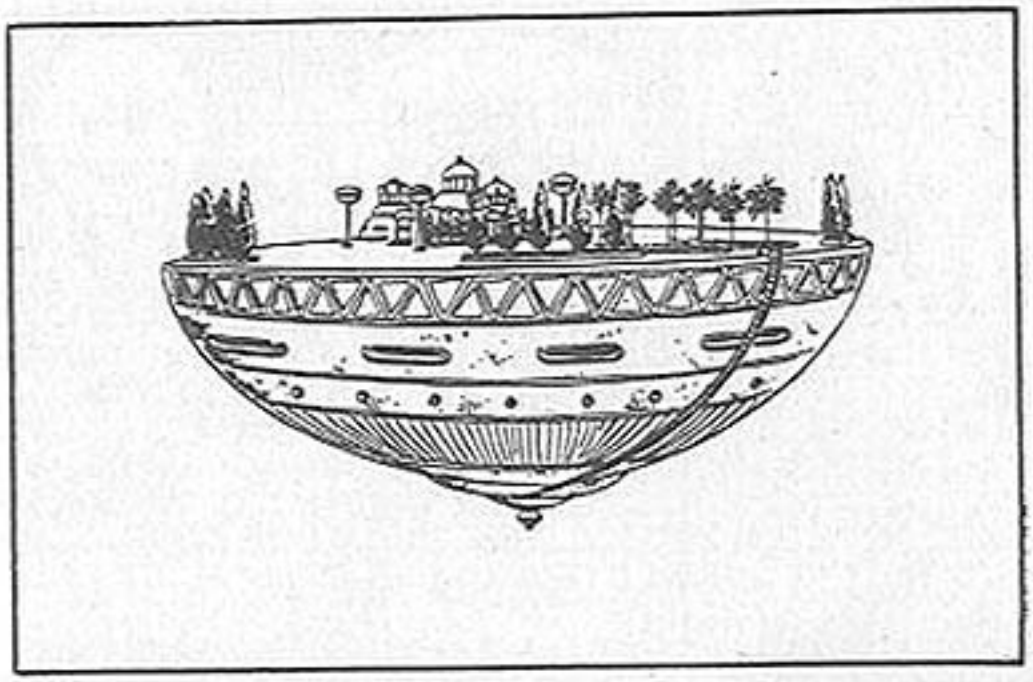
그래요!

파밧

카이 카이!!

예, 예…!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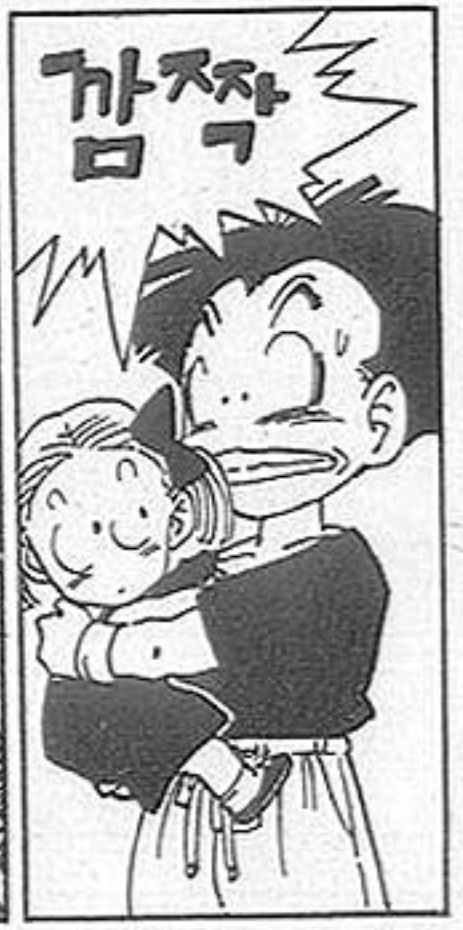



천진반 애들도
있는 곳을 알면
이곳으로 피난시킬
텐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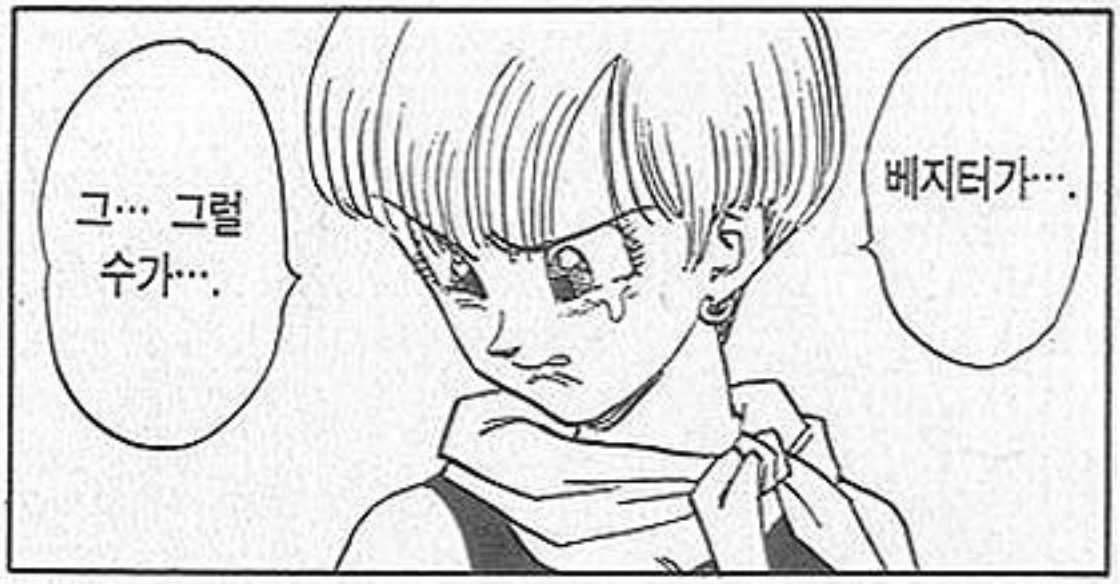

동물들을 그냥
두고는 오고
싶지 않대.
죽어도
드래곤 볼로
되살아나게
해주면 걱정
없다면서….
어? 부르마의
아버지랑
어머니는?


저….
오반과
오천은
어디에?
트랭크스와
베지터도….


오천과
트랭크스는
무사해….
오반과 베지터는
죽었다….
마인 부우에게
죽었어….
아무래도
솔직히
말해야겠군….


깜짝


뭐!?


그… 그럴 수가….
베지터가….


찌찌!
앗!


내 목소리가 들리나, 지구 여러분?


으아앙!!
안 돼!!


아참!
아무리 찾아봤자 보이지 않을 거야.
난 마법을 써서 너희들 마음 속에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난 바비디라는 마도사다!

평화롭게 살고 있는 걸
방해해서 미안하다.
사실 난 오늘 좀 유쾌하지
못한 일을 당했지.
어떤 세 명의
멍청이들한테 말야….

난 그 바보
자식들을
찾고 있다!

이제부터
영상을
보내줄
테니까!

눈을 감고
보고
있어라….

앗!

그, 그래….
대체 어찌 된
걸까~!

앗!

너, 너도
들리니…?

이… 이게
뭐지…!?

이 세 놈을
찾고
있다….

이 녀석들이
보이니…?

뭐야…


자신들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어서
나와라!


큭…!
오잉…!?


난
무지무지 우서운
마도사 바비디
님이시다.
참! 날
소개하지.


나오지
않으면….


헤헤헤….
이 마을이 보이지?
세 명의 멍청이들이
안 나오면 어떻게
되는가를 지금부터
약간만 가르쳐 주겠다.


그리고 얘는
나의 부하인
더더욱 무서운
마인 부우!
매우 강하지!
얘한테 이길 수
있는 놈은
절대 없다구!


아…,
안 돼…!!

자! 시작해라, 마인 부우!

깨끗하게 마을 사람들을 청소해봐라-!

난 너무 지저분한 건 싫으니까….

쉬익…

예이!!

으… 으앗…!!

까악!!

뭐… 뭐지!?

악!

으악!!

살려줘!!

무… 무슨 속셈이지!!

저… 저 자식이…!

어떻게 요리 할까?

헤헤!


삐리리리리릭
좋았어! 알사탕이 돼라!!
파밧
크ㅡㅡ앙
슈우우우우우
오물오물
우물우물
쩝쩝
아드득
빠드득 빠득
꿀꺽
푸우
이 별의 사람은 모두 이렇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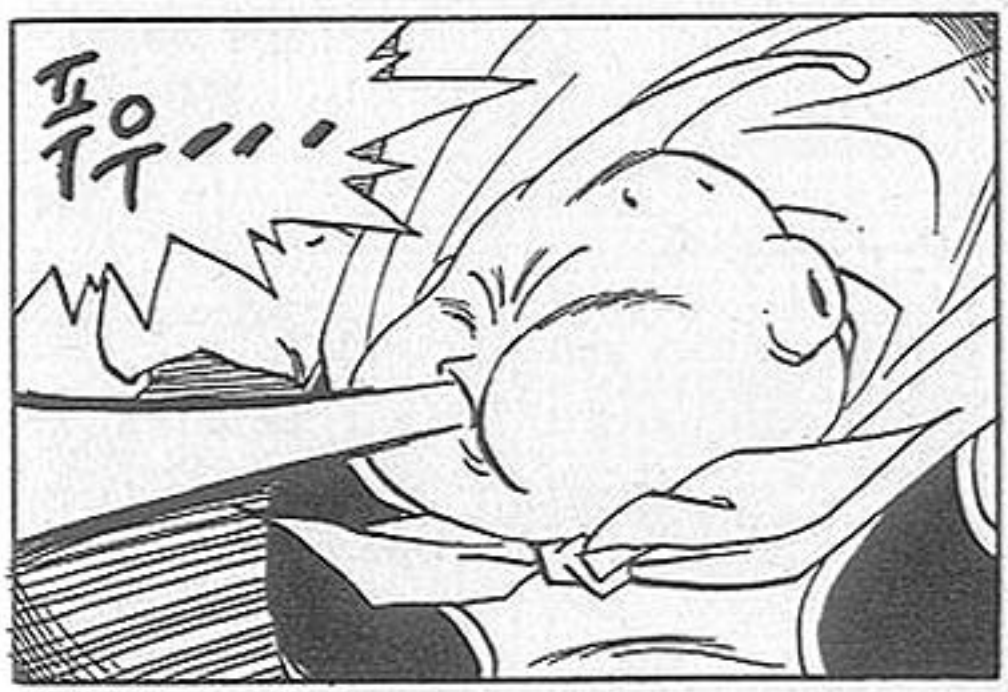

아드드
빠빠
각득
!

제471화 고통의 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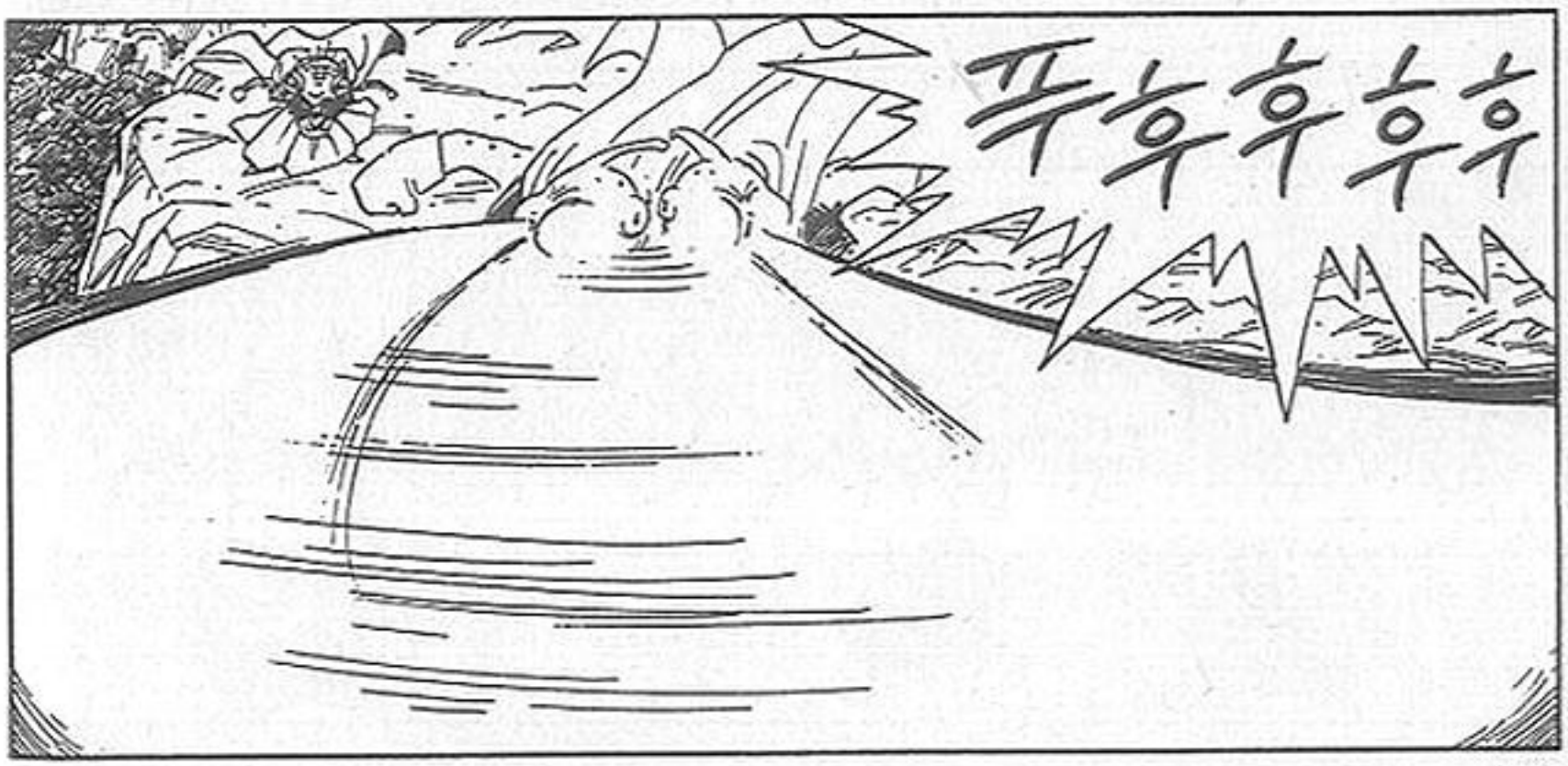

할 수 없군~! 하는 김에 완전히 청소해주마!
자~, 이제 인간이 없어진 이 도시는 아무런 존재 의미가 없지~!


알아요, 알아!!
너무 힘쓰면 안 돼! 지구 자체가 날아가버리면 재미없으니까.
깨끗하게 헤드려라, 마인 부우!


후우우우...
살금
살금 ...


후우...


멈칫....


후후후후

야호-!!

이런…!
오히려 더
지저분해졌잖아!

한 번 더
얘기한다….

요놈….

이놈과….

이놈과….

그래…, 5일간의
시간 여유를 주마…!
그 동안 만족할 만한
정보가 없다면
지구인은 모두
전멸하게 될 거야…

마인 부우에게
과자가 되어
당하고 싶지 않으면
빨리 이 세 놈이
있는 곳을 얘기해라.

아, 아참!
중요한 걸
잊었군!
정보를 보내주는
방법은….

벌써 연락이 온 것 같네.

어라-!

물론 세 놈 본인이 직접 자수한다면 더 환영이지!

머리 속으로 날 불러내라. 잠깐 기도만 하면 돼. 그럼 나와 얘기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름은…, 미주니어…. 애들 이름은 트랭크스와…, 손오천입니다.

그, 그 세 명이 이번 대회에 출전 했습니다….

흐음~! 그런데?

저, 저는 오늘 열린 천하제일 무술대회 관계자입니다….

예?

저….

이름 뿐이라고? 그걸로는 아무 필요없잖아.

이름 따윈 필요없어. 주소를 알려다오.

으으… 으아아아악…!

으어어 어억…!

예…? 아니…, 저…. 주소는 아직….

난 바빠.
지금부터 다시
여러 곳을 돌며
지구인과 도시들을
파괴하고 다녀야
하니까….

쓸데없는 정보나
장난을 치는 건
용서하지 못한다.
지금처럼
되긴
싫겠지?

파샥

숨어도 소용
없다는 걸 명심해!
5일 후엔 지구 전체를
모두 먼지처럼
산산조각 내버릴
생각이니까.

자, 다음
장소는
네가 사는
곳일지도 모른다.

그럼, 정보
기다리고 있을게!

빌딩

피아


저…, 정말
엄청난
놈이네…!


이, 이런 제길!
저 빌어먹을
자식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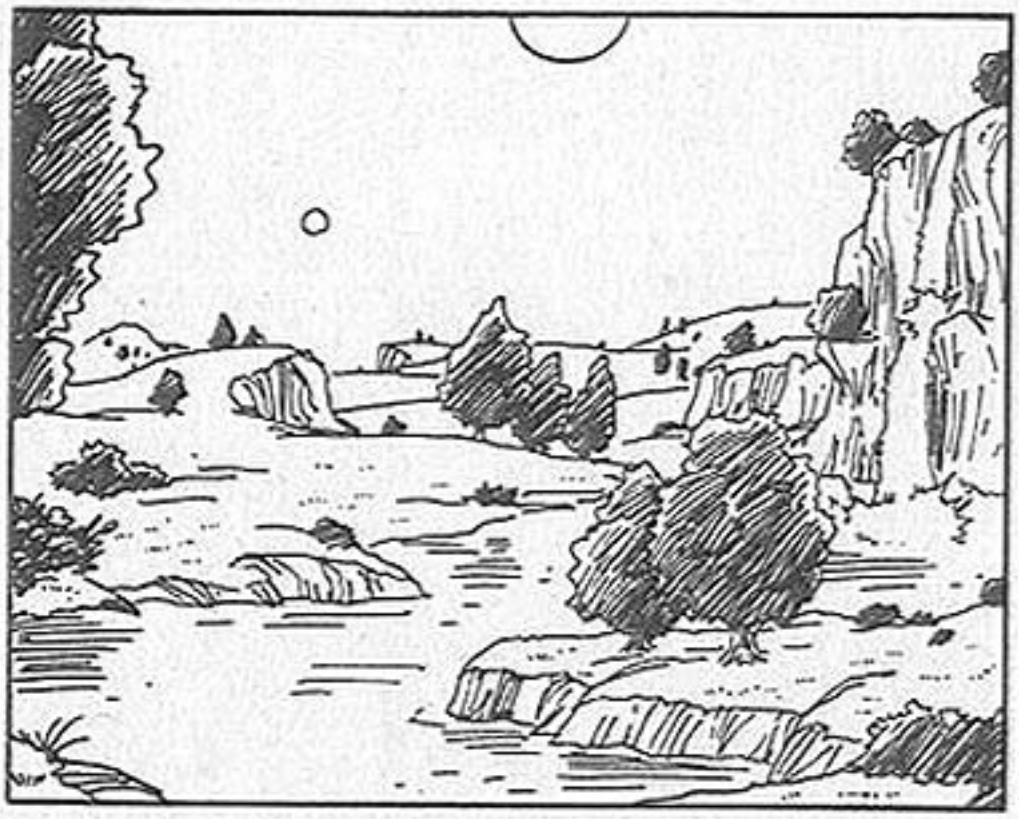

저… 저놈들이
베지터와 오반을
죽였구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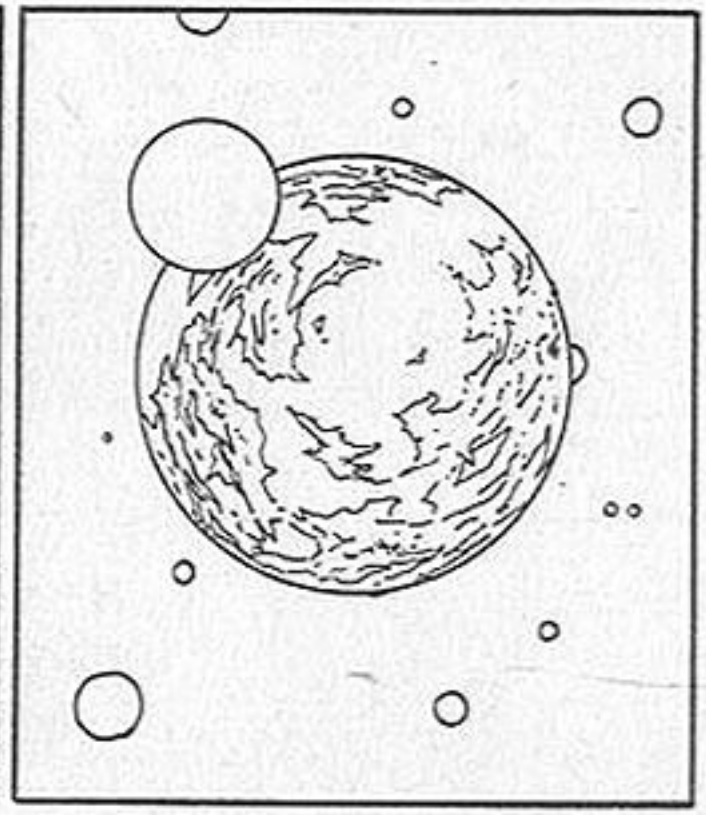

퓨전이
아니면
마인 부우는
못이겨!
멍청한 소리
하지 마, 피콜로!
네가 죽으면 누가
나 대신에 트랭크스와
오천에게 퓨전을
가르칠 수 있겠니!


내가
나가마….
더 이상
희생자를
낼 수는
없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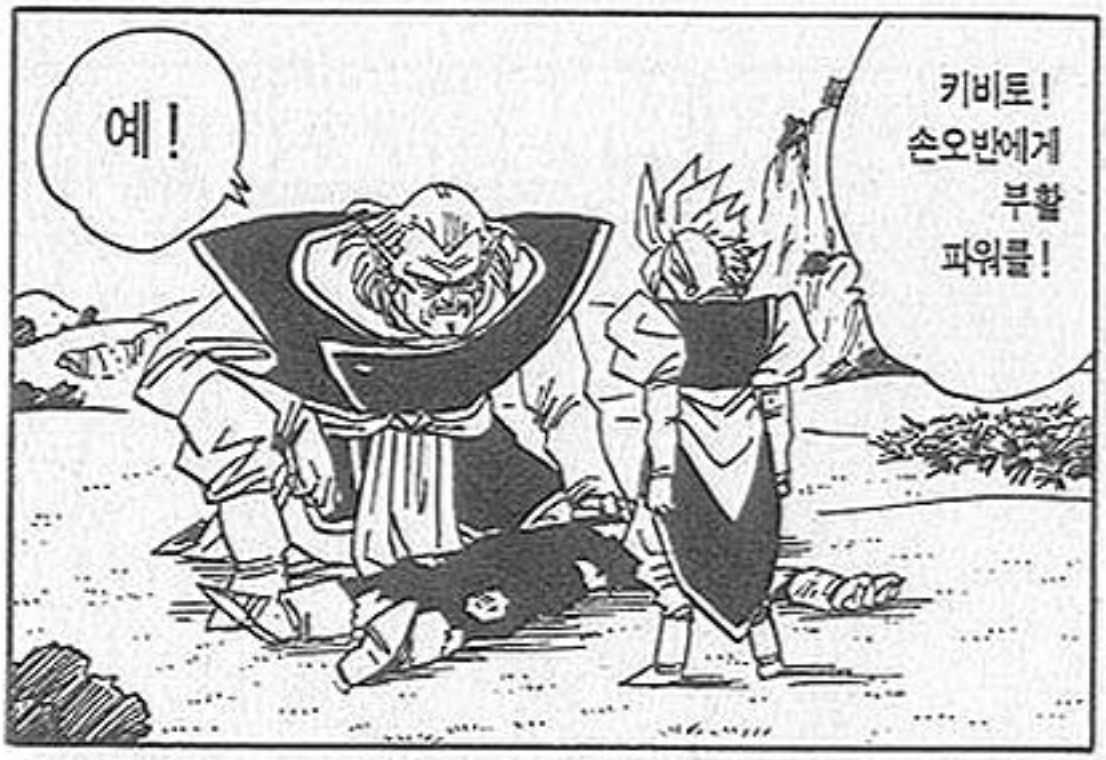

그래….
으…
으음….
그 말이
맞아요.


살해된 사람과
파괴된 도시는
드래곤 볼로
부활시킬 수 있다.
걱정하지 마!
저 녀석들은
어떡해서든
반드시 지구를
멸망시킬 거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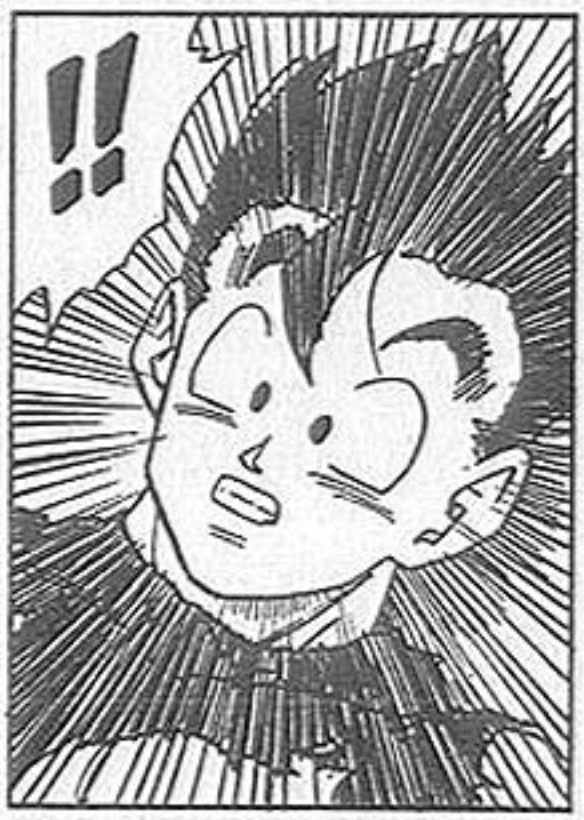





쿠쿠


예!
키비토!
손오반에게
부활
파워를!


아…
아니!?
어!?


!!


에잇!!

엥…?

그… 그럼 난 역시 죽은 몸이 됐구나…!

헉!? 계… 계왕신님!?

아닙니다. 걱정마세요. 위험하긴 했지만 살아있습니다.

여… 여긴…?

계왕신계…, 즉, 나의 세계입니다.

아니, 없어!

나도 잘 모르겠는데, 웬일인지 살아났어…. 나도 모르는 이상한 일이 일어났다구….

살아날 수 있는 능력이 있나요?

당신은 분명 죽었는데….

앗!

원래 이 계왕신계는, 인간은 물론 신이나 계왕조차도 함부로 들어올 수 없는 성스러운 곳이야.

계왕신님, 왜 인간 따위를 이 성역에….

저도 그 점이 궁금합니다.

저… 저기 왜 저를 이곳에…?

오반이라면 분명 그 검을 사용할 수 있을 겁니다!

제트 스워드를 사용하여 마인 부우를 없애줘요!

제… 제트 스워드!?

?

계왕신님! 지금 정신이 있으신 겁니까…!! 인간 따위가 그 제트 스워드를 어떻게 사용한단 말입니까!

저는 물론, 몇 분의 계왕신님조차도 전혀 손을 댈 수 없었던 그 전설의 검을…!

이 오반이 가지고 있는 도저히 믿기지 않는 엄청난 파워를!

키비토는 죽은 상태였기 때문에 모를 겁니다.

하… 하지만 아무리 그래도…

어쨌든 시험해보러 갑시다.

따라 와요!

…

예….


……
여… 여긴 참 멋진 곳이네요….
내가 살고 있는 곳과 상당히 닮았어요, 하하….


삐릿
어!?
아니!?


그 복장은 이 성역엔 어울리지 않아.
예?


하하하! 멋진데요, 오반!


앗!!
파
앗

이…
이런….

어쩐지
키비트랑
커플룩이
된 것 같아
창피한데….

이 검이
제트 스워드
입니다.

예….

턱

턱어억

턱어억

옛날 이야기에
이 비슷한 것이
있었는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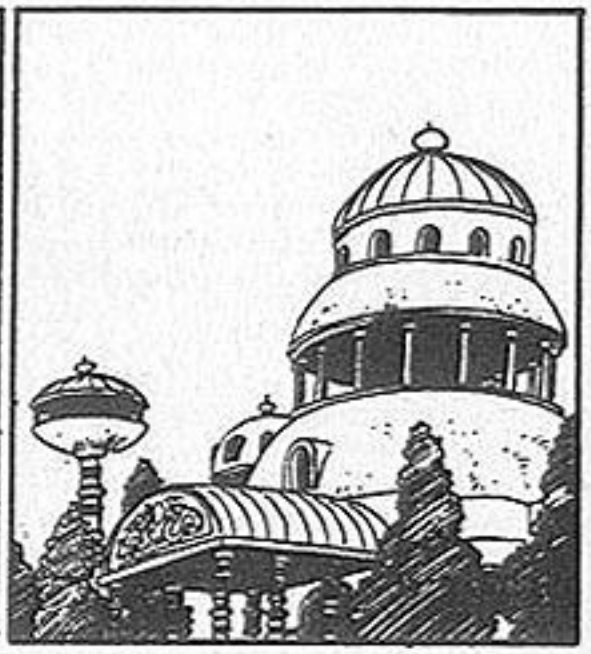
뽑아
내라구요…?

내가 아는 한,
이 검을 뽑아낸
사람은 아직
아무도 없어요.

뽑아
보세요.

으앙~! 형이 죽었대~!!

거… 거짓말! 아빠가 그런 녀석에게 죽다니…!



야속하게 생각될지도 모르지만, 언제 이곳이 바비디한테 들킬지 몰라. 빨리 수행을 시작하자!

으윽…

정신과 시간의 방에서 할 거니?

복수하고 싶으면 새로운 기술을 빨리 익혀서 원수를 갚아라!!

울지 마! 지금 그럴 여유가 없어!



알겠니!?

여기서 해도 편찮아. 얘들이라면 매우 빠른 시간 안에 퓨전을 익힐 수 있을 것 같은걸….

아니, 그 방은 한 사람이 평생 동안 이틀밖에 사용할 수 없다…. 앞으로 진짜 필요할 때가 있을지도 몰라….

피콜로도 잘 보고 기억해둬….

시작하자….



제472화 제트 스워드


저…, 이 제트 스워드란 것을 품을 수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죠?
엄청난 파워를 얻을 수 있다는 전설이 있어…. 그래, 아무리 무서운 그 마인 부우라도 이겨낼 수 있을 정도의…!

잠자코 보고만 있어요.

키비토!

넌 못 이길 수 없으니까….

걱정 마셔.

무엇이든 자를 수 있는 칼인가…? 무시무시한데….

여~!? 그게 정말여요?

우웃…!!

에잇!!

예….

자, 오공! 해봐요.

으갸갸갸 갸갸…!!

이야앗!!

이이익…!!


좋아! 어디 두고 보자!
흥…!
이야야…!!
푸하…!!
빌어먹을! 꿈쩍도 안 하네…!
파파팟
초사이어인인가…?
그래봤자 소용없을걸…!
꾸욱…


이야앗…!!
으이익…!!
무리야…! 계왕신님들이 여럿 도전해도 뽑을 수 없었던 것을 어떻게 하찮은 인간이 뽑을 수 있겠니….
이야압!!
슥…
!!
쩌적
쩌적
쩌억


야호!!
해냈다!!
아니…
이럴 수가…!!
허억
허억
헉
파파파

미…,
믿을 수
없어….

그…,
글쎄요….

지… 지금
상태로 봐선
그다지 큰 파워는
있을 것 같지
않은데….

끄응….
어…,
엄청나게
무거운데요….

어때요, 오반?
전설의 검
제트 스워드를
잡은 느낌은…?

무슨 소리야!
그건 이 성역에서
비전되는
최강의 검이다.
분명 마인 부우를
쓰러뜨릴 수
있을 거야.

그걸 잡은 네가
비틀거리고 있으니
그렇게 생각되는 것도
당연하지….
자유자재로 사용할 수
있는 자만이 그걸로
싸움을 할 수 있을걸…!

크윽
…!

저, 정말
이런 걸로
마인 부우를
이길 수
있을까…?

그래요…?

……?

악!!

음….

꼬응~! 그런 얘기하기 전에 얼마나 무거운지 한 번 들어보기나 해요….

이이익…!!

!!

예… 예….

어쨌든 이 제트 스워드를 자유자재로 사용할 수 있어야 돼! 알겠니?

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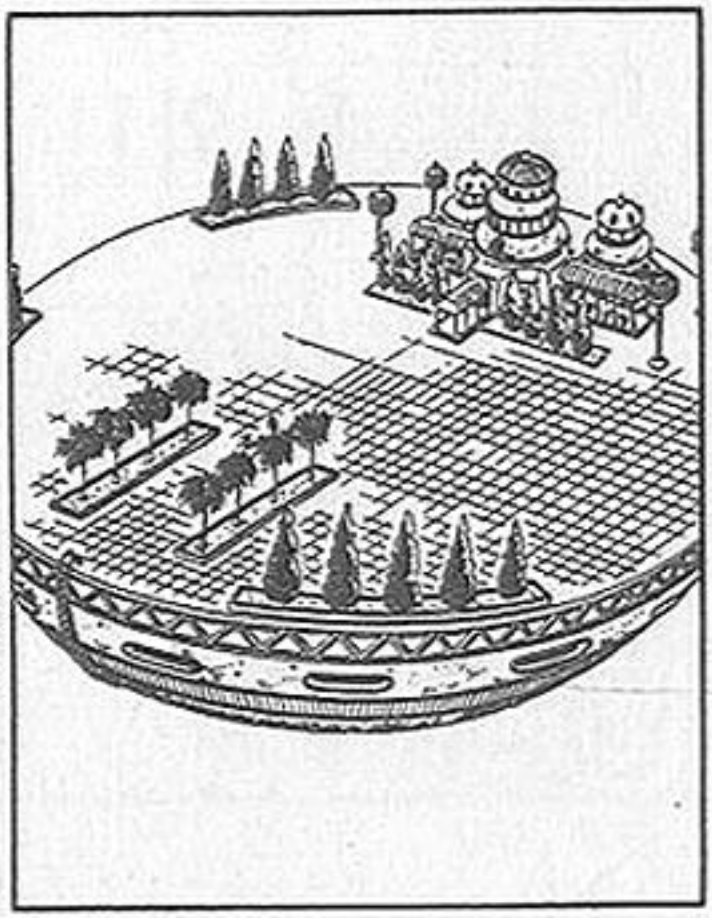
헉

그럴 수도 있지, 뭐…!

……

30분이 지나면 원래 상태로 분리되고, 한동안은 퓨전을 할 수 없게 되지.

알았지? 퓨전에 성공해서 합체가 돼도 그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시간은 30분 정도 뿐이다.



그 정도로 퓨전은 강하거든.

얘들 정도면 퓨전에만 잘 성공하면 30분 안에 분명 이길 수 있을 거야.

30분간 뿐이라….

그건 너무 짧은데….



좋다! 자, 우선 둘 다 초사이어인으로 변신해라.

왜 그래?

……

기절한 상태였다….

……

아저씨는 아빠랑 오반이 살해 당할 때 뭘 하고 있었죠?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 기술을 배워봤자 별로 강해지진 못할 거야….

아저씬 겁쟁이 아냐…?

기절하고 있었다고…? 그런 중요한 시기에….

됐어, 피콜로….

마인 부우에겐 도저히 이길 것 같지 않아….

그 말이 맞아.

오공은…!

이놈들….

너희들이 정말로 베지터와 오반의 원수를 갚고 싶다면 이 방법밖에 없을지도 몰라….

그러나, 난 비록 약하지만 퓨전이란 기술은 가르칠 수 있다.

헤헤헤헤…!
또 나다,
지구인 여러분!
마도사 바비디 님과
마인 부우라고!

……

그치만….

이번엔
지난 번보다
훨씬 큰 마을을
발견했지롱.

이제부터
이곳이
사라지게
된다.

아, 아니!?
이, 이 영상은…!
우리 마을
이잖아!

저… 저걸 봐!
마인 부우가
저기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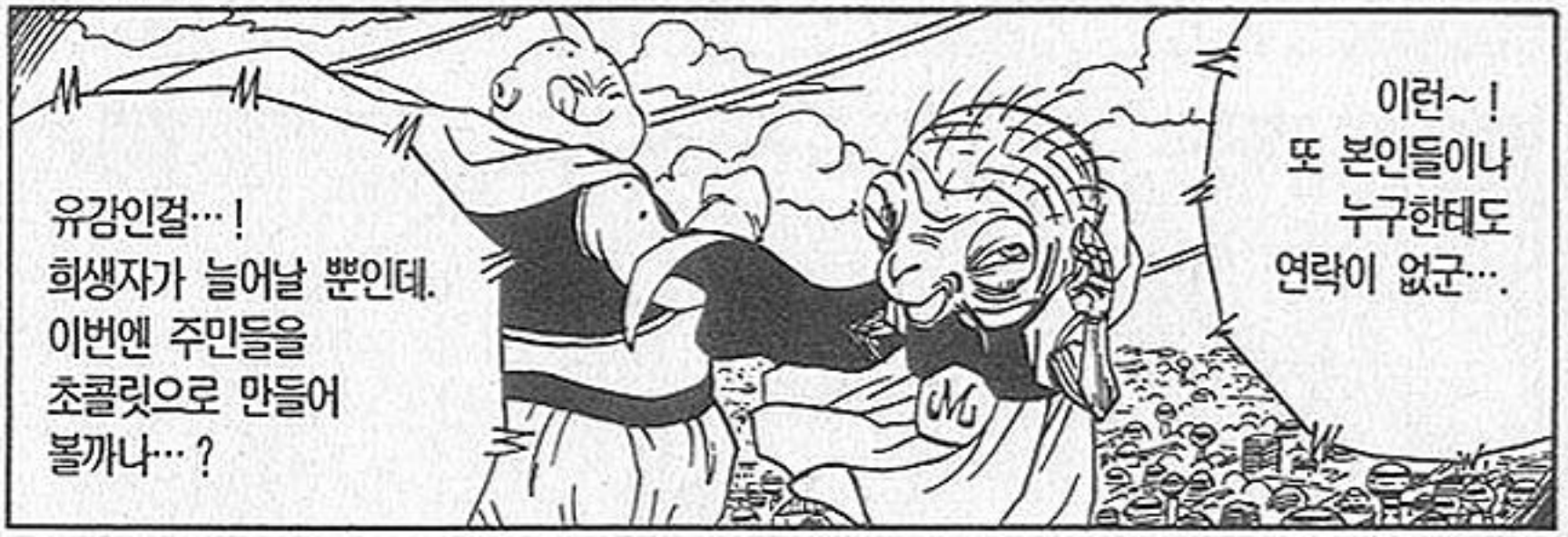
꺄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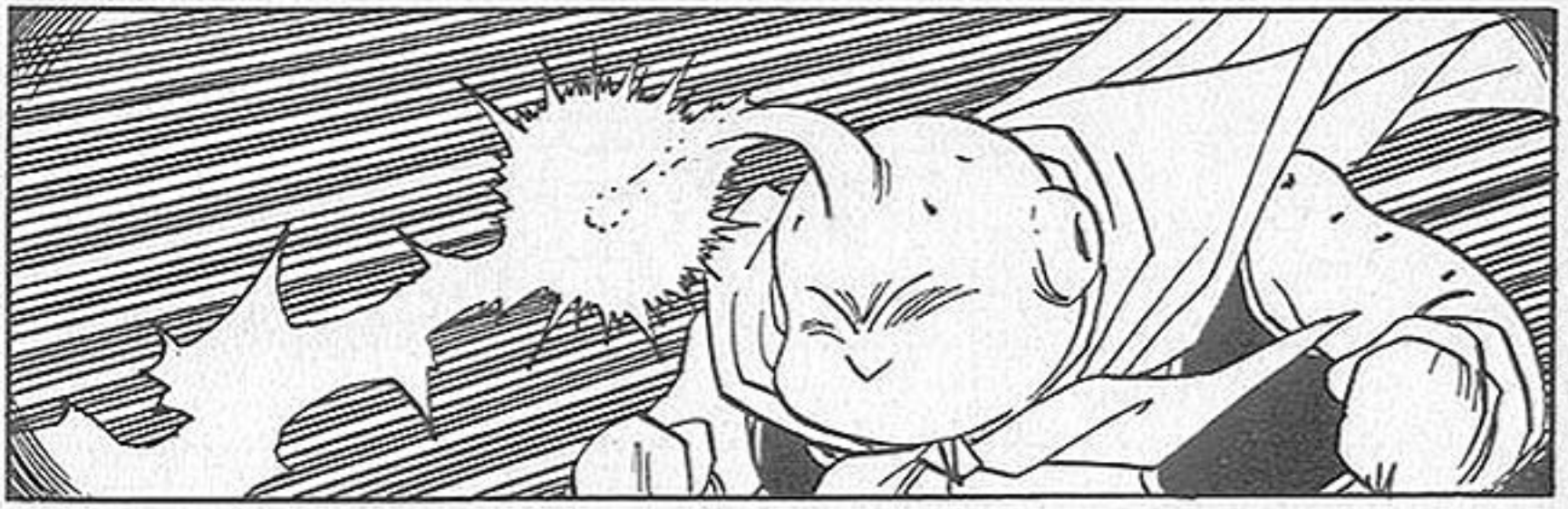
마주니어와
트랭크스,
오천이란 세 놈이
지금 여기
나타나지
않으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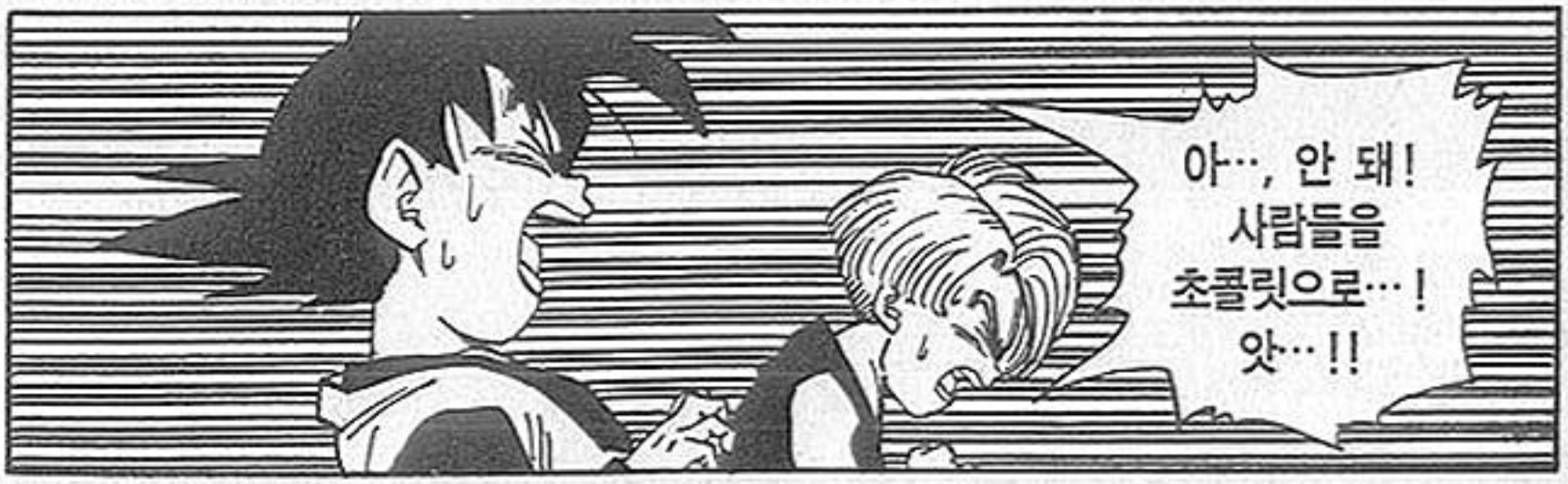

앗…!!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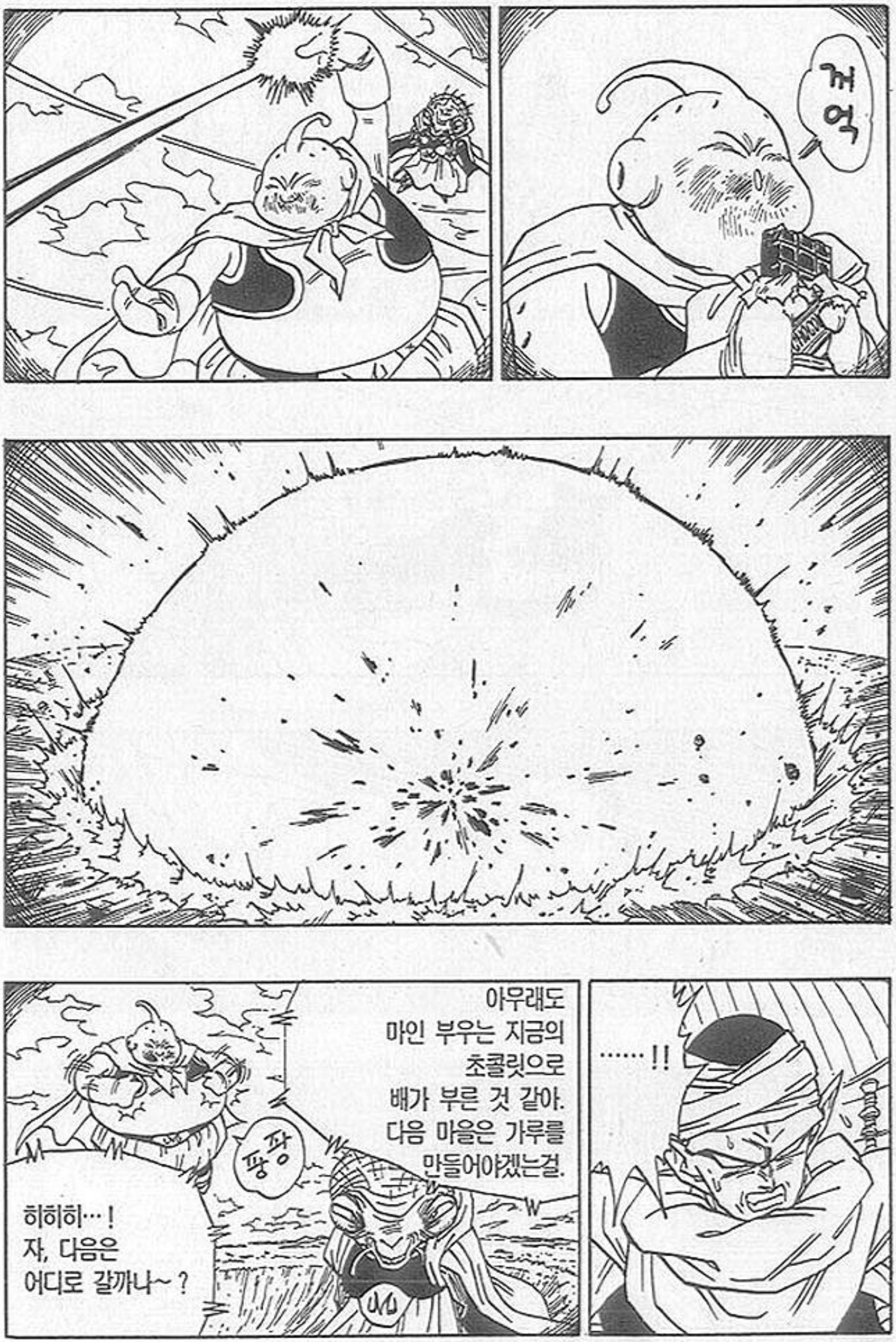

안 보는 게 좋을 거다…!
보지 마!


트렁크스! 눈을 감고 봐! 부우 놈들이 보인다!!
우… 우리 얘기를 하고 있네!


유감인걸…! 희생자가 늘어날 뿐인데. 이번엔 주민들을 초콜릿으로 만들어 볼까나…?
이런~! 또 본인들이나 누구한테도 연락이 없군….




아…, 안 돼! 사람들을 초콜릿으로…! 앗…!!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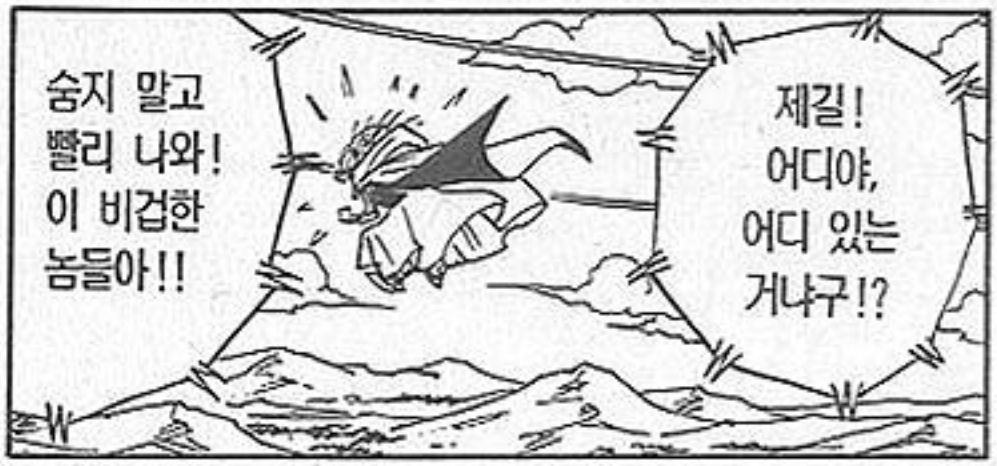

꺼억
!
아무래도 마인 부우는 지금의 초콜릿으로 배가 부른 것 같아. 다음 마을은 가루를 만들어야겠는걸.
팡팡
히히히…! 자, 다음은 어디로 갈까나~?
……!!


난
트랭크스…!
난
오천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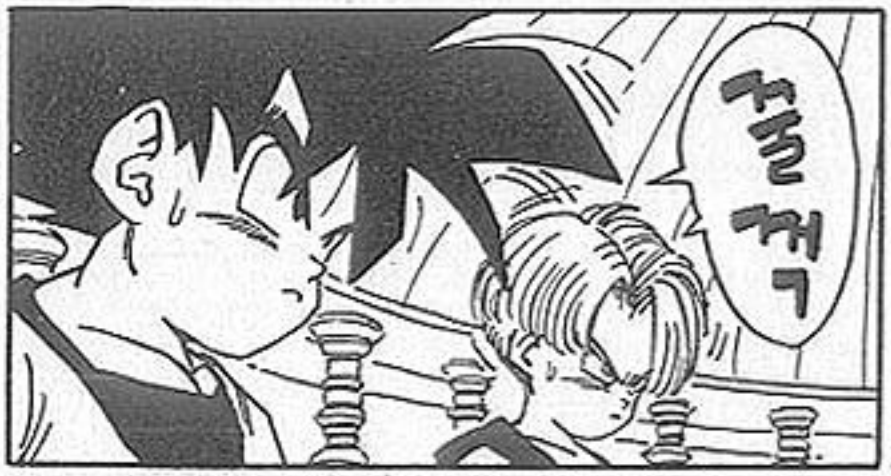

바비디!
마인 부우!!


넬
박살내
주마!!
지금 실력으론
아직 무리지만,
조금만
기다려라!


어쭈구리
…!
이제야
본인들에게서
연락이 왔군요.


숨지 말고
빨리 나와!
이 비겁한
놈들아!!
제길!
어디야,
어디 있는
거냐구!?


야! 바비디에게
여기를 검면
안 돼!
이곳이
발각된단
말야!!


걸릴 거


퓨전을
…!!
수행을
시작하자!